■ 2022년 전문자료집 ■

팀 스 터 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22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 목 차 ▨

1. 기획홍보팀
- 22-01 2023년 보건복지부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방안 ····· 5
- 22-02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저작권가이드 교육 ····· 11

2 기능향상지원1팀
- 22-03 발달장애인 성교육 CIRCLES ····· 23

3. 기능향상지원2팀
- 22-04 조음음운장애의 이해 ····· 29
- 22-05 호흡 물리요법 ····· 53

4. 가족문화지원팀
- 22-06 '사람중심조직'을 위한 동료 간 사람중심설명(PCD) ····· 61
- 22-07 영화 'CODA' 관람을 통한 비장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 71

5. 지역연계팀
- 22-08 지역자원의 정보수집 및 자원관리의 전문성 함양 ····· 77
- 22-09 장애인 탈시설화 ····· 83
- 22-10 코로나19와 사회적 돌봄 ····· 87

6. 직업지원팀
- 22-11 성격유형(MBTI)공유를 통한 업무상 상호보완점 확인 ····· 93
- 22-12 당사자 중심의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적용사례 ····· 101

7.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 22-13 중증지적·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방법의 이해 ····· 109
- 22-14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 125

8.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22-15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137
- 22-16 고용노동부 체계의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 ····· 143

9.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 22-17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및 정책의 이해 ····· 153
- 22-18 회복근거 사례관리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전략' ····· 163
- 22-19 동료지원가 역량강화 교육 ····· 171

팀스터디 22 -01

2023년 보건복지부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방안

팀 명	기획홍보팀
일 시	2022년 8월 11일(목) 13:00~14:00
발표자	고광원
장 소	1층 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B지표

B3. 직원충원률 : 변동사항 없음.

B4. 직원근속률 : 변동사항 없음.

B5.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내·외부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음.
- 직원 교육활동비 산정 기준은 동일함.
- 교육활동비 및 참여시간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만 인정됨.
- 내·외부교육 참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료증이 필수이며, 수료증이 없을 경우 1일 교육 8시간, 반일 교육 4시간까지만 인정됨.
-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인정되며, 내부교육은 1인당 연간 30시간까지 인정됨.(교육시간 산정 시 60시간 초과 직원의 교육시간은 제외)

B6. 외부자원개발

- 전체적인 지표는 유지되었으나, 산정방법, 근거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음.
- 외부 자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로포절을 제출하여 선정된 문서가 명확히 있어야 함. 공고문이 없더라도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공문서와 사업 진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점수 부여됨.
- 외부자원금은 사업 도중 반납·회수 등과 관련 없이 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됨.
- 시설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증빙자료가 명확할 경우 점수 부여 가능함. (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추진한 내용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함.)
- 지원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후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점수가 부여됨.(난방료 지원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현물 수령은 현물 가액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을 경우 외부자원금으로 인정됨.
-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과 현물 건수를 의미함.
-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제안문서와 선정문서가 명확히 증빙이 될 경우 점수가 부여됨. (질의결과 제안문서와 선정문서 모두 증빙이 필요함)

B7. 직원채용의 공정성

- 전체적인 지표는 유지되었으며, 세부 지표에 대한 변경이 있음.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함.(2022년만 적용)

- 채용공고 시 공고문에 올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내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양식 외 제출서류에도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점수부여 가능함.(차별적 내용이란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내용을 의미함.)
-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전력조회서가 추가됨.

B8.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 변동사항 없음.

B9. 직원교육

- 직원교육 만족도 조사 시 '강사의 전문성, 교육 내용이 목적과의 정합성, 교육수준(난이도), 교육방법의 적절성, 업무수행에 도움 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점수부여 가능함.(2022년부터 적용)
- 이 외 내용은 동일함.

B10. 직원복지 : 변동사항 없음.

B11. 직원의 인권 및 안전보장

-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기존에 있던 직장 내 인권침해, 이용자에 의한 안전침해 등을 통합하고 추가적인 내용보완이 필요함.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은 연1회로 동일하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괴롭힘 금지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직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회의(또는 간담회)가 실시되어야 함.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고충처리회의와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였어도 점수 부여가 가능함.(단, 하나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 내용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B12.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상하반기 평가 내용에는 사업전체 및 회기별 목표 대비 달성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유까지), 사업 진행 장소 및 자원(환경)의 적절성, 진행자의 전문성 및 친절성, 이용자의 만족도, 프로그램 제공 전과 후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정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점수부여 가능함.(2022년부터 적용)

- 2020~2021년은 사업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경우 점수부여가 가능함. 2022년은 상하반기 내내 운영하는 사업은 상반기 사업평가 후 하반기 사업운영 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중 어느 한 기간에만 운영하는 사업은 차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을 경우 점수가 부여됨.(모든 사업 중 5개 사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 시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 내용이 한 가지 이상 있어야 점수 부여)

B13. 장애인 종사자 고용율 : 변동사항 없음.

Ⅱ.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C지표

C4. 지역사회네트워크 : 변동사항 없음.

Ⅲ.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D지표

D1. 비밀보장

- 전체적인 내용은 변동 없으나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
-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승인과정 없이 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면 점수 불인정됨.

D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인권보호 관련 규정 마련 여부 확인에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인권침해→인권보호)
- 이용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각 팀에 공지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 이용인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각 팀에 공지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인의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되었음.(인권교육 4시간, 이용자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1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 이용인 및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진행 시 강사의 자격확인이 필요함.

D3. 고충처리

- 전체적인 지표는 동일하며, 이용자의 고충 처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었음. 해당 지표에 따라 운영규정 변경 검토가 필요함.

D4.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 변동사항 없음

D5. 이용자의 권익옹호

- 이용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각 팀에 공지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확인에서 '권익옹호 사업관리'가 추가되었음. '사업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팀스터디 22-02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저작권가이드교육

팀 명	기획홍보팀
일 시	2022.12.7.(수)
발표자	고광원, 차정섭, 이연정, 유은별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저작권가이드 교육

1. 저작권의 이해

1) 저작권이란?

-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권리(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를 주는 제도
-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공연/방송, 전송 등 전달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비영리나 공익적 목적에도 마찬가지

2) 저작권의 존재

- 글(원고), 사진, 동영상, 음악, 뉴스기사 등등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엔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음

3) 저작권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

사용자 위반	- 개인사용자 - 영리기업 사용자 - 비영리단체 사용자
목적 위반	- 개인적인목적 - 영리적인 목적 - 비영리적인 목적
약관 위반	- 폰트 라이선스 세부조항 - 인쇄,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 임베딩/BI/CL/OFL
거짓 협박	- 실제로 저작권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형

* 약관 관련 용어

임베딩 (Embedding)	- 사전적의미로는 '넣다'라는 뜻이며, 자막을 표현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삽입한 것
BI (Brand Identity)	- 제품의 로고
CI (Corporate Identity)	- 기업 로고
OFL (Open Font Licence)	- 폰트 파일의 수정/복제/ 배포가 가능, 유료로 폰트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

2. 폰트 저작권

1) 폰트 라이선스 요약표 확인

- 카테고리 별 허용되는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 사용범위에 따른 허용여부 또한 확인
-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무료 폰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료 폰트가 아니며, 특정 대상이나 특정 용도를 지정하는 폰트는 가짜 무료 폰트라고 볼 수 있음
- 진짜 무료폰트는 용도나 대상 상관없이 무료일 경우에 해당 함

2) 폰트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 존재

- 폰트 디자인은 저작권이 없음
  * 따라서 출력물(현수막, 포스터)은 저작권이 없음(증거가 되지 않음)
- 그러나 폰트 컴퓨터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음
  * 폰트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릿 샷이 진짜 증거

3) 번들 폰트

- 번들 폰트란, 따로 다운로드 한 폰트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 구매 시 포함되는 폰트
- 번들 폰트를 사용하여 한글 문서 작성 후 출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 하지만, 번들폰트를 이용해서 PDF작업(임베딩) 혹은 해당 번들 폰트를 이용해 간판 등 디자인을 만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함
  * 특히, HY(한양정보통신)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유튜브나 PPT에 사용할 수 있는 폰트라고 뜨지만 저작권은 한글에서만 가능

4) 배포권을 위반하지 않는 임베딩

- 폰트가 들어간 이미지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님
  * PDF파일을 이미지화 하여 배포하면 배포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PDF 파일 업로드 시 글꼴이 파일에 임베딩 되어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함
- 폰트가 들어간 원본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음
  * 폰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배포권 위반에 해당

3. 사진 저작권

-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그림파일 사용 시, 업로드 한 사이트에서 저작권 확인 필수
- 다운로드가 가능할지라도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전에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필수임
- 사진 및 이미지는 최대한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라이선스를 확인 후 사용할 것
- 네이버 및 구글에서 저작권 필터링을 했어도 해당 사진 저작권자가 맞는지 확인 필요
  대표 사이트) 프리픽스, 어반 브러시

4. 음악 저작권

기관 유튜브 업로드 및 영상 제작 시 사용되는 음원들 또한 저작권 확인 필요

- 유튜브의 경우, 검색창에 '무료 음원 추천'으로 검색하면 유튜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원을 추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음
  * 무료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 광고가 붙는 것이 어쩔 수 없음
- 무료로 배포되는 음원을 다운로드하여 불법적으로 유포하거나 공유하게 될 경우 저작권의 책임이 발생
- 음원의 경우,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 일시적으로는 이용료는 지불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에 계속 업로드 해놓을 경우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유료 음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5. 불법 복제 프로그램

-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어도비 포토샵 등 유료프로그램을 불법사이트에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
- 구매를 한 유료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것 또한 저작권 위반
- 비영리기관 및 단체를 지원해주는 비영리 IT지원센터 테크숩코리아에서는 마이크로소포트, 구글 워크스페이스, 잔디, 줌, 어도비 등 유료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후원영수증)에 제공
-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IT지원센터에서 운영 함

6. 기타 저작권 위반

1) 개봉 6개월 미만의 상업용 영화 상영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은 6개월이 지난 후 상영이 가능

*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개봉한지 6개월이 지나면 무료로 상영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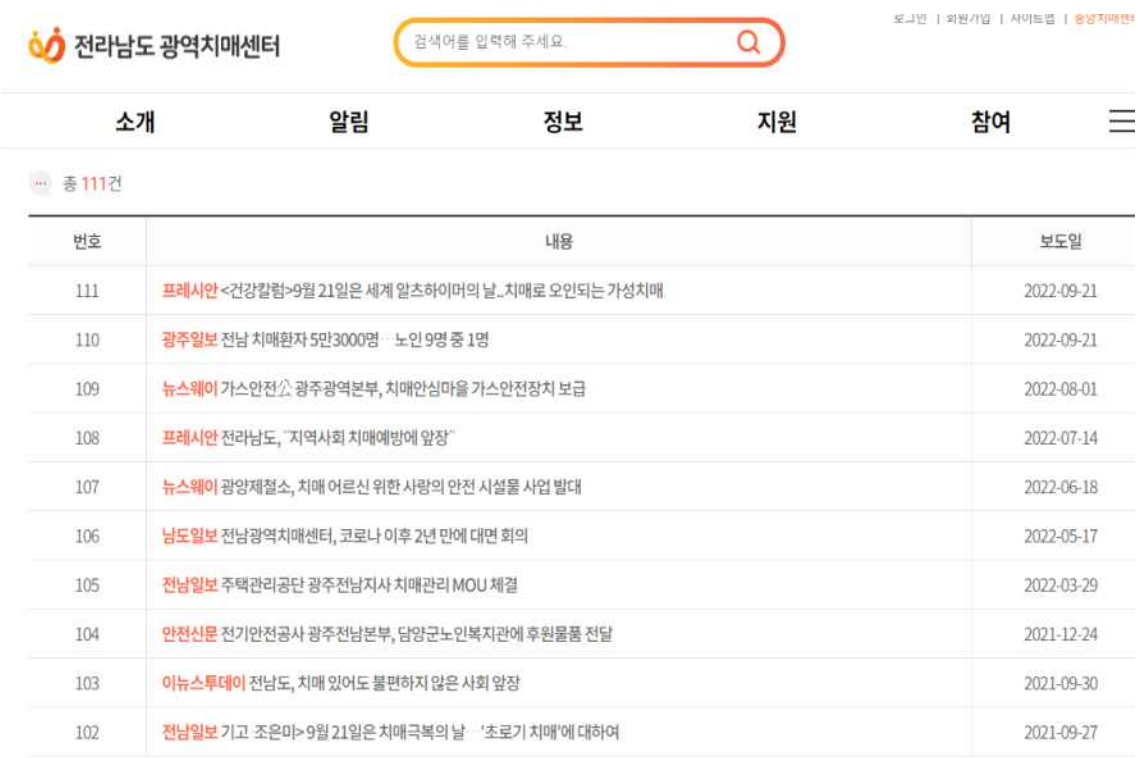
2) 복지관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뉴스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 기관명이 들어가 있는 보도 자료라도 직접 작성하지 않은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

* 스크린 샷하여 게시물로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본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 자료의 경우, 1차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

*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의 경우, 게시글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보도자료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 (저작권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



번호	내용	보도일
111	프레시안 <건강칼럼>9월 21일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치매로 오인되는 가성치매	2022-09-21
110	광주일보 전남 치매환자 5만3000명…노인 9명 중 1명	2022-09-21
109	뉴스웨이 가스안전公 광주광역본부, 치매안심마을 가스안전장치 보급	2022-08-01
108	프레시안 전라남도, "지역사회 치매예방에 앞장"	2022-07-14
107	뉴스웨이 광양제철소, 치매 어르신 위한 사랑의 안전 시설물 사업 발대	2022-06-18
106	남도일보 전남광역치매센터,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의	2022-05-17
105	전남일보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치매관리 MOU 체결	2022-03-29
104	안전신문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담양군노인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2021-12-24
103	이뉴스투데이 전남도, 치매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 앞장	2021-09-30
102	전남일보 기고 조은미>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 '초로기 치매'에 대하여	2021-09-27

7. CCL(Creative Common License)

-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제도
-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의미
- CCL의 종류

라이선스(문자표기)	라이선스 내용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음
동일조건 변경허락(SA)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 함

* CCL을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위키 백과가 존재

라이선스	문자표기
	CC BY
	CC BY-NC
	CC BY-ND
	CC BY-SA
	CC BY-NC-SA
	CC BY-NC-ND

8. 공정이용

- 창작자나 발명가가 만들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 EX) 화가가 그린 그림을 그 화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가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해당 그림을 미술 수업시간에 설명)
- 즉,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매년 1월 13일을 '세계 공정 이용의 날'로 지정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

9. 저작권 사용

-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 저작권 사용 절차

사용절차	내용
1) 자료검색	필요한 자료 검색
2) 저작권 확인	해당 자료 저작권 공개여부 확인
3) 약관 확인	비영리기관의 비상업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4) 사용 허락	저작권자와 연락이 가능하면 직접 사용 허락 받기 혹은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후 허락 받기
5) 출처 표시	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출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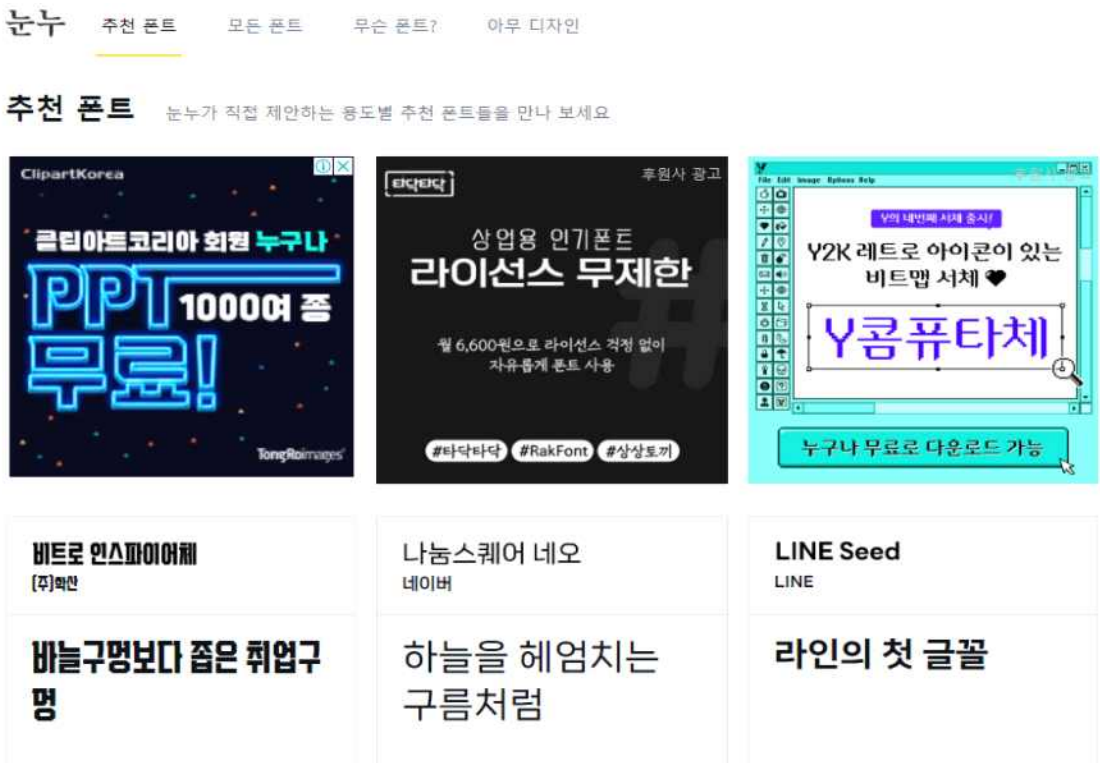
10. 업무 참고용 무료 저작물 사이트

1) 폰트 무료 사이트

- 눈누

  * 저작권이 공개된 무료 폰트를 모아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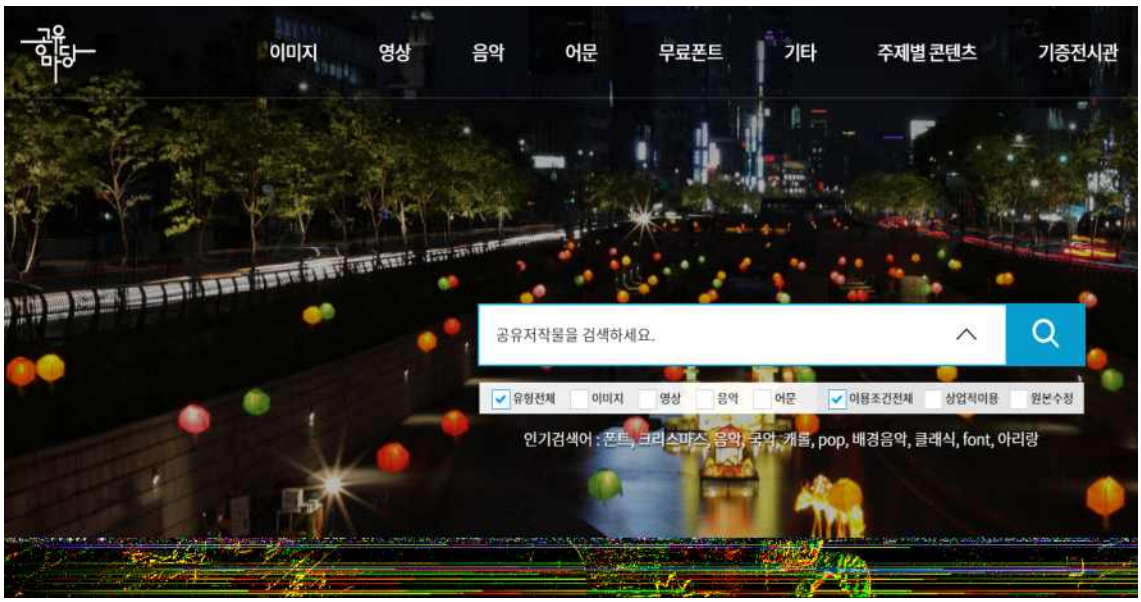
  * 폰트 별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확인 가능



- 공유마당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공개자료 공유 사이트

  *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다양한 무료 저작권 파일 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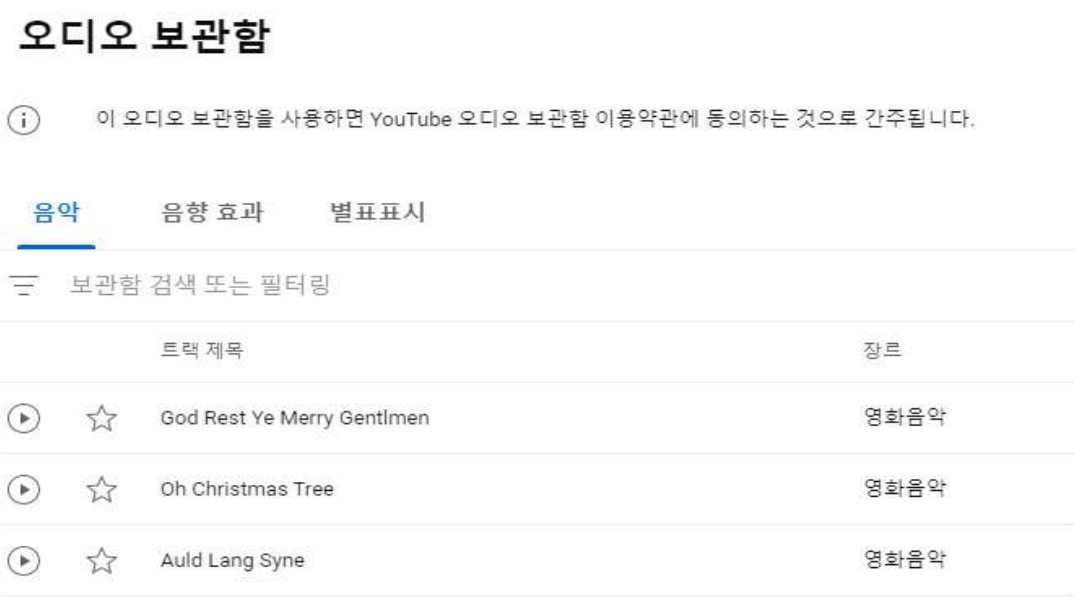


2) 음원 무료 사이트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 구글 유튜브에서 유튜버를 위핸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 효과음 사이트

  * 활용한 영상은 유튜브에서만 업로드 가능, 타 플랫폼 활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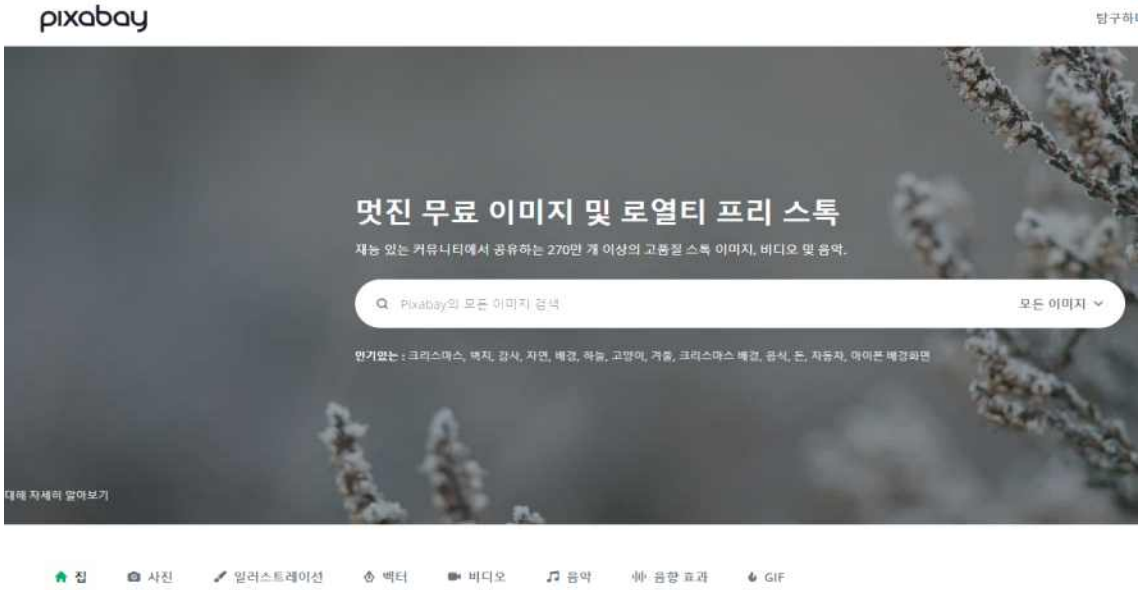
- 이 외에 자멘도, 프리뮤직아카이브, 프리사운드, 씨씨믹스터, 옵사운드, 레츠씨씨가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필터링하여 허용하는 저작물을 선택하여 사용가능

3) 이미지 무료 사이트

- 픽사베이

  * 저작권이 공개된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효과음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외국 사이트지만 한글로 검색 가능



-PNGimg

  *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섬네일이나 포스터에 적절하게 활용 가능

  * 외국 사이트라서 영어로 표기되지만 크롬을 활용하여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 수월하게 활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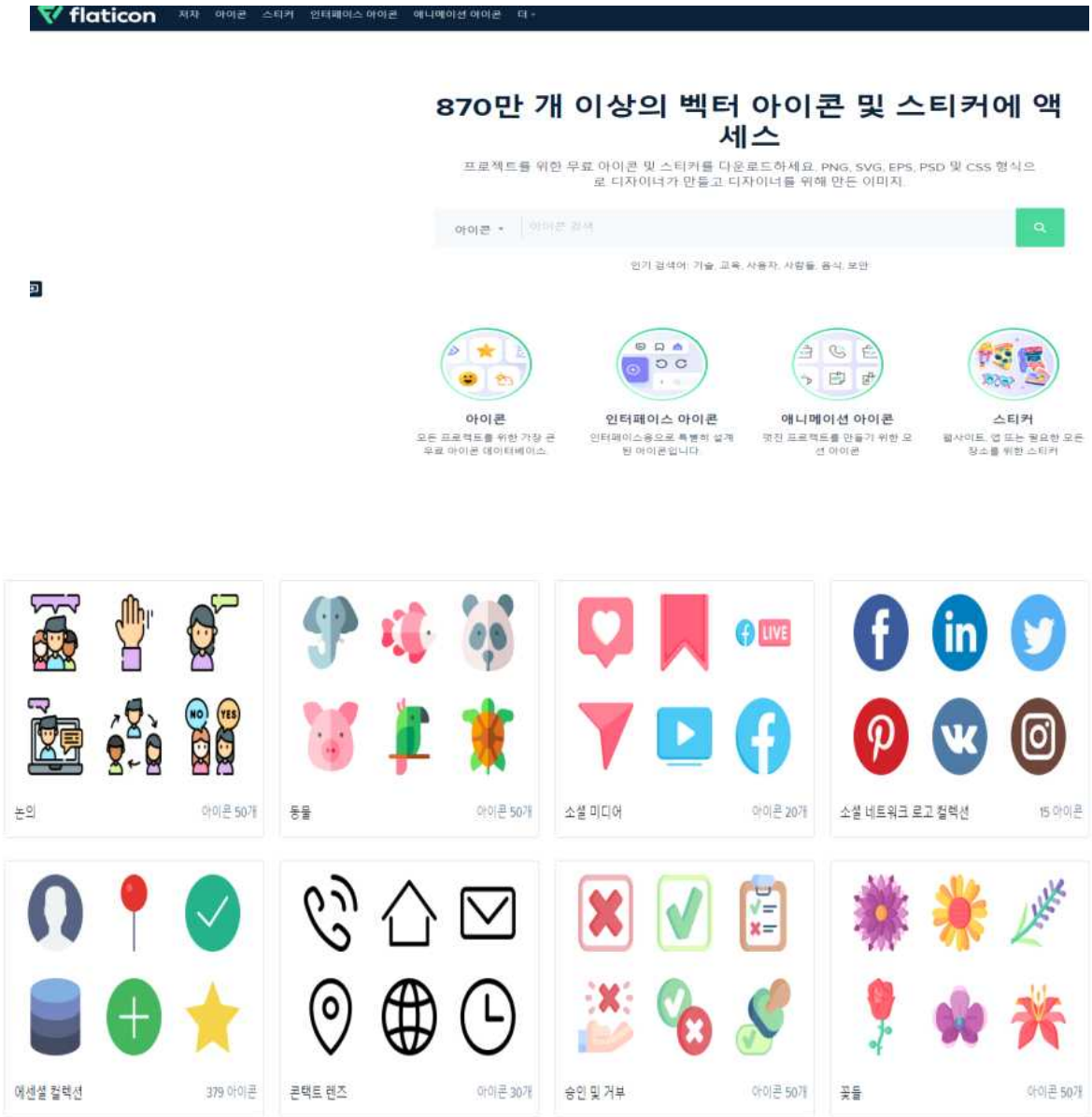
- 어반브러시
  * 디자이너들이 재능을 기부하여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를 배포하는 사이트
  *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기에 자료가 친숙하고 패러디 하기 좋은 이미지가 다수

- 프리픽
  *전 세계의 디자이너가 자주 활용하는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
  *큰 사이즈로 인쇄 출판을 해도 화질이 낮아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 제공
  장애인, 노인 등 사람 이미지 다수 보유

- 플랫티콘

  * 단순한 그림을 활용하여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

  * 무료로 컬러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기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사용 시 출처표기 필요)



팀스터디 22-03

발달장애인 성교육 CIRCLES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2.09.23.(금) 12:40~13:40
발표자	김윤성
장 소	본관 1층 상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성교육 CIRCLES

1) CIRCLES의 소개

CIRCLES란 쉽게 말해 관계 안에서 경계 짓기이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이고 성적인 개인공간과 사회적 거리, 그리고 사회-성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CIRCLE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세련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가르친다.

CIRCLES는 미국에서 1983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사회0성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최초의 작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수준,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 일이다. 저자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간단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게 하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 결과 CIRCLES의 개념인 여섯 가지 색깔로 된 CIRCLE을 사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들을 범주화시킨 교수모델이 개발되었다. 각 CIRCLE은 색깔, 행동, 친밀감과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CIRCLES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이 친밀감과 대인관계의 다양한 수준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좋은 사회적 기술은 자존감 위에 구축된다. CIRCLES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존중감과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율성을 지닐 때 안녕을 느끼게 된다.

① CIRCLES의 개념

Circles는 여섯 가지 색을 지닌 Circles를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Circles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색을 지닌 Circles는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과 느낌, 활동을 갖는다.

② 여섯 가지 색의 CIRCLES와 그 의미

⑴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만질 수 없다.
- 나만 들어오는 서클
- 자기 자신만을 포함하며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CIRCLE이다.

⑵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애인이다.
- 가족이 들어오는 CIRCLE
- 가족과 애인에게만 해당된다.
- 이들에게만 껴안고 키스하는 특별한 행동이 허용된다.

⑶ 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당신이 가볍게 안을 수 있는(다정하지만 친밀한 껴안음은 아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날에 초대받아 온 친한 친구들이다.
- 친구들이 들어오는 CIRCLE
- 껴안는 것은 적절하지만 지나친 애정표현은 할 수 없다.

⑷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지인이 들어오는 CIRCLE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악수한다.
- 아는 사람의 기준은 ① 나는 이전에 만났거나 조금 아는 사이, ② 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안다, ③ 학교나 센터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⑸ 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당신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 동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CIRCLE
- 아이들에게 적절한 인사는 친정하게 손을 흔드는 것이다.
- 아이들과 짧게 인사를 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⑹ 붉은색의 낯선 사람 Circle

- 당신은 지역사회의 도우미들과는 일과 관련하여서만 접촉한다.
-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낯선 사람들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당신이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안돼”라고 말할 때와 자리를 떠날 때를 결정한다.

CIRCLES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을 구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규범과 개인의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CIRCLES은 발달장애인들이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준다. 또한 이것은 발달장애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존중을 잘 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은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앎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2) Circle의 의미

① 나에 관한 것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자신의 Circles에서 중심원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는 혼자만 들어가며 원래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② 가족(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에 들어오는 가족과의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사랑하는 관계인 가족에 대해 말한다.
- 자신의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에 가족이 들어올 때를 말하고, 그 관계는 만짐, 말, 신뢰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나 낭만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다.

③ 애인(파란색의 “애인”을 껴안는 Circle)

- 가깝고 사랑하는 낭만적인 관께로 애인이 들어오는 파란색의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Circle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애인에 대해 말한다.
-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에 애인이 들어올 때를 말하고, 그 관계는 만짐, 말, 신뢰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며 또한 낭만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④ 친척(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애정 어린 관계로 친척이 들어오는 초록색의 가볍게 껴안는 Circle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친척에 대해 말한다.
- 자신들의 초록색의 가볍게 껴안는 Circle에 친척이 들어올 때를 말하고, 그 관계는 만짐, 말, 신뢰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나 친밀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음을 강조한다.

⑤ 친한 친구들(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애정 어린 관계로 친구들이 들어오는 초록색의 가볍게 껴안는 Circle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친한 친구들에 대해 말한다.
- 자신들이 선택한 친구들 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에 들어오게 한 이유를 말한다.

⑥ 이웃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에 들어오는 이웃사람들과 관련된 친밀감을 알고 이웃사람들에 대해 말한다.
- 자신의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에 이웃사람이 들어올 때를 말하고, 그 관계는 만짐, 말, 신뢰에서 제한적이며 그 사람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고 말해준다.

⑦ 아는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아는 사람들로, 학교나 기관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노란색 악수하는 Circle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그 선생님들에 대해 말한다..
-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에 선생님이나 직장상사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을 놓게 될 때를 말하고, 그 관계가 제한적인 만짐, 말, 신뢰로서 그들은 존중하지만 개

인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다고 강조한다.

⑧ 어린아이들(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나이에 따른 관계로,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한다.
- 아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거나 안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를 말하게 하고, 그 관계가 만짐, 말, 신뢰에서 제한이 많다고 말한다. 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이다.

⑨ 지역사회 도우미(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에 있는 낯선 사람으로, 지역사회 도우미들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지역사회 도우미들에 대해 말한다.
- 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에 있는 지역사회 도우미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의해서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임을 말해준다. 그들이 입는 복장이나 뱃지, 사용하는 장비로 그들을 알 수 있다.

⑩ 의료진들(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몸을 만지는 일을 하는 낯선 사람들로, 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에 들어오는 지역사회 도우미들과 관련된 친밀감의 정도를 알고 이들에 대해 말한다.
- 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에 있는 지역사회 도우미들은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만 아는 사람들임을 말해준다. 그들이 입은 복장이나 뱃지,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의해 그들을 알 수 있다.

⑪ 완전히 낯선 사람들(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에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로,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쇼핑객들과 관련된 친밀감의 수준을 알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
- 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에 있는 낯선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준다. 낯선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으로는 그가 도움을 줄지 해를 줄지 알 수 없다.

3) 발달적 교육과정으로써의 CIRCLES

- CIRCLE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하고 그와 관련된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S를 포함한다. Circles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S을 일치시키고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들이 맺고 있는 여라 관계들을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다.

4) 3개의 “T” :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

- CIRCLES에 있는 3개의 “T” 인,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는 여러 관계들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것들은 다양한 관계들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5)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

- 6개의 질문은 발달장애인들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특징은 다음 6가지 요소들을 알아봄으로써 가능하다.

·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보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유대를 그 사람과 맺고 있는가? ·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가? ·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얼마나 깊은가? ·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한가?

- 이 6가지 결정요소들 각각의 양이 크면 클수록 대인관계는 더 친밀하다. 참가자들은 이 결정요소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실제 대인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훈련은 발달장애인들로 하여금 배운 것을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의 대인관계에 일반화시키도록 준비시킨다. 발달장애인들이 이 6가지 질문과 CIRCLES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거리감에서의 상호작용을 알게 되면 오래된 관계와 새로운 관계를 충족시키는 만짐, 말, 신뢰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론

CIRCLES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계 짓기의 중요성과 사회적 경계 짓기를 활용하여 올바른 성적 행동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CIRCLES의 경계를 짓는 방법을 참고하여 CIRCLES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계 짓기와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 짓기를 포함한 성교육을 제공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팀스터디 22-04

조음음운장애의 이해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발표자	현은주
장 소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조음음운장애

Ⅰ. 개관

1. 조음음운발달

1) 말소리 지각의 발달

▶청 감각 → 청 지각 → 청각적 처리 → 의미적 해석(언어적 인지)

(1)말소리 변별능력(감지능력)의 발달

①외부감지: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서 음소 간의 차이를 구별

②외부-내부감지: 다른 사람의 말소리와 자신의 말소리를 구별

③ 내부감지: 자신 스스로의 말소리에서 음소들을 상호 구별

2) 조음음운 산출능력의 발달: ①옹알이 시기, ②초기 음운 발달기, ③후기 음운 발달기

(1)옹알이 시기(0~1세)

①발성단계(0~1개월): 불완전한 공명, 비음같이 들린다.

②쿠잉단계(2~3개월): 연구개 자음과 같은 소리, 모음/u/와 유사한 목울림 소리

③확장단계(4~6개월): 물푸레질, 비명소리 등 여러 발성 유형, 음절성 발음에 근접한 소리

④반복적 옹알이단계(6~8개월): /바바바/와 같은 음절 반복, 완전한 공명

⑤음절성 발음단계(9~12개월): 자음과 유사한 소리와 모음 유사한 소리가 조합

(2)초기 음운발달(1~2세)

▶단어를 분화시키지 못하고 통단어로 습득

▶자신의 음소목록에 있는 소리로만 된 단어들을 선택하여 산출

▶음절축약: 단어의 모든 음절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줄여서 말하는 것.

(3)후기음운발달(2~7세): 자음의 발달, 명료도 발달

①어휘폭발기(2~4세)

-통단어 전략보다는 규칙지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어휘가 급증

-성인의 소리와 아동의 소리의 관계가 체계적인 대응을 맺게 된다.

②말소리 습득의 안정기(4~7세)

-4세에 이르면 종성도 산출할 수 있게 되므로 대부분의 음절구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3)음운인식의 발달: ①음운인식의 수준, ②음운인식의 평가

▶말은 문장, 단어, 형태소 음절과 같은 다양한 작은 언어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과 같은 큰 단위는 하위의 단어 단위로 분리해 낼 수 있다. (문장=단어+단어)

▶상위언어학: 언어의 단위에 대한 인식과 조작능력

▶상위음운론: 말소리 단위에 대한 인식과 조절능력(=음운인식)

▶언어기호를 구성하는 개별 언어 단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조음음운능력과 어울러 문자의 습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운인식이 발달할수록 글자를 읽거나 쓰는 것이 발달하고, 철자를 알게 되면 음운인식이 더욱 발달될 수 있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1)음운인식의 수준

①초보 음운인식 수준

- 단어 쌍들이 공통적인 음운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 요소를 의식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수준
- '마차, 마음, 마당, 마패' 등의 단어를 듣고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나 '마'자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단계

②심화 음운인식 수준

- 단어와 음절의 음운구조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
- '말'과 '마차'가 같은 /ㅁ/로 시작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음절인식, 두운인식, 각운인식, 음소인식 등을 할 수 있다.

(2)음운인식의 평가

▶단어탈락, 단어합성, 단어변별, 음절탈락, 음절합성, 음절변별, 각운산출, 두운변별, 두운산출, 초성분리, 중성분리, 종성분리, 음소분절, 음소탈락, 음소합성, 음소수 세기

① 단어탈락 : 왕과 개미 각각의 그림을 보여준 뒤 "여기에서 왕 그림을 빼면 무슨 소리가 남죠?"

② 단어합성 : 바나나와 우유 각각의 그림을 보여준 뒤 "바나나와 우유를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되지?"

③ 단어변별 : 배(탈것), 파, 배(과일)의 그림을 보여준 뒤 "세 개의 그림 중에서 다르게 소리가 나는 것은 무엇이지?"

④ 음절탈락 : 그네에서 그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남죠?

⑤ 음절합성 : 당 소리에 근 소리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죠?

⑥ 음절변별 : 가게, 가방, 탱크 중에서 앞소리 하나가 다른 것은 뭐죠?

⑦ 각운변별 : 말, 발, 정 중에서 각운(끝나는 소리)이 다른 것은?

⑧ 각운산출 : 팔과 각운이 같은 말은?

⑨ 두운변별 : 칼, 컵, 북 중에서 두운(시작하는 소리)이 다른 것은?

⑩ 두운산출 : 산과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말은?
⑪ 초성분리 : 달은 어떤 소리로 시작하죠?
⑫ 중성분리 : 달의 가운데 소리는 뭐죠?
⑬ 종성분리 : 달의 끝소리는 뭐죠?
⑭ 음소분절 : 달을 만드는 세 개의 소리를 따로 따로 말해보세요.
⑮ 음소탈락 : 매에서 /ㅁ/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남죠?
⑯ 음소합성 : /ㄱ/소리에 /ㅐ/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죠?
⑰ 음소수 세기 : 달은 몇 개의 소리가 함께 만든 건가요?

2. 조음음운장애 정의

▶조음은 혀, 입술, 연구개 등과 같은 조음자의 정확한 위치, 압력, 속도, 타이밍, 계열성, 방향의 산출물로 나타나는 복잡한 협응 능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협응의 문제는 조음장애로 나타나게 된다.

▶조음 기관의 위치 및 운동에서 잘못된 배치, 타이밍, 방향, 압력, 속도 혹은 혀, 입술, 연구개, 인두 등의 통합운동 등의 잘못으로 어음을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는 문제

조음장애	음운장애
-음성학을 배경으로 한다. -기질적 장애(음소장애) : 해부학적, 생리학적, 신경학적인 손상으로 나타난다. -산출된 음이 표준 음소와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차이를 규명.	-음운학을 배경으로 한다. -기능적 장애 : 음운체계의 규칙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난다. -장애가 되고 있는 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음운 규칙에서의 편차 및 지체를 찾고자 노력.

3. 조음음운장애 원인

▶ 해부학적 요인
▶ 운동 및 감각적 요인
▶ 신경학적 요인
▶ 인지-언어적 요인
▶ 심리-사회적 요인
▶ 청각장애

1) 해부학적 요인(=조음기관구조 장애)

입술	▶ 양순음, 원순 반모음, 원순 모음을 산출하는데 필수적인 조음점이자 조음자
치아	▶ 치아의 부재는 마찰음의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부정교합은 공명강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구어 명료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1급 부정교합: 어금니 관계는 정상. 치아 위치의 이상, 회전, 삐뚤어짐 등 ② 2급 부정교합: 상악전돌. 원심교합 ③ 3급 부정교합: 하악전돌. 근심교합
혀	▶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조음자 ▶ 설소대가 너무 짧은 설 구착증, 혀가 너무 큰 대설증, 혀가 너무 작은 소설증
구개	▶ 구개의 구조적 및 기능적 결함은 비성을 산출하게 함 ▶ 입천장이 너무 높은 경우, 구개파열 된 경우

2) 운동 및 감각적 요인

▶ 조음 능력과 운동 협응력 사이의 관련성이나 입과 안면 근육 운동 등에 관련된 요인

일반 운동 능력	▶ 대근육 및 소근육 발달이 느린 아동의 경우.
구강 조음 기관 운동능력	▶ 교호(길항)운동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교호운동의 결함은 조음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혀 내밀기	▶ 마찰음의 왜곡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감각 지각적 요인	① 청력손실 - 음을 지각할 수 없게 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지각하게 되어 청각민감도, 어음식별력, 청력 손실의 양상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② 어음식별력 - 청자가 화자의 어음을 구별하는 청지각의 한 형태 ③ 구두 촉지각 - 구강 내에 놓인 형태를 인지하는 능력, 조음행동 조정의 역할에 관여

3) 신경학적 요인

마비말장애	말실행증
▶ 자음이 부정확하다. ▶ 발화시 호흡, 발성, 조음, 공명, 운율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말 명료도가 저하된다. ▶ 왜곡 및 대치와 같은 간단한 조음 오류 나타남. ▶ 오류는 일관적임. ▶ 조음 단위가 복잡할수록 더욱 어려워 함. ▶ 어말 위치에서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남. ▶ 심한정도는 신경근육 손상 범위와 관련 ▶ 구어 속도를 증가시키면 조음 수행력이 저하 ▶ 느린 구어 속도	▶ 왜곡은 거의 없고, 대치가 많이 나타남. ▶ 오류는 비 일관적임. ▶ 무의미한 발화보다 의미 있는 발화에서 더 정확 ▶ 단어의 길이가 증가하면 조음 오류도 증가 ▶ 자동적이고 반응적인 구어에서 더 정확 ▶ 모방 정확성은 자발적인 정확성보다 더 낫다. ▶ 조음 정확성은 연속적시도를 할 때 개선

4) 인지-언어적 요인(발달기적 요인)

지능	▶ 지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지적장애아인 경우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다.
언어발달	▶ 언어습득이 지체된 아동의 경우 조음 및 음운 발달이 지체될 확률이 높다.
학업성적	▶ 음운장애와 읽기 장애의 동시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 일부 아동들에서는 이 두 장애의 상호 관련성을 보인다.
음운인식	▶ 구어신호를 구성하는 음소, 음절, 단어 등의 언어학적 단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5)심리-사회적 요인

연령	▶ 아동이 성인의 음운 체계를 습득하는 것은 발달적 성숙과 관련이 있다. ▶ 이러한 관련성은 아동의 조음능력이 거의 완전하게 발달되는 8세까지 관찰된다.
성별	▶ 성별은 아동의 음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가족환경	▶ 사회경제적 지위와 조음능력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성격	▶ 성격이 정상아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6)청각장애

- 특성 : 말 명료도가 낮고, 조음이 부정확하며, 음성이 왜곡

초분절적 요인	분절적 요인
▶ 음소를 과도하게 연장하여 말속도가 느림. ▶ 너무 높거나 낮은 음도. ▶ 비정상적인 운율형태. ▶ 거칠거나 숨소리가 섞인 발성. ▶ 과비성 혹은 과소비성.	① 자음 - 잎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자음이 비교적 정확. - 초성보다 종성에 오류가 많다. - 발성유형 오류가 많다. - 과비성과 비강누출. - 첨가오류가 관찰. ② 모음 - 중립모음화로 모음 간 구분이 어렵다. - 모음의 길이가 연장되는 경향. -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된다. - 과도한 턱의 사용으로 모음의 왜곡도 심함.

※ 조음음운장애 유형

① 첨가, ② 생략, ③ 대치, ④ 왜곡

Ⅱ. 평가

1. 평가목적

1)평가목적

①선별: 완전 습득 연령에 있는 음소들의 바른 조음 유무 확인

②진단: 원인확인, 현재 수준 확인, 차료계획 입안

③효과의 측정: 사전·사후 검사

④예후의 측정: 치료의 필요성 확인

2)평가 시 진단자에게 요구되는 선행조건

(1)구어 메커니즘에 대한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지식

▶치료사는 정상적인 구강 메커니즘에 대하여 완전히 습득하여야 한다.

(2)음성학에 대한 지식

▶각 기관들이 어떻게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실제로 산출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

▶음성전사 기술을 잘 숙련시켜야 한다.

▶음성전사 능력은 음운분석 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3)조음음운 발달에 대한 지식

① 연령별 음소발달 단계

연령	음소 발달 단계			
	완전습득 연령 단계 90-100%	숙달 연령 단계 75-90%	관습적 연령 단계 50-74%	출현 연령 단계 25-49%
2;0-2;11	**ㅍ, ㅁ, ㅇ**	ㅂ, ㅃ, ㄴ, ㄷ, ㄸ, ㅌ, ㄱ, ㄲ, ㅋ, ㅎ	ㅈ, ㅉ, ㅊ, ㄹ	ㅅ, ㅆ
3;0-3;11	**ㅂ, ㅃ, ㄸ, ㅌ**	ㅈ, ㅉ, ㅊ, ㅆ	ㅅ	
4;0-4;11	**ㄴ, ㄲ, ㄷ**	ㅅ		
5;0-5;11	**ㄱ, ㅋ, ㅈ, ㅉ**	ㄹ		
6;0-6;11	**ㅅ**			

② 음소 빈도

장애음과 공명음의 사용 빈도	**장애음** > 공명음 (공명음은 장애음에 비해 유형빈도는 매우 낮지만 출현빈도가 매우 높다)
자음의 조음위치별 사용 빈도	**치경음** > 연구개음 > 양순음 > 치경경구개음 > 후두음
자음의 조음방법별 사용 빈도	**폐쇄음** > 비음 > 유음 > 마찰음 > 파찰음
자음의 발성유형별 사용 빈도	**평음** > 경음 > 격음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사용 빈도	**단모음** > 이중모음
활음유형별 이중모음의 사용 빈도	**ㅣ계** > ㅜ계 > ㅡ계
개구도에 따른 모음의 사용 빈도	**중모음 > 고모음 > 저모음**

③ 변별 자질에 대한 기초 지식

▶ 음소란 단위는 변별자질로 세분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요 부류 자질	- 자음성, 공명성, 음절성 자질
설체(혓몸) 자질	- 고모음성, 저모음성, 후설 모음성 자질
조음방법 자질	- 방해성, 소음성, 분산성, 비성성, 설측성 자질
조음위치 자질	- 설정성, 전방성 자질
후두 자질	- 기식성, 긴장성, 유성성 자질

④ 음운변동의 발생에 관한 지식

15%이상 40% 미만의 발생률	▶ 정상 아동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조음 장애 아동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변동. ▶ 종성생략, 비음생략, 유음생략, 연구개음 생략, 연구개음-전설음화, 경구개음-전설음화, 치조음화, 이완음화, 모음변이
10%이상 15% 미만의 발생률	▶ 정상 집단에서는 1%내외로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조음장애 집단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변동. ▶ 탈기식음화, 폐쇄음생략, 양순음생략, 치조음생략, 성문음-전설음화, 긴장음화
10% 미만의 발생률	▶ 정상 집단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동. ▶ 음절감소, 구개음 생략, 경구개음-후설음화, 성문음화, 마찰음화, 유음화, 비음화, 연구개음동화, 비음동화.

(4) 조음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지식

▶ 언어발달, 읽기, 음운인식, 철자, 교육 성취도, 치열, 구강구조, 크고 작은 운동기능, 지능, 청각능력, 기타 등에 관한 연관성을 파악.

(5) 사투리에 대한 지식

▶ 의사소통장애와 사투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6) 동시조음

▶ 음들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음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정한 음에 대해 다른 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동시조음(coarticulation)이라 한다.

2. 조음음운장애 지표

1)조음정확도

▶목표모음과 목표자음을 얼마나 정확히 산출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

▶ 무의미음절, 낱말, 문장, 자발화 맥락에서 목표음소의 정확도를 볼 수 있다.

①자음정확도(PCC): $\frac{\text{바르게 조음한 자음 수}}{\text{조음해야 할 총 자음 수}}$ X100

②모음정확도: $\frac{\text{바르게 조음한 모음 수}}{\text{조음해야 할 총 모음 수}}$ X100

③조음정확도: $\frac{\text{바르게 조음한 조음 수}}{\text{조음해야 할 총 조음 수}}$ X100

2) 조음능력지표(ACI)

▶왜곡이 많은 아동들의 조음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자음정확도 + 상대적 왜곡지표를 줄로 나눈 값

3) 말 명료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자가 이해한 정도

▶음소대조분석법, 평정법

▶명료도지표: $\frac{\text{청자가 바르게 받아 적은 발화낱말 수}}{\text{화자가 의도한 발화낱말 수}}$ X100

4)자극반응도

▶오류가 있는 음소에 대하여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단서를 어느 정도 주었을 때 바르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의집중을 우도하고 최대의 자극과 여러 방식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줄 때 대상자의 수행 차이를 통해 파악하는 것

▶자극반응도가 있는 음소는 치료할 때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3.검사종류

1)선별검사

①심도 있는 진단 및 평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

②보통 5분 내에 실시, 대표적인 샘플로 구성, 비공시식적 절차 사용

2)심화검사

①검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제작되어야 한다.

-자음능력 평가 시 음절수, 모음맥락, 음절구조, 낱말 혹은 문장환경, 음소빈도, 음운규칙 등 고려해야 한다.

②경우에 따라서 장애영역에 따라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3)표준화검사

①규준이 마련되어 있는 검사

②다른 또래의 아동이나 다른 능력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

4)비표준화 검사

①자발적인 대화를 녹취하는 것

②장점

-유연성이 있어서 치료사가 평가 중에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반응을 관찰할 수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단점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검사 분석 수준

1)음대 음 분석

▶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자극 반응도	▶ 아동이 목표음을 포함한 음절이나 낱말을 모방하는 능력 ▶ 자발적인 개선이나 치료에서의 향상속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준다.
일관성	▶ 발음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검사자에게 음소 전후관계에서 발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발음의 난이도	▶ 일찍 발달되는 음과 빈번하게 사용되는 음을 내기가 더 쉽다고 판단
발생 빈도	▶ 발생 빈도가 높은 음을 오조음 할수록 명료도는 더 나빠질 것이다.
습득 연령	▶ 주로 8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적당하다. ▶ 음소습득에서 발달이 지체되면, 전통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

2) 형태분석

(1) 음소목록검사 (음소유형별 분석)

① 조음위치, 조음방법, 발성유형 분석

-조음방법별 분석 : 대부분의 조음음운장애 아동들은 마찰음에서 어려움은 보인다.

-조음위치별 분석 :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나는 소리에서 더 어려움을 보인다.

(2) 음운변동검사 (음운패턴 분석) : 부정적인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분석

① 전체단어 변동

-생략 및 첨가 변동 : 목표낱말의 음절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동

-동화 : 단어 안에서 인접한 소리들끼리 영향을 미쳐 같은 모양 혹은 일부 같은 자질을 갖게 됨.

② 분절대치 변동

-목표낱말의 특정 음소를 다른 음소로 산출하는 것

-대부분 조음방법, 조음위치, 발성방법에 따라서 기술

조음방법에 따른 변동	폐쇄음화, 마찰음화, 파찰음화, 유음화, 활음화.
조음위치에 따른 변동	전방화와 후방화 (양순음화, 치조음화, 경구개음화, 연구개음화)
발성방법에 따른 변동	이완음화, 긴장음화, 기식음화.

5.검사절차

1)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선별검사

(1) 조음기관 근육의 평가 상황

① 가만히 정지한 상태 평가

- 입을 다물거나 크게 벌리도록 한 뒤 크기, 모양, 색깔, 균형(좌우대칭)을 살핀다.

② 특정 동작을 지시하고 움직임의 상태 평가

- 움직임을 관찰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강도, 속도, 범위, 안정성, 근긴장도, 정확성이다.

(2) 검사해야 할 조음기관 구조

턱과 치아	▶ 턱을 열고 닫아보라는 지시(치아는 교합상태를 확인)
입술	▶ 동그랗게 오므리기 ▶ (과장된) 미소 짓기 ▶ 볼을 부풀려 공기를 담고 있기 지시
혀	▶ 혀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끌어들이기 지시 ▶ 혀끝을 입술 위, 아래, 좌우에 대보도록 지시 ▶ 빠르게 좌우로 움직여 보기 지시
경구개와 연구개 및 인두	▶ '아'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도록 지시 - 구개의 움직임과 인두 뒷벽과 측면의 움직임.
후두	▶ 자발적으로 기침하기 지시

(3) 모음연장과제

①발화에 필요한 호흡 능력을 볼 수 있는 과제.

②숨을 크게 들이 쉰 상태에서 최대한 길게 '아'라는 모음발성을 지속하게 한다.

③ 최대발성지속시간(MPT)

- 정상인의 평균은 젊은 사람의 경우 남자는 28.5초, 여자는 22.7초, 아동이나 노인은 14초 내외

(4) 교대 및 일련운동

①교대운동(AMR)

-교호운동이라고도 함

- /퍼,터,커/음절을 주로 이용하며, 한 음절씩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과제

- 정상적인 젊은 성인의 경우 초당 5~7회 반복

②일련운동(SMR)

- 교대운동에서 사용한 세 가지 음절을 순서대로 반복하게 하는 것
- 정상적인 젊은 성인의 경우 초당 3~7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조음기관구조·기능선별검사(SMST)의 일부 항목을 진단대상 아동에게 적용가능

2) 표준화된 조음음운장애 검사

① U-TAP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대상: 2~6세

-평가: 어절 내 어두초성, 어중초성과 어말종성, 10개 단모음을 평가

-특징: 빠른 시간 안에 수행가능하며 낱말과 문장맥락 각각에서 같은 낱말을 검사할 수 있다.

② KS-PAPT (한국어 표준그림 조음음운검사)

-대상: 3~6세

-평가: APAC과 동일, 7단모음

-특징: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나누어 실행가능하고 정밀검사에서 음절 수 영향 파악이 가능함

③ APAC (아동용 발음평가)

-대상: 2~6세

-평가: U-TAP 맥락에 어중종성 추가, 모음 검사 없음

-특징: 일반아동 발달과정과 조음장애 아동의 잦은 음운변동 분석가능
빈도와 문맥을 고려하여 채점된 오류 점수로 원점수 산출가능

3) 자발화를 이용한 평가

▶ 조음정확도, 문맥에 따른 오류패턴, 말 명료도 등을 평가

▶ 장·단점

-장점: 단시간에 목표음소를 모두 검사할 수 있다.

-단점: 실제 일상생활에서 화자의 조음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4) 자극반응도

▶ 오류가 있는 음소에 대하여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단서를 어느 정도 주었을 때 바르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장·단점

-장점: 자극반응도가 있는 음소는 치료할 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단점: 치료하지 않은 다른 음소로의 일반화 효과는 작다.

Ⅲ. 치료

1. 치료원리

1)조음·음운치료의 요인

-조음·음운장애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식정도
-부모 및 교사의 인식 및 요구정도
-수반장애(언어와 같은)의 존재 여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조음패턴의 유무
-자음정확도와 전체적인 명료도
-연령기준 비교
-자극반응도
-일관성

2)치료회기

①집중치료: 일주일에 4~5회의 치료회기
⇨ 학교 입학 직전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②간헐치료: 일주일에 2~3회의 치료회기
⇨아동에게 기질적 장애가 있는 경우

3)치료의 목표

①자극반응도
- 일반적으로 자극반응도가 있는 말소리를 먼저 치료
②말소리의 사용빈도 및 개인적인 요구
- 고빈도 음소를 정조음하도록 or 개인별로 중요한 말소리
③문백 분석
- 잘못 발음하던 소리가 발음되는 문맥이 있다면, 이 문맥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범위를 넓힌다.
- 열쇠낱말: '사과, 수건'등에서 /ㅅ/를 발음 못하던 아동이 '시계'에서 정조음한 경우
- 문맥에 따른 오류의 일관성: 일관성이 없는 소리부터 치료
④ 발달상의 적절성
- 치료대상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목표를 잡아야 함.

4)치료 목표 접근전략

①수직적 접근

-하나의 목표가 정해진 수행준거까지 도달하면 다음 목표로 이동(즉, 집중훈련)

-하나의 목표에 대한 높은 정 반응률이 목표

-전통적인 접근법은 주로 수직적 접근, 한두 개의 말소리를 목표로 함

-가정: 제한된 목표음의 집중적인 훈련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목표음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한다.

②수평적 접근

-목표에 대한 도달수준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점에서 수직적 접근과 유사

-각 회기마다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해 동시에 치료.(폭넓은 훈련)

-여러 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각 목표 말소리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 관계를 알 수 있음

-넓게 여러 가지를 연습하여 전반적인 음운체계를 수정하고자 함

③주기적 접근

- 시간적 간격을 중시하는 방법

- 일정 회기동안 특정 음운패턴과 관련된 한 개의 음소를 목표로 하고 이후 일정 회기 동안은 다른 목표가 주어짐

- 목표달성 수준과 상관없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다음 주기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

-다수의 조음 오류를 보이는 아동에게 적합함

5)치료의 종료시점

▶종결기준

①대상자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②추가적인 다른 노력 없이 현재 이룬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자기감지(self-monitoring)

-자동화: 자발화 수준에서 표준발음을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반대 연습: 의도적으로 오류 말소리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

-일반화

6) 치료법

※ 치료의 실제

운동 음성학적 치료 접근법	인지 언어학적 치료 접근법
▶ 운동 수준에서의 말소리 산출에 관여. ▶ 대표적 치료 기법 : 전통적 치료기법.	▶ 언어규칙에 따른 말소리 사용에 관여. ▶ 대표적 치료 기법 : 변별자질 접근법.

1. 음성적 치료 접근법 (전통적 접근, 말 운동 접근)

1) 음성적 접근의 개념.

▶ 각 어음에 초점을 둔 조음지도로 구성하며 치료기법의 구조가 위계화되어 있다.

① 특정 말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범위에 조음자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방법
② 오류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치료.
③ 치료 대상
- 목표음소가 치료 대상자의 음성목록에 아예 없는 경우
- 조음운동능력의 제한으로 인한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④ 목표음소를 독립 음이나 음절 또는 낱말에서 집중 훈련 후 구나 문장으로 일반화시킴

2) 전통적 기법 절차

감각 지각 훈련	▶ 자세한 검사와 비교를 통하여 표준음을 판별하고 표준음과 오조음을 변별
확립 훈련	▶ 바르게 산출될 때까지 그 음을 변화시키고 교정 ▶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함
안정화 훈련	▶ 바른 산출을 강화시키고 안정화 시키는 훈련 ▶ 표적음을 쉽게, 빨리, 자발적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
전이 훈련	▶ 새로 습득한 구어기술을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으로 전이 ▶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도 자발적으로 발음될 수 있도록 지도
유지 훈련	▶ 자기 모니터를 통하여 새로 학습된 표적음 발음기능의 파지력을 신장

(1) 음의 감각 및 지각 : 목표 음에 대한 표준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발음의 기초를 습득
① 확인 : 목표 음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속성의 인식
② 변별 : 독립 음 수준에서 목표음의 분리 인식, 음의 음소적 성분 지각 능력 향상

(2) 음의 확립 : 오류음에 대응하는 목표음을 의식적으로 정확히 또박또박 발할 수 있다.
① 일반적 지침
- 청각 자극 모방 : 치료사가 먼저 들려주고 따라하도록 한다.
- 조음점 지시법 : 목표말소리의 조음장소와 조음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
- 말소리 수정법 : 목표음에 근접한 소리부터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목표음에 도달하는 것

② 발음훈련 단계
- 독립음 수준
- 무의미 음절 : 간섭효과를 배제.
- 단어
- 구조화된 맥락(구와 문장)

(3) 음의 안정 : 목표음을 쉽게 빨리 자발적으로 발음할 수 있다.

(4) 음의 전이 : 학습한 모든 목표음을 모든 상황에서 누구와도 자발적으로 발음할 수 있다.

※ 일반화(전이)

▶치료실에서 이루어진 목표행동이 치료가 행해지지 않는 다른 상황조건에서 재현

① 자극일반화 : 시범을 보고 모방하여 발음할 수 있는 것을 그림자극을 보고 대답할 수 있게 됨

② 반응일반화

- 위치일반화 : 낱말 안의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일반화. 어두 → 어중, 어말
- 문맥일반화 : 음성적 환경으로의 일반화. 시 → 사, 소, 서.
- 언어학적 단위 일반화 : 독립된 말소리, 음절, 낱말, 구, 문장 등 복잡성이 증가
- 말소리/변별자질 일반화 : 특정 변별자질을 공유한 말소리(자연 부류)로의 일반화
- 상황일반화 : 치료실 밖의 다른 장소에서 사용

(5) 음의 유지 : 새로 학습한 목표음의 발음 기능의 파지력을 향상시킨다.

① 새로 습득한 행동의 '자동화' 과정

② 자기 모니터 확인

3) 전통적 기법 종류

(1) 감각운동 기법

▶다양한 맥락에서 음절들을 반복 연습하다 보면 음소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는 것

▶감각을 익힌다는 것은 소리에 대하여 청각뿐 아니라 운동감각 및 촉각적 감각 모두를 말한다.

(2) 짝자극 기법(열쇠낱말 기법)

▶핵심단어와 훈련단어를 짝지어, 정조음하는 핵심단어에서 정조음 할 수 없는 훈련단어로의 전이를 전제한 기법

▶ 기본구조 : 단어수준, 문장수준, 회화수준

- 낱말수준(8단계)에서 시작하여 문장(3단계)과 대화수준(3단계)으로 진행시키는 구조화된 치료기법

▶ 체계적이고 자세한 목표수준을 세워야하고 강화절차를 중요하게 여김.

▶ 장점 : 다양하고 광범위한 음운적 편차에 적용 가능하며, 광범위한 연령과 능력수준에 적용할 수 있고, 시작과 종결준거가 제시되며, 특수한 장비를 요구하지 않고,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일관 된다. 치료진전이 빠르다.

▶ 관련 용어

- 핵심단어 : 10번 중 9번 정조음, 어두나 어말 위치에 단 한번 목표음을 내포
- 훈련단어 : 핵심단어와 짝지어 훈련시킬 단어. 3번 중 2번 오조음
- 단위반응 : 핵심단어와 훈련단어 짝
- 훈 련 조 : 10개의 훈련단어와 1개의 핵심단어

(3) 다중음소접근법

▶여러 개의 오류음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를 구조화

▶모든 음소에 대하여 독립음소에서 반복훈련을 한 후, 오류음소들에 대하여 음절, 낱말, 문장수준으로 확대시켜가며 반복하여 훈련하도록 하는 방법

▶개별 치료에 보다 용이하다.

(4) 행동수정 접근법

▶조작적 조건화 절차를 이용한 조음치료 프로그램.

▶철저한 과제 분석을 통해 단계적 절차와 자극-반응-강화 메커니즘에 의해 표 적행동을 유도한다.

3. 음운적 치료 접근법

1) 음운적 접근의 개념

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음소의 유목을 치료목표로 한다. 오류패턴을 치료목표

② 치료방법은 대부분 음운의 대조를 이용

③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맥락을 강조. 의사소통기능을 고려한 의미낱말에서부터 치료 시작

2) 음소대조 치료기법(변별자질 접근법, 음운변동 치료법)

▶아동의 음운체계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음소의 대조를 치료목표로 삼는다.

▶목표음소를 특정 음소로 계속 대치하는 경우에 효과적

(1) 변별자질 접근법

▶변별자질(의미를 구분하는 음소성분)의 습득은 정상적인 구어를 습득하는 필수 조건이며, 변별자질의 습득 실패는 음운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

▶치료의 초점은 개별 음성의 교정에 두지 않고, 여러 음성에 포함된 체계적인 오류 양식을 찾아 그것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데 두고 있다.

▶장점 : 여러 오류에 기인하는 단 하나의 자질을 습득시킴에 의해 다중 오류음을 교정할 수 있다.

▶흔히 최소대립 쌍을 적용

▶치료 단계

- 단어의 검토 : 아동이 치료에 사용할 어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
- 수용 훈련 : 변별검사 및 훈련단계. 대립자질을 변별할 수 있는지 확인.
- 발음 훈련 : 최소 대립쌍을 변별하여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자질을 산출하도록 훈련
- 전이 훈련 : 목표낱말을 산출할 수 있게 되면, 낱말보다 복잡한 언어학적 맥락에서 연습할 기회

(2) 음운변동 치료법

▶음운변동(음운학적 환경에 따라서 음소의 실현 형태가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둔 접근법.

▶특정 음운변동의 감소가 목표. 한 개의 음운학적 변화과정의 제거로 여러 개의 오류음을 치료한다고 가정

▶ 훈련단위는 음절과 단어로 시작한다.

▶일반화를 전제로 한 치료접근법을 사용하고, 전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음운변동을 선택한다.

▶오류패턴을 분석하여 많이 나타나는 음운변동을 제거시킴으로써 성인의 말소리에 접근하도록 함.

3) 주기법

▶음운변동을 이용한 접근법으로 오류변동들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반복하여 훈련

-일반 학습이론에서의 분습법과 같으며, 이 점에서는 다중 음소법과 동일하나, 주기법에서는 한 치료 시간에 하나의 음운 또는 음운 패턴을 치료한다.

▶개별음소들의 정확도보다는 전반적인 말의 명료도 개선이 목적

- 심한 조음음운장애 혹은 명료도가 매우 낮은 아동에게 효과적

▶치료 단계

-발생률에 따라서 음운변동의 순위를 정한 후 발생률이 높은 음운변동부터 주기적으로 치료 계획

-한 주기 당 3~4개의 음운변동 목표로 계획. 각 음운변동 당 1~3개의 목표음소를 계획

-각 회기는 복습, 청각적인 자극, 목표단어 산출 연습하기, 경험 놀이를 이용한 조음 연습, 자극 모방력 검사, 청각적 자극, 가정 프로그램 순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4) 상위음운인식 치료법

▶상위음운능력, 즉 음운인식능력을 향상시켜 조음음운능력을 개선시켜 주는 치료방법

▶최소대립쌍을 이용한 치료법이 음운체계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경우 대안적으로 이용한 접근법

▶아동들의 규칙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면 아동의 말 산출이 변화할 것이라 가정

▶중등도에서 심도의 음운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학령전기의 음운장애 아동에게 효과적

▶치료 단계

- 음운인식을 발달시키는 단계

- 음운론과 의사소통의 인식을 발달시키는 단계

4. 의사소통 중심 치료 접근법

▶ 인간 중심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치료 기법

▶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치료하여 전이가 잘 됨

▶ 아동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즐겁고 재미나는 학습 원리를 추구

▶ 훈련이 아니고 학습이므로 학습자의 자발성, 즐거운 학습이 강조

▶ 연습은 전체-부분-전체로 이루어짐

▶ 자극, 반응, 강화 모두 실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짐

※ 하이브리드 접근법

▶ 조음음운장애 치료에서 기존의 치료기법을 연합하여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용어

▶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 음운장애가 있더라도 정상적 언어발달과정에 의한 음운습득 강조

팀스터디 22-05

호흡 물리요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3:00~14:00
발표자	김진봉
장 소	1층 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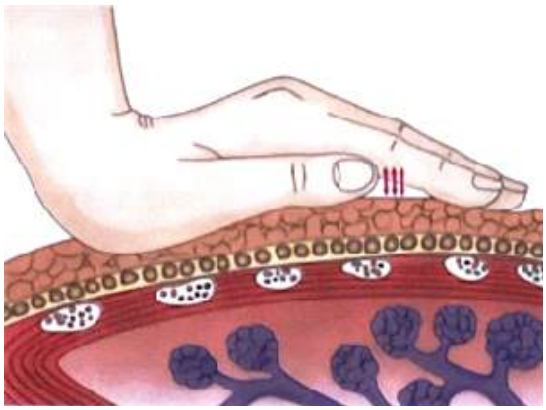
호흡 물리요법

1. 흉부 물리요법 목적

- 폐 분비물을 묽게 하여 분비물을 더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종류

1) 타진법(Percussion)



- 끈끈한 분비물을 묽게 배출해내기 위해 손을 컵 모양으로 하여 강하게 두드리는 것 (충격이 분비물로 전달->점액이 떨어짐)
-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을 사용하여 폐엽 전체를 리듬감 있게 타진(늑골 아래에서 어깨, 흉부 끝까지)한다.
- 두드리는 동안 통증이 없어야 하고, 소리가 빈 듯한 소리가 나야 한다.
- 맨살에 실시하지 않고 가운이나 내복을 입은 상태로 실시한다.
- 한 부위에 여러 번 시행하며 30~60초 동안 실시한다. 점도가 높은 분비물인 경우 3~5분간 시행 한다.

-금기: 출혈성 장애, 골다공증, 늑골골절, 늑골연/척추/흉골/유방/신장 부위(조직 손상 위험)

2) 진동법(vibration)

- 타진 후에 시행하며 흉 벽에 손을 펴서 강한 떨림을 제공한다.
- 손가락을 나란히 펴서 흉 벽에 평평하게 놓고 깊게 흡기 후 호기하는 동안 흉 벽을 진동, 흡기 동안은 진동을 멈춘다.
- 한 곳에 여러 번(3번 정도->기침 유도), 수 분 동안 실시한다.
- 금기: 영아, 어린이, 늑골연/척추/흉골/유방/신장 금기

3)호흡운동과 기침

①심호흡

- 늑골 기저 면이 충분히 움직이도록 깊게 호흡

②횡경막 호흡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적용, 1분 시행 후 2분 휴식
- 늑간근/호흡 부속근 이완->폐질환, 수술 후
- 호흡 횟수는 감소시키고 일호흡 용적은 증가시키고, 기능적 잔류 용적은 줄임
- 방법: 한 손은 위(stomach)부위에, 다른 한 손은 양쪽 가슴 사이에 놓고 가능한 복부를 멀리 밀어내고 오므린 입술을 통해 복부 근육이 퇴축할 동안 양손이 놓인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서 호흡을 내뱉도록 함

③입술 오므리기 호흡(pursed-lip breathing)

- 호기를 연장하기 위한 근육훈련, 폐로부터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 호기 동안 기도 압을 증가시키고 기도 저항을 감소시킴, 셋까지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므린 입술로 천천히 숨을 내쉼

④복식 호흡

- 복부에 손바닥을 대고 복부 움직임에 집중하여 하는 호흡

⑤기침

- 목적: 분비물, 다른 조직 파편 제거하여 기도 청결 유지
- 효과적인 기침 방법
- 앉아서 머리와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다.
- 베개를 복부에 대고 무릎을 구부리고 어깨를 편안하게 한다.
- 천천히 코로 흡기, 입술 오므리기 호흡으로 호기하면서 머리를 앞쪽으로 숙인다.
- 반복적인 호흡 유도로 객 담을 이동시킨다.
- 최대한 흡기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호기하면서 3~4회 강하게 복부를 베개로 지지하면서 기침한다.

4)체위배액(postural drainage)

①정의: 중력에 의해 여러 폐 분절에 있는 분비물 배액을 배출하기 위한 체위를 취하는 것, 가슴 X선이나 청진을 통해 가래가 있는 부위를 확인 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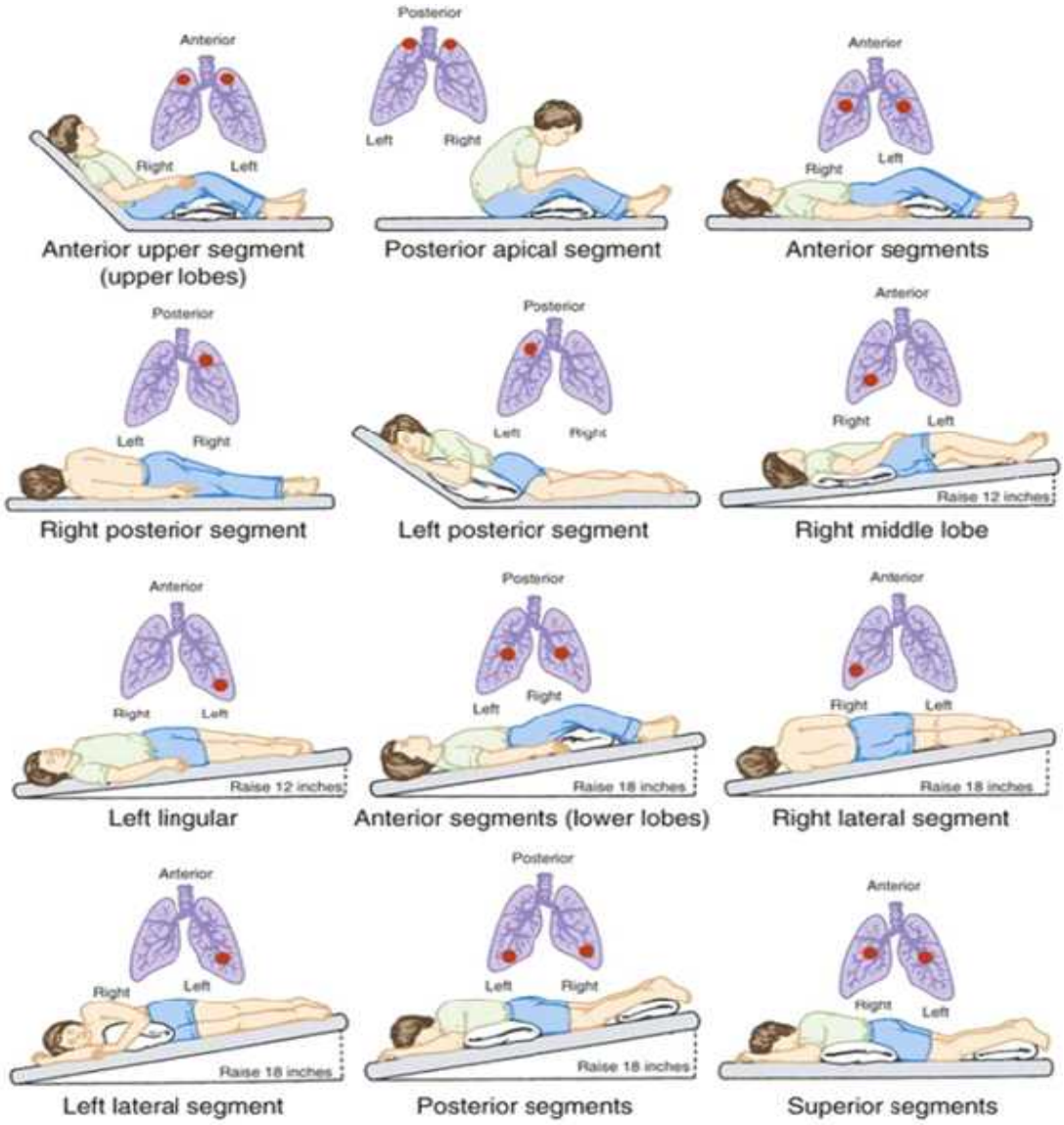
②방법

- 타진: 하루에 2~3회, 10~20분 정도 실시, 호기 시 시행
- 진동: 깊게 흡기 후 호기 동안 흉벽을 분당 100회 정도 시행

③금기: 무의식, 뇌졸중(뇌압 상승), 식후 1~2시간 내

④체위배액 순서

- 분비물 위치에 따른 적절한 체위->타진->진동->기침->흡인
- 체위 배액 시 빈맥, 심계항진, 호흡곤란, 어지러움, 객혈, 저혈압 등이 생기면 즉시 중단



⑤물리적 객담 배출법

- 좌우상엽 뒷 구역

1. 의자에 반대 방향으로 앉히고 몸을 30도 가량 숙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2. 손가락을 모두 붙이고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듭니다. 고무 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병변이 있는 부위를 리듬감 있게 2~5분간 두드립니다.
4. 너무 심하게 해서 환자를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멍이 들 정도로 두드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 가슴타법 후에는 기침을 격려하여 객담을 배출시킵니다.

-좌우상엽 앞 구역

1. 천장을 보고 누워 무릎 밑으로 담요나 베개 등을 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2. 같은 방법으로 병변이 있는 부위를 리듬감 있게 2~5분간 두드립니다.
3. 기침을 격려하여 객담을 배출시킵니다.

-좌우하엽 뒷바닥 구역

1. 머리 부분을 낮게 하여 침대에 엎드립니다.
2 .같은 방법으로 병변이 있는 부위를 리듬감 있게 2~5분간 두드립니다.
3. 기침을 격려하여 객담을 배출시킵니다.

-우중엽

1. 머리 부분을 낮게 하여 침대에 몸의 왼쪽이 아래로 가도록 모로 눕게 합니다.
2. 고무 컵 사용 시, 고무 컵을 잡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병변이 있는 부위를 리듬감 있게 2~5분간 두드립니다.
3. 기침을 격려하여 객담을 배출시킵니다.

3. 결론

폐의 기능 저하, 기관지 문제, 횡경근막의 근력약화 등으로 인해 기관지의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오염,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럴 때 호흡 물리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손을 컵 모양으로 하여 강하게 두드리는 타진법, 타진 후에 시행하며 흉 벽에 손을 펴서 강한 떨림을 제공하는 진동 법, 심호흡, 횡경막 호흡, 복식호흡, 체위배액 등의 방법으로 기관지의 분비물이 쉽게 떨어져 나오도록 도움을 주어 기침을 유도하여 객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객담이 많을 경우 각 부위별 체위를 취하게 하여 체위배액(postural drainage)을 시행하고 객담 배출이 잘 되도록 하여 폐내 감염의 진행을 방지하고 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위배액 자세를 보면 대체로 머리가 바닥으로 낮게 유지되는데 대상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배액 시 빈맥, 심계항진, 호흡곤란, 어지러움, 객혈, 저혈압 등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호흡이 어려워지면 환자나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호흡이나 폐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QcWCvdYMRYs
-기본간호학

팀스터디 22-06

‘사람중심조직’을 위한 동료간 사람중심설명(PCD)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22.04.29. / 13:30~15:30
발표자	박성묵
장 소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조직’을 위한 동료 간 사람중심설명(PCD)

1. 사람중심생각에 대한 소개

가. 사람중심생각(Person Centered Thinking)

- 실행을 전제로 하는, 존경이 가득 담긴 경청을 강조하고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만족감을 찾는다.
-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기여(현재 그리고 잠재적인)를 인정받고 가치를 평가 받는다.
- 지역사회에 있는 자연적 관계와 유급의 관계 모두가 연결된 관계망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나. 사람중심생각 기술(Skills)

- 다음과 같은 가치를 반영하고 강조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 학습 사이클을 지속시킨다.
  · 고치려하기보다는 지원(support)하게 한다.
  · 사람을 위해 일한다.
  · 조직 내의 모든 수준에서 일한다.
  · 학습, 파트너십, 책무성의 문화를 구축한다.
  ·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한다.

- **사람중심생각의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concept)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다. 핵심 개념과 기술 : 그 사람에게(to) 그리고 위해(for) 중요한 것 사이의 균형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Important TO)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Important FOR)
-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 - 할일 - 갈 곳 - 일상과 의례 - 삶의 속도와 리듬 - 지위와 통제 - 갖고 싶은 것	- 건강 문제 : - 질병의 예방 - 질병 및 의료적 상태의 치료 - 건강(wellness)의 증진 (식사, 운동) - 안전문제 - 환경 - 웰빙(물리적, 정서적) - 두려움으로 부터의 자유 - 타인이 그 사람을 지원하는 데 필히 알아야 할 것들

라. Important To와 For 그리고 균형

그 사람에게(to)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말하거나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기초한다. 말과 행동이 충돌할 때 우리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 그 사람에게(to) 중요한 것과 위해(for)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위해(for) 중요한 것과 에게(to) 중요한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에게(to) 중요한 것의 일부가 아닌 한, 누구도 위해(for) 중요한 것을 기꺼이 할 사람은 없다.
- 균형은 역동적인 것(변화하는 것) 이며 항상 거래(tradeoffs)를 포함한다.
- 여러 “important to”들 사이에서 그리고 “important to”와“for” 사이에서

2. 긍정적인 당사자 소개 및 지원설명서(One Page Description) 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옮기게 될 때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선생님, 치료사,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한 장의 설명서로, 우리 아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 장의 설명서에 작성하여 아이가 어디서든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류임.

가. 긍정적인 당사자소개 및 지원 설명서 작성과정

1) 1단계 : OPD 작성에 대한 동의 얻기
2) 2단계 : OPD에 대한 설명, 작성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3) 3단계 : 부모님이 기록한 내용과 당사자를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치료사, 학교 선생님 등)의 정보를 모아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OPD 작성

※ 질문지 내용

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은요?
마)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 우리 아이가 잘 지내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4) 4단계 : 최종 정리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인쇄하여 보여주고,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5) 5단계 : 추후 용도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파일 전송

나. OPD(One Page Discriptions) 필요성

1) 당사자에 대한 강점 및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2) 당사자에게 애정을 지닌 사람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함.

3) OPD는 모든 연령에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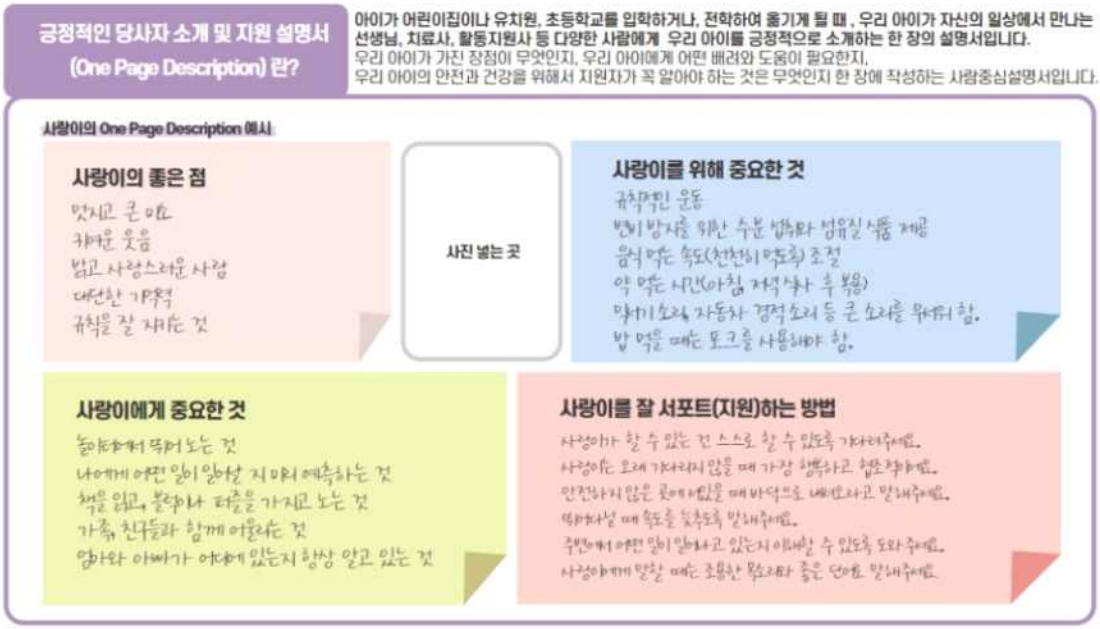
가) 유아기 :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파악 할 수 있음.

나) 아동기 : 다양한 지원자(학교선생님, 치료사, 활동지원사)를 만날때 아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다) 청소년기 : 성인기전환 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음.

다. OPD(One Page Discriptions) 활용예시

구분	내용
00의 좋은 점	- 멋지고 큰 미소 - 귀여운 웃음 -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 - 대단한 기억력 - 규칙을 잘 지키는 것
00를 위해 중요한 것 (for)	- 규칙적인 운동 - 변비 방지를 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 식품 제공 - 음식 먹는 속도(천천히 먹도록) 조절 - 약 먹는 시간(아침, 저녁 식사 후 복용) - 믹서기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등 큰 소리를 무서워 함 - 밥 먹을 때는 포크를 사용해야 함
00에게 중요한 것 (to)	-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것 -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미리 예측하는 것 - 책을 읽고, 블럭이나 퍼즐을 가지고 노는 것 -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 엄마와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는 것
00를 잘 서포트 (지원)하는 방법	- 00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 00이는 오래 기다리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고 협조적이에요. - 안전하지 않은 곳에 서 있을 때 바닥으로 내려오라고 말해주세요. - 뛰어다닐 때 속도를 늦추도록 말해주세요. -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사랑이에게 말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와 좋은 단어로 말해주세요.



라. 사람중심실천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의미한다.

1. 경청에 대한 약속
   · 이야기된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경청하는 것
   ·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것
2. 우리가 들은 대로 행동하겠다는 약속
   · 우리가 바로 실행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찾아내는 것
   · 우리가 경청한 바를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3. 정직하겠다는 약속
   ·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 바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
   · 사람들이 요청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 때
   · 이용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건강 또는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상충되고,
   ·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과 이용자를 위해 중요한 것 사이에 좋은 균형을 찾을 수 없을 때

3. 팀원별 OPD작성 자료

박성묵의 한 페이지 설명

성묵이의 좋은점(존경하는 점)

변화하려고 노력함
솔직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들어 줌
도전하는 모습
적극적이고 진취적임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줌
타인에 관심이 많고 적정선을 지킴
상호작용능력이 좋음
발상의 전환과 브레인스토밍을 잘함

성묵이를 잘 지원하는 방법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망설이지 말고 이야기하기
직급과 상관없이 피드백 나누기
간식 나눠먹기
업무에 책임감 가지기
잊은 내용 자주 알려주기
자신의 이야기 하기
불만은 대안과 함께 이야기 해주기

성묵이에게 중요한 것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내일과 다른 사람의 일 구분짓지 않기
직원들의 생각에 귀기울이는 것
'아니오 '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개인의 능력발휘를 위한 자유
"의무 " 를 다하고 "권리 " 를 행사하는 것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성묵이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의 특징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
술, 음식,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
관료적인 사람
내 일 미루는 사람
나보다 말 많고 목소리 큰 사람
내 일만 하는 사람

고형식의 한 페이지 설명

형식이의 좋은점(존경하는 점)

- 친절하고 깊은 배려심
-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강점
-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들어 줌(경청)
- 차분하게 이야기함
- 조직에 필요한 조율능력
- 간식을 자주 제공해줌.
-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탁월
- 술을 잘 먹음
- 화를 내지 않음

형식이를 잘 지원하는 방법

-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 긍정적인 피드백
- 파이팅하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 대화가 많아 자유롭게 의견제시가 가능할 수 있는 업무환경

형식이에게 중요한 것

- 이해가 바탕이 된 업무지시
- 타인과의 신뢰관계
- 흥미가 있는 환경
- 일보다 나의 생각, 감정 상황이 1순위일 수 있는 업무환경

형식이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의 특징
- 이타적인 사람
-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
- 남의 생각과 기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
- 공통관심사가 같은 사람
-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
- 이기적인 사람
- 바라는 것은 많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 하는 사람
- 선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
- 예의 없는 사람

박은영의 한 페이지 설명

은영이의 좋은 점(존경하는 점)

- 적응력이 좋다
-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 배려심이 있다
-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
- 차분하다
- 긍정적인 태도
- 결단력이 있다
- 신속한 위기대응

은영이에게 중요한 것

- 빠른 칼퇴
- 가족과의 시간
- 즐거움
- 안정적인 생활

은영이를 잘 지원하는 방법

- 근무시간 외에 업무연락은 No,No (긴급사항 제외)
- 전화보다는 문자연락 선호
- 갑작스러운 계획 변동 시, 생각할 시간과 적응할 시간이 필요
- 창의성이 많이 필요한 업무는 조금 힘들어하기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함

은영이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의 특징

- 상대방 의견 존중 할 줄 아는 사람
- 웬만하면 다 맞는 것 같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

- 예의가 없는 사람
-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사람

권기현의 한 페이지 설명

기현이의 좋은점(존경하는 점)

- 긍정적인 마인드
- 경청하는 자세
- 자립심이 강함
- 외부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음
- 미혼

기현이에게 중요한 것

- 워라밸
- 개인 휴식시간 및 재충전의 시간
-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시간과 여윳돈

기현이를 잘 지원하는 방법

- 현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
- 감정적인 피드백보다 이성적·논리적 피드백
- 술먹으면 택시 태우기
- 가끔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

기현이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의 특징

- 친절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

- 조용한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 지나치게 활동적인 사람

민경화의 한 페이지 설명

겸화의 좋은점(존경하는 점)

-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
- 꼼꼼한 성격과 미루지 않는 일처리
- 많은 업무량에도 스트레스 조절을 잘함
- 세심하고 눈썰미가 좋음
- 사적 영역을 잘 구분함
- 업무지시에 대한 이해가 빠름

겸화에게 중요한 것

-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 집에서 강아지랑 충분한 휴식시간 보내기
- 워라밸
- 안정적인 상황(환경)
- 나의 기준에 맞는 의견 표현의 기회

겸화를 잘 지원하는 방법

- 어려워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주기
-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기
-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리에 등 떠밀지 않기

겸화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의 특징

-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
- 공감대가 있는 사람
-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 동물 좋아하는 사람 / 벌레 잘 잡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

- 이기적인 사람
-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 본인에게만 관대한 사람
- 권위적인 사람

김진배의 한 페이지 설명

진배의 좋은점(존경하는 점)

- 업무에 대한 자신감
- 성실하고 근면함
- 전문적인 지식
- 가정에 대한 책임감
- 술먹으면 재미있음
- 겉보기와 다르게 착함

진배에게 중요한 것

- 가족과 나 자신의 건강
- 배드민턴(인생 운동)
- 직업의 선택(정규직 원츄)
- 돈(이게 안중요하면 가식이지)
- 인간관계의 지속성

진배를 잘 지원하는 방법

- 겉으로 드러나는 도움보다는 티나지 않는 도움 (약간은 나도 괜찮아요^^)
- 먹는거 주면 좋아라 해요

진배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의 특징

- 술 좋아하는데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
-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

- 의미없이 나대는 사람
- 자랑하는거 좋아하는 사람

○ 소감 및 제언

1. 소감

- 김수빈 : 팀원들의 좋은 점과 존경하는 점을 찾으면서 좋은 동료들과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동료들의 몰랐던 점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권기현 : 처음 스스로의 강점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막막하고 어렵게 다가왔었으나, 팀스터디를 하면서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 평소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충분히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음.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우리 이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opd의 적용과 그들을 강점을 위주로 바라보고 지원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층 성숙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박은영 : 나의 opd를 작성하면서 나에 대해 생각하고 동료가 나의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음. 나에게 중요한 것과 강점을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용인의 많은 강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고형식 : 팀원 간의 한 페이지 설명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각자의 장점과 서로가 알지 못했던 주의사항 특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OPD를 서비스대상인 이용인에게 적용하여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과 각 사업을 진행할 때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라포형성 전 도전적행동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용인 별 OPD를 제공해준다면, 해당 이용인이 여러 프로그램(본복지관 이외)을 이용할 때에 도움과 사회적 참여에 있어 사전 이용인의 특징을 설명(여러 담당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 김진배 : OPD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본 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음. 시간이 된다면 가족들과 OPD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

- 민경화 : opd시연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팀원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대해 들어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또한 평소에 생각했던 팀원들의 강점을 직접 전달해 보고 각자에게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팀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음.
이용인에게 opd를 적용하기 전에 팀원들과 시연하면서 opd가 어떤 부분에서 당사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박성묵 : 실제로 이용인에게 본 사항을 적용하기 전 접근방법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당사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음.
또한 팀원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확인하며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보다 많은 노력을 위한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음. 팀원 간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를 토대로 팀원들을 지원한다면 사업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제언

1) 사람중심실천방법 적용

2022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필요한 이용인을 대상으로 OPD 작성을 시연하고 회의를 통한 피드백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자 함.

2) 사람중심조직으로 변화

팀원 개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방법을 알고 팀원이 업무에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팀스터디 22-07

영화‘CODA’관람을 통한 비장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22.06.17. / 16:00~18:00
발표자	박성묵
장 소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영화‘CODA’관람을 통한 비장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논의

1. 영화‘CODA’소개

가. 개요

2021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선댄스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 작품으로 작품명인 Coda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준말을 뜻함. 실제 코다인 베로니크 풀랭의 자서전 <수화, 소리, 사랑해!>를 원작으로 한 2014년작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의 영어판 리메이크이다.

나. 포스터

다. 시놉시스

음악의 마법에 빠질시간! 가장 조용한 세상에서 시작된 여름의 노래!
24/7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는 짝사랑하는 '마일스'를 따라간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다.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와의 듀엣 콘서트와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지만 자신 없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루비는 망설이게 된다.

라. 기타

주인공 루비는 부모와 오빠가 모두 농인, 즉 CODA(Children Of Deaf Adults, 농인 부모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SODA(Sibling Of Deaf Adult, 농인의 비장애형제)로, 그리하여 정확한 정체성을 따지면 사실 코다 중에서도 OHCODA(Only Hearing Child of Deaf Adult, 농인 부모의 유일하게 소리가 들리는 자녀. 농인 가족 중 유일한 청인)라고 불리는 분류의 사람이다. 동시에 작중 시점에서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KODA(Kids Of Deaf Adults, 농인 부모의 아이. 코다 아동)에도 해당된다. 참고로 원작자 베로니크 폴랭처럼 외동자녀로서 가족 중 유일한 청인인 코다의 경우는 OCODA(Only Child of Deaf Adult, 농인 부모의 하나뿐인 자녀)라고 하여, 용어가 또 따로 있다.

마. 수상

- 제37회 선댄스 영화제 미국 극영화 부문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 감독상, 앙상블상
-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 앙상블 캐스트, 남우조연상(트로이 코처)
- 제33회 미국제작자조합상(PGA) 작품상
- 제74회 미국작가조합상(WGA) 영화 각색상
- 제31회 고담어워드 조연상(트로이 코처), 신인연기상(에밀리아 존스) 수상
- 제37회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남우조연상(트로이 코처) 수상
- 제69회 멜버른 국제영화제 북아메리카 영화 부문 초청작
- 제75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 각색, 남우조연상(트로이 코처) 수상.
-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 각색, 남우조연상(트로이 코처) 3관왕 수상

2. 영화'CODA'관련 기사

○ 소감 및 제언

1. 소감

- ‘코다’에서 주목할 부분은 장애인의 인생을 비장애인에게 맡기지 않고 실제 장애인 배우를 섭외하여 영화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부부 역할을 맡은 말리 매트린과 트로이코처, 영화 주인공 루비의 오빠 역할을 맡은 다니엘 듀렌트는 실제 농인 배우들이다.

- 장애를 가진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영화에 참여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 관객들에게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세상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영화 속의 가족처럼 어업을 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것 역시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뜻 깊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족 간의 사랑 사이에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코다’처럼 장애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응원한다.

2. 제언

1)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지원

- 영화 상에서는 주인공 루비 외 모든 인원이 청각장애인이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그려지지 않는다. 영화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수어통역서비스 등을 활용한다면 장애의 한계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모든 의사소통의 부담이 자녀에게 쏠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 또한 루비의 어머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신의 특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점이 될 것이라 여겨 지역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에게 기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자조모임 또는 서비스기관을 찾아보고 관계성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가 사료된다.

2) 비장애형제에 대한 지원

- 자신의 가족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 다른 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위축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주인공을 보고 비장애형제에 대한 심리적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가족지원사업을 진행할 때도 비장애형제의 어려움을 듣고, 학교에서 자신의 형제자매로 인해 부모에게 전학을 요구하는 상황을 보며 이에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팀의 업무 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꾸준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은 생각보다 많고, 의도하지 않지만 편견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하발언 또는 행동들이 이들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팀스터디 22-08

지역자원의 정보수집 및 자원관리의 전문성 함양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6:00~17:00
발표자	유명현
장 소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지역자원별 목록화

1. 구글시트를 활용하여 지역자원별 목록화

가. 구글시트 생성

나. 지역자원의 후원현황을 가져오기(importxml 또는 importhtml 사용)

- importxml의 활용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 importhtml의 활용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다. 가져오기 항목

- 제목, 업데이트 날짜, 링크(링크를 통해 추후 pdf로 변환되었을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관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

<그림1. 지역자원별 목록화>

푸르메재단 후원리스트

2022. 9. 2	
홈페이지	https://purme.org/
배분알림페이지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notice

연번	제목	작성일	링크
360	2022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7.11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8
359	2022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2022.06.07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6
358	2022 카카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6.07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5
357	2022 SPC 장애어린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2022.06.07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4
356	2022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안내	2022.04.04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94
355	2022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4.04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93
354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4.01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91
353	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3.30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89
352	2022 SPC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2.25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80
351	2022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2.04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73

2. 목록화된 자원을 취합하여 리스트화

가. 1번을 통해 작성된 목록을 시트 하나에 취합하여 이를 리스트화 하기

- 구글 앱스스크립트를 활용하며 목록화된 자원을 자동으로 파일 하나에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

<그림2. 후원리스트 취합>

푸르메재단 후원리스트			
2022. 9. 2			
홈페이지	https://purme.org/		
배분알림페이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notice		
연번	제목	작성일	링크
360	2022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7.11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8
359	2022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2022.06.07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6
358	2022 카카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6.07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5
357	2022 SPC 장애어린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2022.06.07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004
356	2022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안내	2022.04.04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94
355	2022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4.04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93
354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중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4.01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91
353	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3.30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89
352	2022 SPC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2.25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80
351	2022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2.04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6973
밀알복지재단 후원리스트			
2022. 9. 2			
홈페이지	https://www.miral.org/main/main.asp		
배분알림페이	https://www.miral.org/news/notice_list.asp		
연번	제목	작성일	링크
공지	일반故 심현희 님 기금 2022년 상반기 집행 내역 안내	2022.08.23	https://www.miral.org/news/notice_view.asp?bbsIdx=56593&page=1&searchType=&searchKey=&bbsCode=notice
공지	일반[모집]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안내(상시)	2022.06.03	https://www.miral.org/news/notice_view.asp?bbsIdx=54425&page=1&searchType=&searchKey=&bbsCode=notice
			https://www.miral.org/news/notic

<그림3. 후원리스트 취합 명령어>

```
function list(){
  const spreadsheet = SpreadsheetApp.openById("_______시트ID_________");
  const sheet2 = spreadsheet.getSheetByName("Total");
  sheet2.getRange(1, 1, sheet2.getMaxRows(), sheet2.getMaxColumns()).clearContent();
  const sheet1 = spreadsheet.getSheetByName("후원목록");
  const livalue = sheet1.getRange(2,2,sheet1.getLastRow()-1,1).getValues();
  // console.log(livalue);
  for(i=0;i<livalue.length;i++){
    support(livalue[i]);
  }

  mysupport();
}

function support(name){
  const spreadsheet = SpreadsheetApp.openById("_______시트ID_________");
  const sheet1 = spreadsheet.getSheetByName(name);
  const sheet2 = spreadsheet.getSheetByName("Total");

  const data1 = sheet1.getRange(1, 2, 4, 4).getValues();
  const tolastrow1 = sheet2.getLastRow();
  sheet2.getRange(tolastrow1+1,1,4,4).setValues(data1);

  sheet1.getRange('C7').activate();
  SpreadsheetApp.flush(); //새로고침
  const coL = sheet1.getSelection().getNextDataRange(SpreadsheetApp.Direction.NEXT).activate().getLastColumn();
  const roW = sheet1.getSelection().getNextDataRange(SpreadsheetApp.Direction.DOWN).activate().getLastRow();
  const data2 = sheet1.getRange(7,2,roW-6,coL-1).getValues();
  const tolastrow2 = sheet2.getLastRow();
  sheet2.getRange(tolastrow2+1,1,roW-6,coL-1).setValues(data2);
}
```

3. 자원리스트를 pdf로 변환 후 이메일 전송

가. 자원리스트 시트를 pdf로 변환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나. 저장된 pdf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그림4. pdf로 변환 후 이메일 전송하는 명령어>

```
function mysupport(){
  const sheetID = "_______시트ID_________";
  const pdfFolder = DriveApp.getFolderById("_______드라이브폴더ID_________");
  const spreadsheet = SpreadsheetApp.openById("_______시트ID_________");
  const msheet = spreadsheet.getSheetByName("Total");
  const derow = msheet.getLastRow();
  const torow =  msheet.getMaxRows();
  if(derow != torow){
    msheet.deleteRows(derow+1, torow-derow);
  }

  msheet.getRange(1, 1, msheet.getMaxRows(), msheet.getMaxColumns()).setBorder(true, true, true, true, true, true, '#000000', SpreadsheetApp.BorderStyle.SOLID);

  const day = Utilities.formatDate(new Date(), "GMT+9", "yyyy/MM/dd");
  const name = "후원공지_"+day;
  SpreadsheetApp.flush(); //새로고침

  var url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sheetID+"/export"+
                                                    "?format=pdf&"+
                                                    "size=a4&"+//사이즈
                                                    "fzr=true&"+
                                                    "gid=1225411532&"+//gid 넘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ortrait=true&"+//보여지는 부분 사이즈별로 나누는 지
                                                    "fitw=true&"+
                                                    "gridlines=false&"+
                                                    "printtitle=false&"+//프린트타이틀
                                                    "sheetnames=false&"+//시트명인쇄할것인지
                                                    "pagenum=false&"+//페이지번호
                                                    "attachment=true";
  var params = {"method":"GET","headers":{"Authorization":"Bearer "+ ScriptApp.getOAuthToken()}};
  var namepdf = name + ".pdf";
  var response = UrlFetchApp.fetch(url, params).getBlob().setName(namepdf);
  var fapdffile = pdfFolder.createFile(response);
  GmailApp.sendEmail("swsp@swsp.or.kr", namepdf+"_자료 송부", day+" 후원자료(첨부파일참조)", {attachments:[fapdffile],name: '사회복지업무자동화'});
  GmailApp.sendEmail("hyunthink@naver.com", namepdf+"_자료 송부", day+" 후원자료(첨부파일참조)", {attachments:[fapdffile],name: '사회복지업무자동화'});
}
```

<그림5. 이메일에서 파일을 받은 모습>

4. 본 시스템의 장점 및 향후계획

가. 번거롭게 후원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시간 내서 사이트에 접근할 필요 없이 최신의 목록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음.

다. 자원리스트를 1일 1회 담당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트리거 설정(매일 아침 8시~9시 사이에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함)

※ 팀스터디 사진

<table>
<tr>
<td> </td>
<td> </td>
</tr>
</table>

교육·연수보고서 22-09

장애인 탈시설화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22년 12월 20일(월)
발표자	김현아
장 소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탈시설화

Ⅰ목적 및 목표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탈시설화에 대해 알아본다.
- 국내의 지역별 시행중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국외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탈시설화에 대한 국내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Ⅱ세부내용

1. 장애인현황과 국내의 탈시설화

- 장애인 인구현황: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시설 거주 장애인의 33%가 지역사호 자립을 희망함.

2. 국내의 탈시설화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탈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맴발표 후2022년 시범사업 시행중
- 대구시 남구와 제주시가 장애인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모델개발추진중임.
- 2019년 대구 남구와 제주시 진행 이후 2021년 지역을 추가하여 진행 중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 발표(2021년)

※ 로드맵 주요과제 : 장애인의 주거선택권보장 / 탄탄한 자립경로구축 / 독립생활위한 사회적 지원확대 /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촉진기관 전환 / 머무는 동안 안정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 / 민간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탈시설화의 유형 : 지자체 주도형 / 민관협력형-분리형 / 민관협력형-통합형

3. 서울시 진행상황

- 2022년 6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안 통과
-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4. 대구시 진행상황

-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구축을 위한 탈시설모델 추진예정
-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5.경기도 진행상황
-2009년 조례 제정
-도시 사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실채 3년 마다 조사예정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2.국외 탈시설 정책
 -캐나자.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Ⅲ 논의 및 질의 응답

1. 탈시설화가 정립이 잘 된 국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탈시설화에 대해 인지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 같음.
2.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탈시설 방법은 무엇인가
 - 탈시설을 위해서는 주거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복지관차원에서 주거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 외에도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복지관 차원에서는 자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통해 탈시설을 도울 수 잇을 듯함. 현재 시민옹호지원 사업에 탈시설화의 방법 중 하나 인 것으로 보임.
3. 인천에 거주하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 현재 인천에서는 민관 협력형으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산하의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가 있음. 그곳에서 주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보제공하면 될 듯함.

Ⅳ 소감

최근 탈시설화가 이슈화 되고 있으며 탈시설화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탈시설화에 대해 알아보고 타 지역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을 확실한 듯 보인다. 24시간돌봄체계가 이루어져야 탈시설화가 의미가 있다는 대부분의 반대파의 의견도 옳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무조건적인 상황이다.
복지관 차원에서도 탈시설화라는 큰 물결속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서적 지원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Ⅴ 사진

팀스터디 22-10

코로나-19와 사회적 돌봄

팀 명	지역연계
일 시	2022.12.20
발표자	임은기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와 사회적 돌봄

1. 여는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돌봄, 교육, 고용, 문화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주된 돌봄이자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용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일부, 또는 전부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지역사회 돌봄의 부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과 의미 있는 하루 활동이 제한되는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재난 속에서 이들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보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코로나 19의 거리두기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2. 현 시기의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

-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정신재활시설 등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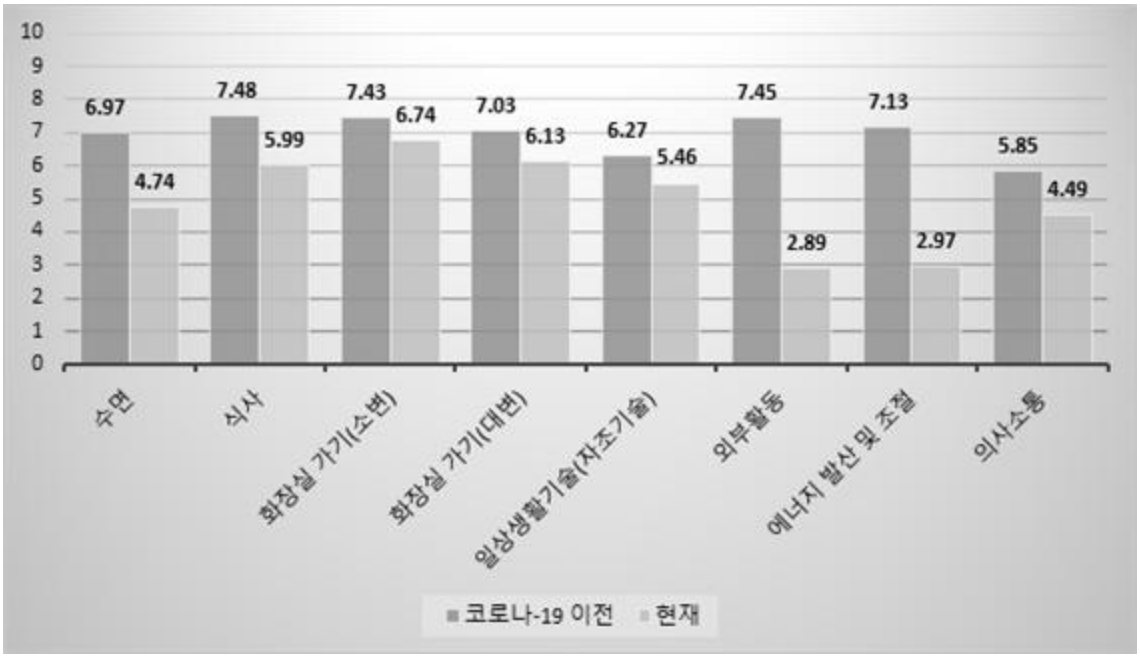
- 현재까지도 부분적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요 돌봄 및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약 1년 째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여가와 문화 활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낮 시간을 보내던 수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하루의 주된 활동을 차지하던 일과가 사라지게 되었고, 규칙적이던 일상생활을 빼앗겨 버렸다.

- 이들의 생활 반경은 가정 내로 축소되었고, 그나마도 주로 자신의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공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많은 이용자와 접촉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만나는 것은 더욱 위험하게 인식되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중단은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 물리적,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송두리째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발달장애인의 삶의 변화

- 지난 2020~2021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은 약 87%에 이르렀고,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외부활동이 제약되어 에너지 발산 및 조절이 어렵고, 수면 식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10 = 매우 좋음, 1 = 매우 심각함)

- 다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의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평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물리적, 정서적으로 통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여전히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이 요원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원이기도 하다. 사회적 돌봄이 부재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이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단절이 비장애인에게는 일시적으로 멈춤일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얻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의 퇴행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에 갈 채비를 하고, 스스로 버스에 올라타 복지관에 도착하고, 복지관에서 선생님과 활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의 훈련과 교육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일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빼앗아 간 하루를 되찾기 위해서는 또 다시 기나긴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발달장애인에게 낯선 사회 환경,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새로운 규칙,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높아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악화는 도전적 행동을 증가시켰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행동들을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소통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공격적이거나 자해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도전 행동의 증가는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건강에 해를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돌봄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코로나-19 시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복지현장의 변화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기관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관이나 서비스 중단을 하는 동안에도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사이버 복지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철저한 방역 하에 단계별로 대면 서비스의 운영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첫째.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종일 홀로 지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꾸러미나 만들기, 음악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여 가정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는 개별적인 돌봄 없이 발달장애인이 혼자서 수행하기에 어렵고, 활동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재료들만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둘째.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요리, 만들기, 운동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다.

⇩

온라인 서비스는 대면 접촉이 어려운 코로나-19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적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으나,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기관에서 스스로 하던 활동들도 가정 내에서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물리적 접근성이나 활용가능성도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익숙한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대면 서비스를 순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위험이 불확실하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5.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

- 그렇다면, 사회적 돌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장애인기관 및 돌봄 제공기관은 코로나-19 시기에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의 수요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와 대면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서비스는 개별적 장애 특성과 서비스 욕구, 정보기기 및 학습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전달체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한다. 돌봄 및 복지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받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역지침, 집에서 혼자 머물 시 주의사항, 서비스 운영 계획,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가족 대상으로 자녀의 도전적 행동이 심각할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한 인력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진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방해하게 되므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민아, 정상미, 황신영, 성지민.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상황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서비스 욕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Disability considerati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No. WHO/2019-nCoV/Disability/2020.1)

6. 제언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 특성에 맞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자료

팀스터디 22-11

성격유형(MBTI) 공유를 통한 업무상 상호보완점 확인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22. 01. 28(금) 17시~18시
발표자	직업지원팀 직원 전체
장 소	직업적응훈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격유형검사(MBTI) 공유를 통한
업무상 상호보완점 확인

1. 직업지원팀 개인별 성격유형 및 유형별 궁합

MBTI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특성을 이해하며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직업지원팀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 선호지표에서 일치하는 유형이 없이 다양한 성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성격유형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결과에서 INFP, INFJ가 나온 경우도 있어 이를 감안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대표적인 표현들

E 외향성 (Extraversion)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자기외부에 주의집중
*외부활동과 적극성
*경험한 다음에 이해
*정열적, 활동적
*말로 표현
*경험한 다음에 이해
*쉽게 알려짐

I 내향성 (Introversion)

깊이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자기내부에 주의집중
*내부활동과 집중력
*조용하고 신중
*글로 표현
*이해한 다음에 경험
*서서히 알려짐

S 감각형 (Sensing)

오감에 의존하며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처리한다.

*지금, 현재에 초점
*실제의 경험
*정확, 철저한 일처리
*사실적 사건묘사
*나무를 보려는 경향
*가꾸고 추수함

N 직관형 (iNtuition)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가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한다.

*미래가능성에 초점
*아이디어
*신속하고 비약적인 일처리
*비유적, 암시적 묘사
*숲을 보려는 경향
*씨 뿌림

T 사고형 (Thinking)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진실, 사실에 주된 관심
*원리와 원칙
*논리적, 분석적
*'맞다, 틀리다'의 판단
*규범, 기준중시
*지적 논평

F 감정형 (Feeling)

사람과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

*사람, 관계에 주된 관심
*의미와 영향
*상황적, 포괄적
*'좋다, 나쁘다'의 판단
*나에게 주는 의미를 중시
*우호적 협조

J 판단형 (Judging)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엄수하고 철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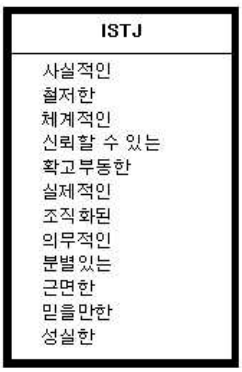
*정리 정돈과 계획
*의지적 추진
*신속한 결론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P 인식형 (Perce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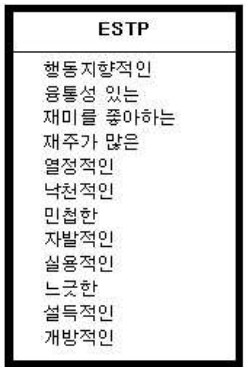
목적과 방향은 변화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로 수용
*유유자적한 과정
*융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성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포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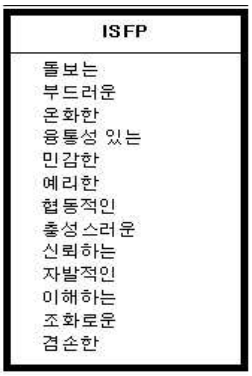
3. 직업지원팀 성격유형의 대표적 표현

<table>
<tr>
<td rowspan="3">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td>
<td>•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
• 논리주의자형은 가장 다수의 가람이 속하는 성격유형으로 인구의 대략 13%를 차지한다. 청렴결백하면서도 실용적인 논리력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성격으로 묘사되기도 한다.</td>
</tr>
<tr>
<td>• 통계학자, 바이어, 기상학자, 법률연구원, 보험심사관, 형사, 감정평가사, 세관조사관</td>
</tr>
<tr>
<td>• 실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며 일처리에 있어서도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집중력이 강한 현실감각을 지녔으며, 조직적이고 침착하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잘 적용하며,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다.
•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배려하며, 전체적이고 타협적 방안을 고려하는 노력이 때로 필요하다. 정확성과 조직력을 발휘하는 분야의 일을 선호한다. 즉 회계, 법률, 생산, 건축, 의료, 사무직, 관리직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위기상황에서도 안정되어 있다.</td>
</tr>
</table>

<table>
<tr>
<td rowspan="3">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td>
<td>•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능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다.
•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가형 사람은 여러 사람이 모인 행사에서 이 자리 저 자리 휙휙 옮겨 다니는 무리 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직설적이면서도 친근한 농담으로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이들은 주변의 이목을 끄는 것을 좋아한다.</td>
</tr>
<tr>
<td>• 경찰관, 소방관, 군 장교, 펀드매니저, 은행원, 기자, 여행가이드, 건축 엔지니어</td>
</tr>
<tr>
<td>• 사실적이고 관대하며, 개방적이고 사람이나 일에 대한 선입관이 별로 없다. 강한 현실감각으로 타협책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적응을 잘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긴 설명을 싫어하고, 운동, 음식, 다양한 활동 등 주로 오관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생활의 모든 것을 즐기는 형이다.
• 순발력이 뛰어나며 많은 사실들을 쉽게 기억하고, 예술적인 멋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연장이나 재료들을 다루는데 능숙하다.
• 논리 분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다.</td>
</tr>
</table>

<table>
<tr>
<td rowspan="3"> 

호기심 많은 예술가</td>
<td>•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친절하고 연기력이 뛰어나며 겸손하다.
• 모험가형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 야외에서 앙증맞은 나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유형의 예술가는 아니지만, 진정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실상 상당수 많은 이들이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도 하다.</td>
</tr>
<tr>
<td>• 보석세공사, 음향디자이너, 만화가, 지질학자, 사육사, 수의사, 법률 비서, 약사</td>
</tr>
<tr>
<td>• 말없이 다정하고, 양털 안감을 넣은 오버코트처럼 속마음이 따듯하고 친절하다. 그러나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 이 따뜻함을 잘 드러나지 않는다.
• 동정적이며 자기 능력에 대해서 모든 성격 유형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적응력과 관용성이 많다.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반대의견이나 충돌을 피하고, 인화를 중시한다.
• 인간과 관계되는 일을 할 때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결정력과 추진력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일상 활동에 있어서 관용적, 개방적, 융통성, 적응력이 있다.</td>
</tr>
</table>

4. 업무상 특성 및 유의사항

1) 주의초점(I/E) : 외부세계와 내면세계 중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

① 외향형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바로 입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향형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어야만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아 주변 사람들에겐 답답하거나 굼뜬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서로 다를 뿐 외향형이 경솔하다거나 내향형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외향형은 내향형을 대할 때 내향형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③ 내향형은 최대한 빠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너무 벅차면 차라리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편이 낫다.

2) 인식기능(S/N) :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

① 감각형은 직관형을 대할 때 구체적인 사항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좋다. 직관형은 세부사항을 모두 기억하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그 자체를 지루해 하기 때문이다.

② 직관형은 감각형을 대할 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세세하고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체적인 인상보다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줘야 감각형을 납득시킬 수 있다.

3) 판단기능(T/F) :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방식

① 사고형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고 개인적인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감정형과 대화할 대 당장에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더라도 먼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 다음 비판하는 게 좋다. 또한 비판의 대상이 분리된 객체일 뿐, 결코 감정형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남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자기가 그걸 싫어해도 구태여 앞에서 신랄하게 얘기하려 하지 않는 감정형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감정형은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과 관련된 관계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사고형과 대화할 때 침착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형과의 논쟁에서 의견을 주장할 때 “그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느낌’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 주관적이고 실체 없는 근거는 사고형들에게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다. 사고형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그는 객체에 대해 비판적인 논거를 제시한 것일 뿐,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 생활양식(J/P) : 외부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

① 판단형은 세세한 계획을 세워 정해진 대로 일하고 싶어 한다. 계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일단 일정을 짜야만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만 자신이 할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어 과업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이다. 인식형과 일을 할 때 충분히 상의한 후 마감 기한을 정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종간보고 같은 단기목표를 합의해 인식형이 맡은 바를 마지막에 몰아서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괜찮다. 인식형이 할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것 같아도 절대 재촉해선 안 된다. 재촉할수록 인식형들은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다.

② 인식형은 일이 주어지면 세부 계획은 뒷전이고 마감일만 적어놓는다.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길 좋아한다. 판단형을 대할 때 가능한 한 자신의 입장을 미리 생각해 두고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신의 일정을 미리 알고 무슨 의견을 낼지 염두에 두어야만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중간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판단형을 안심시키기 좋은 방법이다.

팀스터디 22-12

당사자 중심의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적용사례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22. 12. 05(월) 17:00~18:00
발표자	강명진, 이주미
장 소	직업적응훈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당사자 중심의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적용사례

Ⅰ. 사람중심계획과 의미 있는 삶

전달체계, 우리 기관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지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PCP임. PCP는 인권이자 인권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인권과 지원은 분리될 수 없음.

1. 인권과 지원 : 인권=자유=자기결정=존중

1) 온정주의(Paternalism)

① 애슐리 X의 예

② best intervention ↔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맹점

③ Mill의 자유론

"우리의 생활을 우리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계획하는 자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비록 동료가 우리의 행동을 우둔하고 편협하며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 받지 않는 자유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론은 능력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이나 법적인 미성년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타인의 감독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듯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인종 자체가 아직 유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후진 상태의 사회를 제외해도 무방하다."

→ 제국주의적 사고

2) 세계인권선언

① 세계대전 이후 반성으로 등장함.

②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3) UN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의료모델이 결점에, 정상화와 사회모델이 불필요한 제약과 사회적 장벽에 초점을 두었다며,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최초로 "온전한 사람됨"을 요구함.

1) 사례관리의 변화

① 시스템 주도적 패러다임에서 출발한 사례관리는 소비자운동으로 인해 클라이언트 중심적, 그리고 당사자 주도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② 사례관리라는 휴먼서비스방법론은 시스템 주도적 패러다임 속에서 탄생하였음. 인간의 복잡한 욕구는 다양한 휴먼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 다채로운 서비스 조직 그리고 사회적 급여 체계등의 조정과 통합을 요구함. 그러나 그간 지역사회의 자원은 늘 부족하였으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기대할 만하지 않음. 사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관리가 되는 사례는 오직 자원을 가진 소비자들뿐임.

2) 新사례관리(PCP와 연결됨)

① 개인의 Needs(객관적 욕구, 전문가 사정, 주체성 없음)와 Wants(주관적 욕구, 바람)를 공히 중심에 둔다.

② 전문가의 Assessment로부터 독립되어 이루어진다.

③ 공공영역 밖에서 작동한다.

④ 개인예산을 활용한다.

3) 지원 패러다임

① 어떠한 제한 없이 먼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과 접근하고자 하는 환경이 설정되고, 이후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들의 성공에 필요한 서포트의 정도와 형태가 결정됨.

②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적 확인 → PCP의 핵심 : important for me(needs)가 아닌 important to me(wants)를 확인하고 기꿔하는 과정

2. 변화

1)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서비스의 양 보다는 질적 변화 / 삶의 질의 중요성

2)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변화

① 복지기관의 비상운영 체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관 및 긴급 돌봄
- 감염예방과 방역

②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

- 비대면 기반 서비스의 확대, 비접촉/언택트 서비스의 확대
- 원격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 사용 기술 배우기

③ 소그룹 및 작은 공동체 지향으로 서비스 재편

- 지역사회 기반으로 거주시설 소규모
- 취약한 사람들의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소모임 등 지원
- 지역사회 기반으로 시민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예 : 시민옹호)

④ 산업구조의 변화

3. 사람중심계획(PCP)

1) PCP의 실천은 '나의 변화'를 요구함.

① 변화의 수준들

- 1수준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당신이 일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 변화
- 2수준 :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차이들을 가져다 주는 실천 구조, 규칙을 만드는 **조직**에서의 변화
- 3수준 : **시스템** 수준에서 이루어진 실천, 구조, 규칙의 변화. 이 변화는 많은 조직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줌.

1단계 : 사람중심계획 준비	2단계 : 사람중심계획 회의 진행	3단계 : 사람중심계획 실천
• 당사자의 꿈 찾기를 위한 준비 • PCP회의설명, 꿈 찾아보기, 회의 일정 정하기(장소 시간 등), 초대하기 • 다양한 활동에 참여기회 • 당사자에 대한 정보 탐색 :관찰 및 기록 • 당사자 및 부모님 인터뷰	• PCP회의 • 회의준비(자료, 편안한 환경구성), 참석자 맞이, 회의진행 및 기록 • 초기 – 소개와 역할, 규칙설명 • 중기 – 꿈 이야기, 정보탐색과 공유 • 후기 – 꿈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 꿈을 실현하기 • 서비스 연계 / PCP 실천 • PCP 실천 – 개별화 • PCP 실천 결과 공유 : 주인공의 실천 목표 평가, 주인공과 함께

② 사람중심계획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이슈

- 실천의 난해함
- 실천의 실효성
- 조직의 재설계
- 제도로의 확장

2) PCT(사람중심생각), PCD(사람중심설명), PCS(사람중심체계)

4. 의미 있는 삶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

1)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가?

시스템중심	사람중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가치 있는 삶 창조
주로 각각 분리된 제한 된 수의 프로그램을 옵션으로 제공	무한한 수의 가치 있는 경험을 디자인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옵션을 마련	사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양식, 정원, 배치,종결,할당량 등을 채우는데 집중	삶의 질에 집중
기술 및 의학적 방안을 과하게 강조	꿈, 욕망(바람), 의미 있는 경험 강조
예산제공자, 상급기관, 정책,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함	사람에게 책임 있는 응답을 위해 일함

2) 베스마운트 : 추구할 만한 미래의 이미지는 사람중심계획 과정을 통해서만 진행

전통적인 프로그램 계획의 특징	추구 할 만 한 긍정적 미래의 특징
목표가 변하거나 줄여야 할 특정한 부정적인 당사자의 태도에 집중	미래에 관한 이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긍정적 활용 경험 상황에 대한 예시를 포함함
종종 분리 주의적인 프로그램 카테고리와 사업 제공	구체적인 지역공동체 위치와 환경, 그리고 그 환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는 발상과 계획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사소한 성취만을 고려하는 많은 목적과 목표로 인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함	어떤 발상과 과하고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게 느껴지며 프로그램 재정, 사업, 당사자시간활용, 공동의사결정 과정,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 등 기존실천의 중대한 변화 필요
여러 당사자를 위해 만든 계획과 아이디어들이 서로 비슷하고 별반 차이가 없음	계획은 해당 당사자만의 개별적인 흥미 재능 그리고 자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의 개별적인 특성, 배경 그리고 생활을 반영
사람의 개인적 인간관계나 지역공동체 내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음	아이디어들은 개인적인 관계와 공동체적 삶을 발전 심화 할 만한 독창적인 방법을 강조

3) 사람중심계획 진행 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

① 진실한 권력분배 : 전문가들은 실제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다.

② 자연적 지원망 : 전문가들은 사례관리자, 치료사, 활동지원사 등 유급의 지원에 대해 더욱 강조점을 둔다.

③ 희망의 창조 :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장애인의 기능 사정 그리고 문제해결이 너무 강조되어 왔다.

Ⅱ. 직업재활계획 수립의 의미 및 작성법

1. 재활사례관리의 개념

1)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요구가 있는 이용자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 방법(한국사례관리학회, 2015)

2) 일반적으로 서비스 관리 혹은 각각의 전문적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 일련의 문제해결과정으로써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과정을 구체화시킨 모델(강위영, 나운환 외, 2009)

2. 직업재활계획 수립 개념

1) 목적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이 적격하다고 결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직업목표 달성

2)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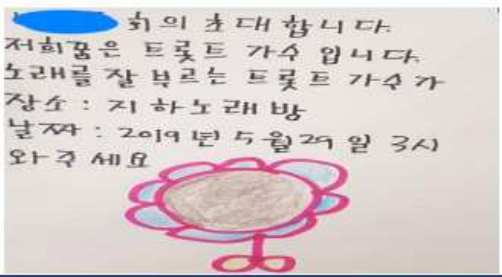
①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장단기목표 등을 포함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설정

②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③ 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의 아래 직업재활서비스를 계획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기관의 책무성을 높임

3. 당사자 중심의 직업재활계획 수립 사례

1) 사람중심계획 준비단계 : 꿈 찾기 인터뷰 등 정보수집, 회의 준비



- **당사자에게 사람중심계획(PCP) 설명**
- **당사자 꿈 찾기 인터뷰** (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등)
- **정보수집** (자기관리 및 재정, 안전 및 건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직업 및 학습, 여가생활)
- **부모님 인터뷰**(가정방문 등)
-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 회의 참석자 결정
- **회의일정에 따른 초대장 제작 및 발송**

2) 사람중심계획 회의

PCP회의 참석자 및 분위기

당사자와 함께 회의 준비
- 회의장소 정리 정돈, 책상 및 의자 배치 등

당사자가 직접 회의 참석자 응대

회의 시작 시 : 당사자가 회의 참석자 소개 및 '우리의 약속' 공지

*** 당사자의 이야기에 경청**

Important to (나에게 중요한 것)	=	Important for (나를 위해 중요한 것)

-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주관적 욕구 – 만족,안심,성취,행복감)
  나를 위해 중요한 것 (객관적 욕구 - 안전, 건강)
-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
- 서비스 과정 : 가족, 친구, 시설의 직원들과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초점

*** 000의 꿈 (Dream)**

홍진영 콘서트 가고 싶어요

합창단원 활동 하고 싶어요

2~3시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 계획은 평가에 필요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갖기 못한다.
- 계획은 주로 건강 안전 그리고 기능적 역량강화에 집중할 뿐 당사자의 행복이나 성취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행복, 성취감, 만족감, 편안함)을 고려한 경우 이를 설명하기 힘들기에 계획은 매년 거의 혹은 아예 바뀌지 않으며 실행의 중심에 놓이지도 않는다.
-일상적인 지원을 맡고 있는 직접 지원인에게 계획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사람중심계획서 작성 훈련은 더 좋은 계획 문서를 제작하게 할 뿐 그 자체만으로 더 나은 삶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출처 : 사람중심계획과 의미 있는 삶 p.215

Ⅲ. 제언

1. 실패할 권리에 대한 책임

1)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우리(서비스제공자)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거나 위법한 것이 아니면 추진하다.
2) 경청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숨은 속뜻을 잘 파악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지역사회참여, 관계형성, 본인의 선택, 선택한 내용에 대한 존중, 역량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2. 소감

1)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개입/지원 방안에서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될 것임.
2) 생각보다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음.
3) 직업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 없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판단됨.
4) PCP 데이를 설정하여 조별활동 혹은 담당자와 당사자 매칭을 통해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음.
5) 직업적응훈련계획에 개선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PCP 꼭지를 넣어 이루고 싶은 것을 1가지씩 기재해 봄으로써 실천이 가능할 것임.
6) 실천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음.

팀스터디 22-13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방법의 이해

팀 명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일 시	2022.04.15.(금) 17:00~18:00
발표자	정지은
장 소	늘푸른동산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방법의 이해

1. '자기결정'이란?

1) 법률적근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5월「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2015년 11월에 시행됨. 본 법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할 권리 등 기본적인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제3조). 또한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의 동의/거부, 서비스 이용의 선택 등 자기결정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제8조)

2) 자기결정 4가지 개념

(1) 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
(2) 선택과 결정에 있어 불필요한 외부적 간섭이 없는 상태
(3)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질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4)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서의 결정

"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불필요한 외부적 간섭 없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영역에 대해 충분한 사회·환경적 지원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통제하는 것"

(5) 중증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위와 같은 개념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 주요 돌봄자 혹은 직원이 장애인에게 모든 선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자율성이라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 권한을 주요 돌봄자 혹은 직원이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외부적인 방해가 없는 선택에서의 자유는 어떤 개념일까?

①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간섭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
② 적극적 자유 : 간섭 받지 않는 영역이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

- 지식과 판별력, 자기통제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간섭의 영역을 확보하는 소극적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
- 중증 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외부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이며 전적인 책임을 지는 합리적 자기결정이라고 볼 수 없음.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은 자기완성, 성취를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3)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이 중요한 이유

(1) 자기결정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2) 향상된 자기결정은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
(3) 자기결정 과정에서 자기존중을 습득하고 충족시킬 수 있음
(4) 성인기에 달성해야 할 주요한 과제인 자립을 실현 시킬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은 적극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함.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결정에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 태도, 지식과 같은 개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일상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외에 법률, 제도, 문화, 지원체계 등 광범위한 사회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침

(1)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환경
  - 가정, 부모, 주요돌봄자, 거주시설 직원 등
(2) 중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환경
  - 학교, 교사, 복지관 직원 등
(3)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환경
  - 법, 규정 등

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기결정'

1) 장애인과 전문가 사이의 자기결정 상호작용 모델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전문가와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유형모델을 제시함.

(1) 가부장적 모델

- 전문가는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이 동의하도록 권고함. 전문가는 장애인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항상 최고의 것을 알고 있다고 봄. 전문가는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상태를 판단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에 장애인이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선택하도록 장려함.
- 전문가는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에 권위적으로 이를 통보한다.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유되며 전문가는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 구별함.
- 가부장적 모델에서 장애인과 전문가는 서로 비균형적인 상태에 있음.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웰빙 그리고 선택권과 건강 중에서 후자를 택함. 이 때 장애인의 자율성은 전문가의 가장 최선의 선택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에서 장애인의 가진 역량은 협력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음.

(2) 정보제공 모델

- 전문가는 장애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개입을 선택하고 전문가는 선택된 개입을 실행함. 정보제공 모델에서 전문가 개인의 가치기준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며 전문가는 장애인의 가치판단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음.
- 정보제공 모델에서 전문가는 기술적인 전문가이며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유지하며 장애인에게 기술과 정보가 부족할 때 상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여기서 장애인의 자율성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며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각 대안을 자신의 가치에 맞게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장애인의 역량으로 볼 수 있음.

(3) 해석적 모델

- 장애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의 목표임. 개입의 이점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구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어떤 개입이 가장 적합할지를 분명하게 설명함

- 해석적 모델에서 장애인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님. 이때 장애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이때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장애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하게 설명해주어야 함.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는 장애인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 자신임. 전문가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이 어떤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내담자의 자율성은 자기이해를 위한 공동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게끔 설명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가치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해석적 모델에서 내담자의 역량임.

(4) 심의적 모델

- 전문가는 장애인이 건강에 가장 좋은 가치를 심의하도록 독려함. 장애인의 사태를 설명하고 가능한 선택지 유형을 명확히 함. 전문가는 특정 선택이 왜 좀 더 장애인이 추구해야할 선택인지를 설명하여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도덕적 토론과 심의를 거침.

- 심의적 모델에서 전문가는 선생님 혹은 친구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과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전문가가 관여함. 장애인은 자신의 선호나 평가되지 않은 가치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되는 의학적 선택지, 건강과 관련된 가치, 자신의 가치를 숙고하고 결정한다. 이 때 장애인의 역량은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봄.

2) 질적연구사례를 통해 본 자기결정

(1) 질적연구활용 이유

- 질적연구란? 개인 혹은 집단에 초점을 두고 조사,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어떤 문제나 특성,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의 양적연구보다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활용함.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에 대해 장애인의 주요돌봄자 혹은 복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임.

(2) 사례소개

[사례1]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의 중증 지적 장애인 C씨(17세,남)와
주요돌봄자인 어머니 W씨

[사례2] 장애정도가 경한 지적장애 지적장애인 S씨(34세,남)와 복지관 직원 B씨

(3) 사례1

① “본인이 싫으면 귀를 막아요. 말하지 말라 이거지.”

[사례1]의 C씨는 고등학생으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음. C씨의 형 D씨역시 일란성 쌍둥이고 동일한 지적장애가 있음. 어머니 W씨는 이 두 아들을 학교에 있는 시간과 활동보조인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함께 보내고 있음.
[사례1] 분석 결과의 어머니 W씨는 C씨가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씨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음.

“C는 본인이 싫으면 귀를 막아요. 말하지 말라 이거지. 각자 자신이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사례1: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옷을 입자고 꺼내요. 확실하게 입겠다고 해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머리 자를 때 바리깡을 싫어하는데, 이거 안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위로만 해달라고. 가장 기본적 욕구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밥을 먹겠다고 하면 어떤 것 넣고 어떤 것 넣지 말고. 이런 거는 정확히 해요. C는 참치를 좋아하고 D는 참치를 싫어해. 한꺼번에 비비면 좋은데 안 돼요. 정확하게. 본인이 뭐 먹고 싶으면 가서 해달라고 졸라요. 참치도 어디서 꺼내 와서 비벼달라고 먹겠다고 해요” [사례1: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어머니 W씨는 C씨가 추구하는 가치를 해석하여 어떤 개입이 가장 적합할지 고민하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음. W씨는 C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C씨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C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이는 해석적모델의 상호작용에 가깝고 해석적 모델에서는 주요돌봄자가 궁극적으로 C씨가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W씨는 상담가의 역할을 함.

“특수학교에서 숙제를 내는데 집에서 책에 스티커 붙이기라도 하라고 노트 한 권에 스티커를 보내주세요. 내일 선생님이 숙제 내줬으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덮더니 노트를 장롱 속에 쑥 넣은 거야. 그래서 그날은 “너무 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그러고 다음날에 또 꺼냈는데 그걸 가지고 스티커 몇 개 붙이더니 안하더니 밤엔가 새벽엔가 그 노트를 목욕탕 물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애가 집에서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저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례1: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중간 중간 개입을 해줘서 C가 불편했던 것과 편함을 같이 경험을 해봐야, 지금은 본인이 신발 거꾸로 신으면 다시 발 바꿔서 신는 게 생기는 거죠”

C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기 발달적 성격의 자율성을 보이는 심의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양말 이거 신을 거야?” 물어보고 저는 신발 발뒤꿈치가 등으로 올라와도 “그냥 신어”그래요. 불편하면 니가 바꾸겄지. 신발도 엇갈리게 신으면 “그냥 신어, 니가 바꾸겄지.”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서 가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신었으면 좋겠어. 오른쪽 왼쪽이. 그래야 발이 편할 거야.”그 경험을 중간 중간 개입을 해줘서 C가 불편했던 것과 편함을 같이 경험을 해봐야. …중략…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신발 거꾸로 신으면 다시 발 바꿔서 신는 게 생기는 거죠[사례1: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바닥에 변을 눴는데, 전에는 안 치우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는 샤워기를 가지고 온 바닥에 똥칠을 했어요. 어차피 변기에 앉기 힘드니까 스스로 치우는 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휴지가지고 변기에 버리는 걸 설명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변기에 버려요. 그 이후에는 용변을 보면 저를 불렀어요. 휴지를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휴지를 스스로 끊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새는 최소한 샤워기로 해체하는 건 안 해요. 묻은 것만 솔이나 이런 걸로 닦아서 버려요.[사례1: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어머니 C씨는 주로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맞추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이 나타남. 특히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식장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는 경우), 특정 선택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이 불편한 경우(신발을 거꾸로 신는 경우, 더운 여름 겨울용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 특정 선택이 매우 비위생적이거나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대변을 바닥에 누고 가지고 노는 경우)등의 상황에 그러했음. 이러한 경우 특정 선택 혹은 행동이 왜 좀 더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C씨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득함. 이러한 과정에는 C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설득하는 단계적 과정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C씨에게 설득하는 선택 혹은 행동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기발달 성격의 자율성을 통해 선택하고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음.

(4) 사례2

① “해바라기가 좋으세요?” “네.”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싫어.”

[사례2]의 S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지적장애인 복지관을 다니고있음. 직원 B씨는 S씨와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음. S씨의 경우는 주로 인터뷰 중에 그림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선호 및 선택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거의 음식, 의복, 머리모양, 스포츠 등 대부분의 선택지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사례2]에 사용된 그림도구는 선호에 대한 선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그림1]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됨.

Q: 음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A: (음식을 가리킴. 불고기)
Q: 이중에서 이게(불고기) 좋아요?
A: 예. 맛있어요.
Q: 동물이 있어요. 이중에서는 뭐가 좋으세요?
A: (토끼를 가리킴. 토끼를 보고 얼굴이 매우 밝아짐)
Q: 이건 뭐예요? (강아지를 가리킴)
A: 강아지(얼굴이 밝아짐). 우리집에 강아지 있는데. 엄마가 누구 줘버렸어. 고양이다 고양이(얼굴이 밝아짐)
Q: 이거는요? (다른 동물들을 가리킴)
A: 싫어.
Q: 꽃은 뭐가 좋으세요?
A: (해바라기 가리킴)
Q: 해바라기가 좋으세요?
A: 네.
Q: 다른 것은요?
A: 다른 것은 싫어. [사례3: 지적장애1급 S씨 인터뷰 내용일부]

② “위험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표현을 했고 잘 건넜어요.”

[사례2]의 S씨의 경우 진로결정이나 거주지 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기회는 별로 없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복지관 직원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따를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복지관 직원 B씨는 S씨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트레킹을 했었는데, S씨의 경우 트레킹을 할 때 험난한 길을 스스로 택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쉬운 길로만 다녔었어요. 그런데 S씨가 어느 날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표현을 했고 잘 건넜어요. [사례3: 복지관직원 B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2]의 S씨의 경우 신변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복지관에 늦게 가는 경우 전화를 해서 복지관에 상황전달을 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우 직원 B씨는 S씨를 신뢰하고 S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었음.

S씨의 경우 신변 처리가 잘 안돼서 복지관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전화가 와요. “선생님 바지에 볼일을 봤어요. 옷 바꿔 입고 갈게요.”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또 늦을 것 같다거나 못 오면 못 온다고 하고. [사례3: 복지관직원 B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2]의 복지관 직원 B씨는 인터뷰를 하는 날 S씨와 동행하였는데 S씨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곳에 있는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됨. 인터뷰가 끝나고 헤어질 즈음 B씨는 S씨에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라고 물어봄. 그러자 S씨는 “네.”라고 대답함. B씨는 “그러면 가면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라며 S씨의 선택을 존중하고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당시 관찰한 내용을 통해 본 결과 [사례2]의 B씨와 S씨 역시 S씨가 원하는 것과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음.
[사례2]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없었음. [사례2]의 직원 B씨의 경우 주된 선택에 있어 선택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신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S씨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올수 있도록 하여 특정 방법이나 선택지에 대해 좀 더 설득적으로 권유하는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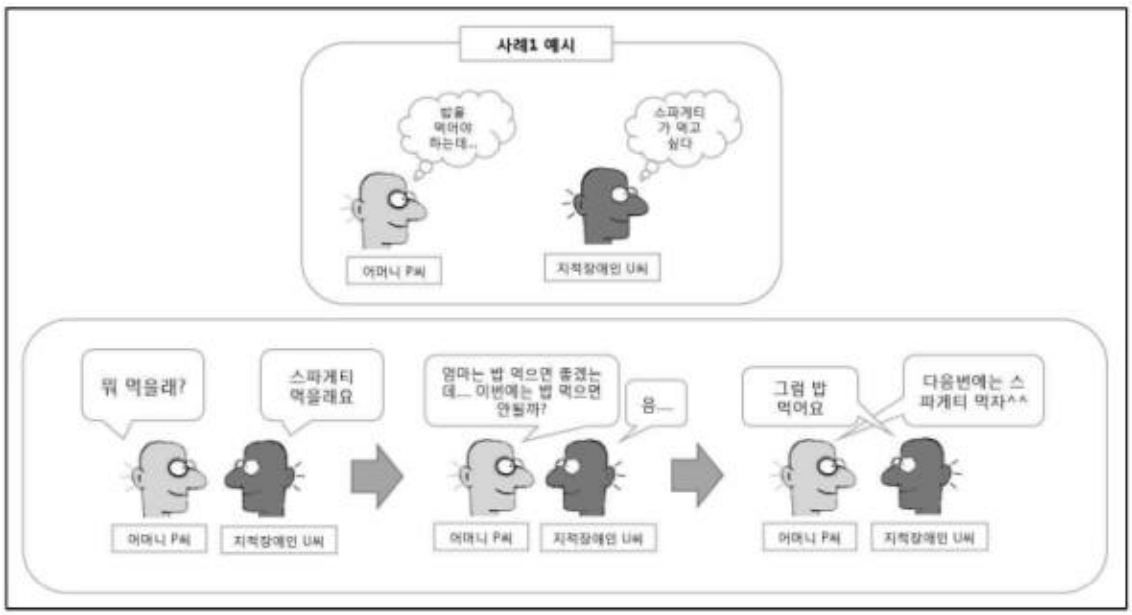
3)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장애인과 실무자의 상호작용

(1) 소수의 선택지 제공

-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에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포함됨.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역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됨. 그러나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음.

(2) 결정기회 확대, 물어보기

- 해석적,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의 공통점은 최종적인 결정에는 강요나 강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장애인에게 결정의 기회를 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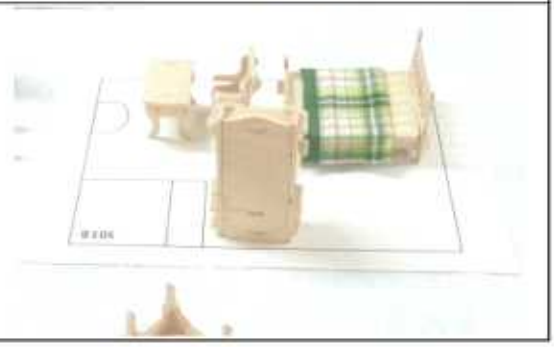
(3) 세부단계를 설명

- 장애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특정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 세부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샤워방법을 가르칠 때 세부단계 별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직접 보여주면서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해할 수 있는 계란후라이 만들기		이해할 수 없는 계란후라이 만들기
1.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 이렇게(보여줌) 2. 한번 해봐(따라함). 3. 기름을 동그랗게 펴(보여줌). 4. 계란을 이렇게 깨(보여줌). 5. 한번 깨봐(따라함). 6.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어. 7. (소금을 넣어 봄). 8. 그다음엔 뒤집어(보여줌). 9. (뒤집어 봄). 10. 완성		1.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 (계란프라이를 하는 것을 보여줌) 2.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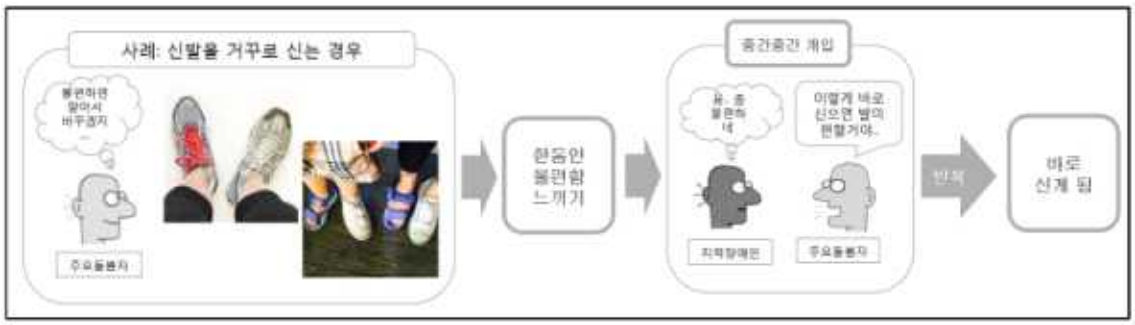
(4) 가시화와 시뮬레이션

- 세부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가시화와 시뮬레이션임. 목욕하는 과정, 요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함. 예를 들어 가구 모형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돕는 것.

Q: 어떤 가구를 놓고 싶으세요? Q: 어떻게 놓고 싶으세요?	A: 침대랑 장이랑 책상 A: 이렇게...
	

(5)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당사자가 필요를 느낄 때 바로 채워주는 것보다 당사자가 필요를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6) 의사소통수단을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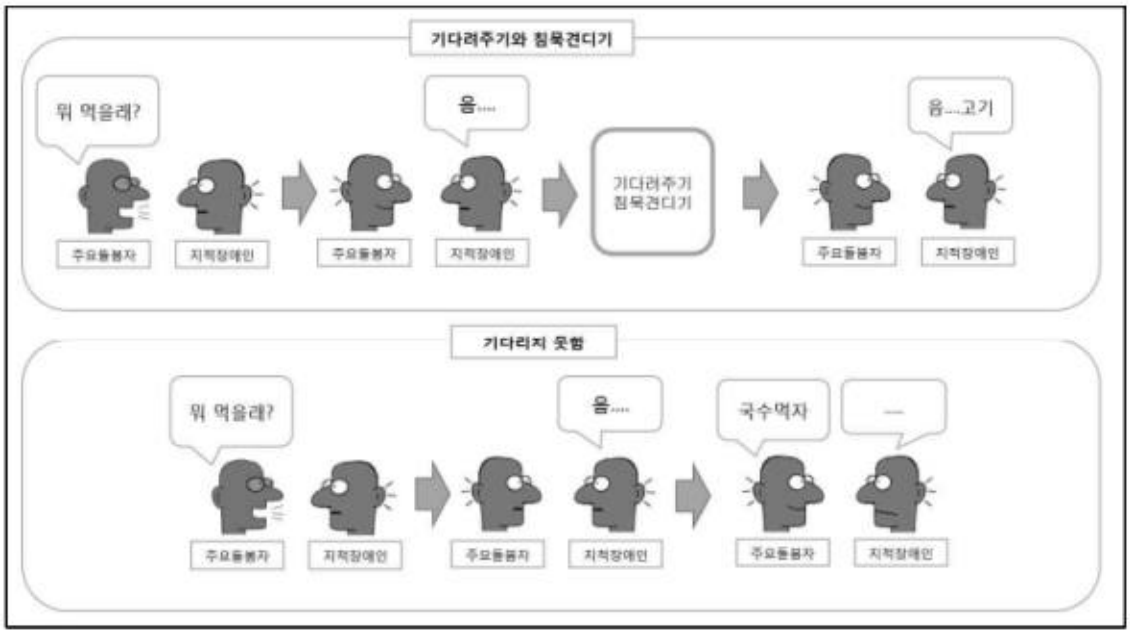
- 다양한 소통수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발현에 중요함.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인터뷰하는 동안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의사소통함. 중증의 경우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상태를 표현함.

(7) 뒤에서 보조하기

-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당사자가 하도록 하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8) 기다려주기와 침묵 견디기

-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함.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9) 일상성과 연속성

-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결정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함.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기결정 강화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단기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 고 자 료

1.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 연구: 주요 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아영
2.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성공회대 외래교수 이복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동석

제 언

<김은숙>

중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라는 부분은 인권을 논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알고 있다.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도 및 필요성은 반복적인 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으나, 인권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기결정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어렵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이는 중증장애의 특성이나 지금까지의 학습방법,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스스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팀스터디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장애인과 전문가 사이의 자기결정 상호작용 모델로 심의적 모델에 대한 내용이 공감이 많이 되었다.

전문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이 동의하도록 권하는 가부장적 모델이나, 장애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정보제공 모델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는 선생님 혹은 친구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가치를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거 같다. 결국 그 상황뿐만이 아닌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장애인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더 커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임명호>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따른 자기결정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훈련이 필요하며, 본 스터디는 경증뿐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의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사례 및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쉬었음. 현재 본 센터는 16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긴 하지만 각 이용인 별로 인지 및 신체 능력이 다름에 자기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인 개개인별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자기결정권 강화 중 기다려주기의 경우 대다수의 이용인에게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단체 활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이러한 기다림의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낌.

이에 담당자는 프로그램 진행 시 진행 및 완성에 맞추는 질적인 활동 보다 개개인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적인 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정지은>
전문가와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한 모델들 중에서 심의적 모델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가 정서적 옹호자로서 중증 장애인을 대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심의적 모델에서 인상 깊게 본 점이 장애인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방법적인 것을 알려주고 자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수의 선택지와 기다려주기가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 혹은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결정의 기회를 가졌을 때 사회복지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중증 장애인으로부터 자기결정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과 스킬 그리고 충분한 기다려주기이며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윤다애>
중증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직원 및 주요 돌봄자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 다는 점에서 중증 장애인이 최소한의 외부자의 원조를 통해 자율성과 자기선택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음.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기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의 카테고리와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용인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와 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인이 최대한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때, 그것이 프로그램 만족도와 연결되어 질 것이라 여겨짐. 성교육 등 감정표현 교육 시 , 또는 이용인들과의 소통 시 AAC자료와 더불어 핸드폰 에 있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소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짐.

<이범주>
입사이후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중요한 것은 알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과연 어디까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자기결정에 따르는 후회나 실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용납이 가능 한 부분인지 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인지에 큰 저하를 갖고 있는 이용인이 자기결정이라고 손으로 짚은 선택이 과연 진정한 당사자의 선택인지도 의심스러웠다.
이번 스터디를 통하여 자기결정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 배웠고 각 모델의 장단점을 인식하였으며 이용인을 몇 가지 항목으로 엮어 두는 것이 아닌 개개인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 스스로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이번 자기결정 스터디를 통하여 이용인을 더욱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민선>

신입 직원으로서 이용인 관찰과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팀스터디로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기결정'의 여러 모델들을 접해보면서 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다. 질적 연구사례를 통해 소통이 어려웠던 장애인들과의 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장애인의 주요 돌봄자 혹은 복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이 현장에서 이용인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알게 된 것 같다. 다만 논물 발췌와 사례들의 관련된 참고 서적이 명시되었다면 지속적인 참고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그램 실에 교구장을 배치해 교구들을 다양하게 비치해 둔다면 이용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좋은 훈련이 될 것 같다.

팀스터디 22-14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팀 명	늘푸른동산
일 시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17:10~18:00
발표자	이범주
장 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1. 왜 도전적 행동인가?

1) 과거의 경향

-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문제행동, 과잉행동, 이상행동, 부적응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 행동을 이해 하기보다 사후 개입에 초점을 둠
- 개인의 문제, 사회 부적응에 대한 행동으로 명명함

2) 최근 관점(2017)

- 장애의 특성이 아닌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 행동을 바라봄
- 생래적 특성이 아닌 환경을 산물
- 이러한 관점 변화로 새로운 용어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등장

3) 도전적 행동의 용어 정의

-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Emerson 외 1988)
  예를 들어,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정형화된 행동, 소리 지르기, 울기 등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

2. 도전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1) 도전적 행동의 개념

(1) 용어 해석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

- **행동의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을 강조, 강도가 낮거나 우연히 발생한 행동 등을 무조건 도전적 행동으로 명명하지 않음.** (김고은 2014)

(2) 도전적 행동들

- 자해, 공격,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심각하게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
- 예를 들어, 폭력, 강박행동, 과도한 과잉행동, 비정상적인 성적행동, 머리 쥐어뜯기, 대소변 먹기, 얼굴 때리기, 상처파기, 손 물기, 벽에 몸을 부딪힘, 가구 망가뜨리기

(3) 결과

- 서비스 제공자가 그 행동을 관리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야기 시킴
- 활동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여 삶의 질 악화
-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통합을 방해

2) 도전적 행동의 원인 : 타고난 것인가? vs 구성된 것인가?

(1) 과거의 경향 (생물학적 원인)

- 기질적 특성: 레쉬-니한 증후군(입술과 손을 깨무는 자해행동, 프래더윌리 증후군(식욕억제 불가능), 간질(경련), 당뇨(혈당조절 능력 상실로 인한 방향감각상실, 비협조적 행동), 자폐스펙트럼 장애(강박관념, 상동행동, 과잉 감각노출로 인한 이상행동)
- 약물적인 접근, 지역사회에서 살기보다 시설보호

(2) 최근 경향 : 환경적 원인

- 원인: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 훈련 부족, 직원 이직으로 인한 미숙한 서비스, 직원의 의욕 상실, 낮은 서비스 질, 서비스 제공자와 발달장애인의 부족한 상호작용, 서비스의 비체계화된 규정, 폭력이나 학대의 노출, 대형시설의 입소
- 해결 방법: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고려한 상호 작용, 충분한 공간 제공, 발달장애인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한 활동 기회 제공, 예측할 수 있는 활동 제공, 깨끗한 주변 환경, 소음제거, 긍정적이고 차분한 직원의 대응, 개인이 처해 있는 편안한 환경

3. 도전적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1) 도전적 행동의 발생률과 유형

국내 거주시설, 중증요양시설 88개, 종사자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연구(김미옥 외 2014)

표 1. 기관의 도전적 행동 비율 (단위: 개, %)

구분	빈도(비율)
10% 미만	6(7.1)
10% 이상 30% 미만	32(38.1)
30%이상 60% 미만	25(29.8)
60% 이상 90%미만	8(9.5)
90% 이상 100% 이하	**13(15.5)**

※최솟값= 4.55%, 최대값=100%, **평균=42.67%**

- 시설 이용자의 10~30%가 도전적 행동을 한다 38%
- 시설 이용자의 90%~100%가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기관 15.5%

표 2. 도전적 행동의 유형 (단위: %)

유형	평균
머리 쥐어뜯기	4.18
대소변 먹기	1.12
귀,입,눈,코 등 후비기	**7.95**
머리 찍기	4.11
얼굴 때리기	6.04
손가락 넣어 구토하기	1.58
상처 파기	**7.97**
손 물기	5.50
신체의 일부를 벽에 부딪히기	5.56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5.53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기	3.54
타인을 때리거나 공격하는 행위	**11.87**
종이나 옷을 찢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행위	7.69
개인물건또는 시설에 불지르기	0.22
타인의 물건 훔치기	6.67
기타	4.82

- 타인을 때리거나 공격하는 행위 11.87%
- 상처파기 7.97%
- 귀, 입, 눈, 코 등 후비기 7.95%

2) 도전적 행동의 원인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①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3.05%

② 이용자의 개인적 성격 및 성향 2.99%

③ 정신과적인 문제 2.98%

④ 그 밖의 인식 : 주위를 끌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에 불만족,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직원이 서비스 제공, 직원의 기술 부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부족한 상호작용, 이용자가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 불만족스러운 환경 1~2%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대응 실태

표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대응 실태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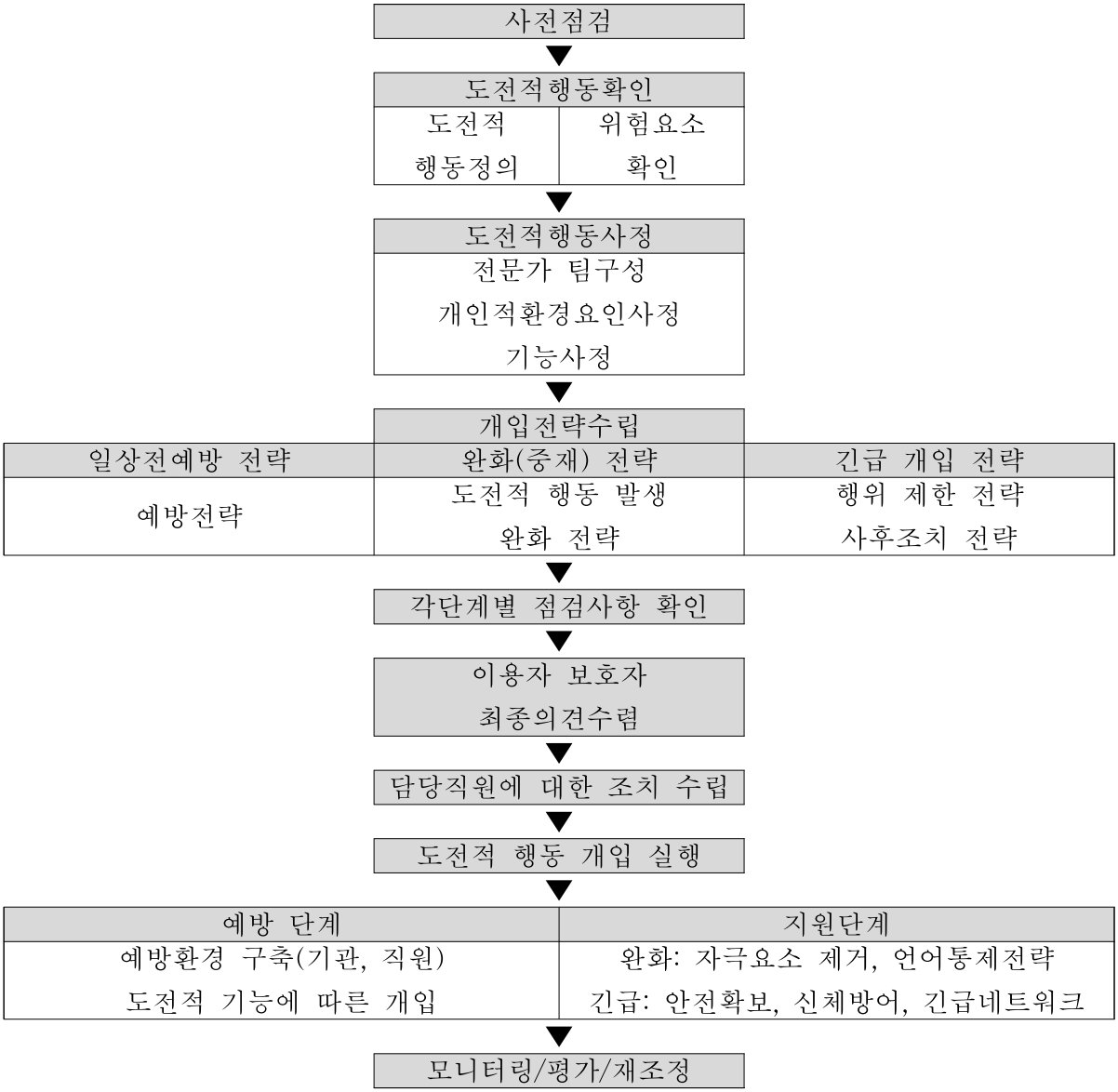
변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문서화된 근거 규정	가지고 있고 잘 활용됨	26(31.3)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음	12(14.5)
	내부 규정 없음	45(54.2)	-	-
매뉴얼	가지고 있고 잘 활용됨	22(26.5)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음	9(10.8)
	관련 매뉴얼 없음	25(62.7)	-	-
교육 프로그램	관련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잘 실시됨	26(32.1)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시하지 않음	3(3.7)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25(64.2)	-	-
교육 횟수	연 1~2회	11(55.0)	연 3~4회	6(30.0)
	연 5회이상	3(15.0)	-	-

- 문서화된 규정 없음 54.2%
- 문서화된 규정 있고 잘 활용됨 31%
- 매뉴얼 없음 62.7%
- 매뉴얼 있고 잘 활용됨 26.5%
- 교육 프로그램 없음 64.2%
- 교육 프로그램 실시됨 32.1%

4.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 실천적 맥락에서의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 과정

<그림 1>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과정 김미옥 외(2014,2015)



(1) 사전점검: 개입의 적절성 판단(개입(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 판단)

(2) 도전적 행동 확인

① 도전적 행동의 정의: 명료한 언어로 지원 대상과 행동, 결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의

② 위험 요소 확인 : 도전적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위험 유형, 강도 , 정도에 대하여 고려

(3) 도전적 행동 사정: 어떠한 이유에서 도전적 행동을 하는지 객관적, 구체적으로 파악
(4) 지원전략 수립
① 일상적 예방 전략 : 도전적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 환경변화
② 완화(중재) 전략 :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원하는 방법, 일상적 전략이 효과 없거나, 시도를 못했을 때 도전적 행동을 완화 시키는 전략
③ 긴급 개입 전략 : 위 두 전략이 효과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전략, 즉흥적이지 않고 사전에 계획된 행동지원, 발달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 매우 짧게 실시, 실시 후 바로 개입이 적절했는지 평가
(5) 단계별 점검사항 확인 : 각 단계 별로 부족한 부분, 원칙 등을 점검하고 보완
(6)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견 경청
- 개입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음
-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견 경청 : 이용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수반
(7) 담당 직원에 대한 안전 조치 마련
- 도전적 행동의 개입과정은 이용자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어려운 경험
- 심리적 충격, 신체적 상해가 있을 수 있음
- 담당 직원이 겪게 될 위험에 상황에 적극적인인 대처 필요
(8)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을 실행
- 예방 전략, 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
- 모든 개입에 참여한 사람은 계획을 숙지하고 합의하여 계획적으로 실천
- 일상적 예방에서 도전적 행동이 소거될 수도 있지만 긴급 개입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음
(9) 모니터링/ 평가/ 재조정
- 모든 계획과정과 실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5.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가?

1) 사회적 모델과 개별적 모델의 공존에 대한 모순 인식
- 현재 장애인 복지 계에서는 사회적 모델에 기반 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어떻게 줄일까?'에 관심을 갖기 보다 '왜 이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에 초점 그러나 종사자의 인식은 여전히 개별적 모델에 기초한 관점에 머물고 있음
- 도전적 행동을 하는 이유로 기질적 특성이라고 응답한 종사자(3.05점, 4점 만점), 이용인의 개인의 성격(2.99점)
- 불만족스러운 환경(2.01점),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2.13점)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도전’과 ‘행동’의 의미 해석

① 도전

- ‘도전’이라는 용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도전은 발달장애인에게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고 자기결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merson, 2001, 김고은, 2012)

②행동

- 인간의 행동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
- 발달장애인은 행동 표현을 통하여 세상에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

※ 도전적인 행동은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방법**,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런한 정의를 생각하면 어떻게 서비스를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3)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는 가치지향적인 지원

- 도전적 행동의 물리적 접촉, 방어 등으로 인하여 자유의 침해나 인권침해, 선택권 박탈하는 윤리적 딜레마 발생
- 분명한 가치 기반을 세울 필요가 있음

① 도전적 행동에의 지원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존경과 정중함으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②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이 있을지라도 발달장애인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전적 행동에의 지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학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적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결여로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은 교육적이고, 사회적이며,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

4) 신체적 개입과정

- 절차적이고 권리 지향적 지원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
- 신체적 개입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

① 특정하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에게만 적용

② 긍정적인 행동 지원 후의 최후의 수단

③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능적 행동평가와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진 후 행동지원계획에 의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

④ 적합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⑤ 적합한 교육을 받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시행

- 당사자나 가족의로 부터 동의을 얻은 후 실시
- 신체적 개입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개입을 했을 때의 위험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

5) 서비스 제공자: 도전적 행동에의 대응 자세 및 요구 능력

*서비스 제공자들이 도전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 전략 4가지(Strain & Hemmeter, 1997)

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전적 행동을 판단한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혼란을 줌

②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행동으로 당황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도전적 행동임을 인식
- 동료들끼리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③ 우리의 개입이나 중재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큰 기대를 갖지 않기
- 도전적 행동에의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④ 발달장애인이 변화 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춤

- 주변 환경이나 활동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적절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도전적 행동의 대응에보다 효과적임

*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

서비스 계획과 관리, 의사소통 기술, 가족과 함께 수행하기, 지지와 표현, 기회와 참여 제공, 서비스 이용자와 바람직한 방법으로 관계하는 능력, 장·단기적으로 도전적 행동에 개입하는 능력, 정교한 행동 기술, 인식과 감정변화에 따른 심리적 치료, 흥분 및 신체적 공격을 다루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및 지원기술(Lally, 1993)

①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을 구별해내는 능력
② 서비스 제공자와 발달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의 질 향상 능력
③ 서비스 제공자의 자기인식 및 자기통제 능력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제 언

- 김은숙

도전적 행동의 정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도전적인 행동을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 개인적인 문제행동으로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 행동이 발생되어지며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고려한 상호작용, 충분한 공간 제공, 발달장애인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한 활동 기회 제공, 긍정적이고 차분한 직원의 대응 등의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되었다.
또한 도전적인 행동 관련하여 본 센터 규정과 지침에 문서화로 가지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져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기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임명호

문제행동에서 도전적 행동, 장애인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과 환경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변화된 개념과 담당자들이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한 교육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
본 센터는 직원 6명이 중증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16명을 프로그램 진행에서 안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케어, 이용인에 대한 시선이 상이하여 각 이용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센터 담당자들은 월 1회 특정 이용인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 그 이용인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 및 교육, 도전적 행동 대응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정지은

팀스터디를 통해서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의 원인과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시설 차원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센터의 이용인이 주로 자폐성 장애인인 만큼 규칙적인 센터 내 활동도 중요할 듯 사료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이 시설 자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설과 가정 간의 동일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도전적 행동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 윤다애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의 일부 원인은 의사소통으로써 자기표현의 도구라고 생각되며, 이용인이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경우, 그 행동 이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원인 파악 후, 이용인이 보이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 또한 동일하게 합의되어 이용인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여진다.

- 이민선

담당자께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개념과 그에 따른 행동들의 예시와 결과를 PPT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도전적 행동의 유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도전적 행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와 연결하여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인의 행동 특성을 떠올리며 도전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와 요구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끝으로 '도전적인 행동은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라는 문구가 머릿속에 남는다.

- 이범주

하반기 팀스터디를 준비하면서 '도전적 행동'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문제행동'의 언어적 순화된 표현이 아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행동은 개인의 문제로 보고 꼭 고쳐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도전적 행동은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바깥 세상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스스로가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본 논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크게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마인드와 역량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로써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팀스터디 22-15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팀 명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7:00-18:00
발표자	김지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 우리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1)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 OECD 가입 38개국 국가 중 34위(2021년 산재 사망자 수 828명/영국 142명)

2)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산업안전보건법)미준수 팽배

▪ 현장점검의 날: 21.7.14부터 격주 수요일에 불시에 3대 안전조치 점검 실시 (추락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안전보호구 착용) 2021년 41.0% 위반, 2022년 50% 이상 위반

2.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1) 경영책임자의 관심 부족

▪ 사업장 단위 의무 부분: 안전은 일부 현장 안전실무자만의 고민

▪ 현장 단위 낮은 처벌 수준: 감당 가능한 비용(생산성 > 안전)

2)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미미

▪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부재

▪ 관리 책임의 부재 :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 미비 및 이에 따른 관리 소홀

3) 위험 방치·규정 미준수 팽배

○○건설	교량 상판에서 지게차 유도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형성된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	설계변경으로 위험요인이 새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이를 고려한 작업 절차 미수립
○○공업	사출성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기계가 작동하여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작업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었던 방호장치를 해제하여 내·외부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관련 조치 미수행(방호장치 해제 등 위험요인 방치)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1)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투자, 기업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기 부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여 실행하도록 한 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

▪ 기업 스스로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속 개선하는 체계구축

▪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하여 현장을 점검, 보고 등을 통해 확인·개선

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

1) 22.1.27부터 50인(50억)이상 적용, 전체 약 6만 개 현장

▪ 건설업 14,846개소(3.7%)

▪ 제조업 11,125개소(2.7%)

▪ 기타 31,639개소(1.5%)

2) 2022년 상반기(2022.1.27.~6.30)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 총 88건(사망 86, 질병 2) 발생

▪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총 303건(사망 320명), 전년 동기 대비 31건(20명) 감소, 특히, 건설업에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음.

3)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서 반복 발생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중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 전체의 43.2%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

1) 단순히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아님

2) 현장의 위험요인 통제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조치 미준수'에 대한 묵인·방치 지속

3) 특히, 사전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위반 다수 발생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 중대재해처벌법

1)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3)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2. 중대산업재해

1) 산업재해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 1. 27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 책임주체

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⑵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2) 보호대상

⑴ 종사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1) 처벌

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⑵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손해배상

▪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3)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 통보

Ⅳ.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한다.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한다.
2)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팀스터디 22-16

고용노동부 체계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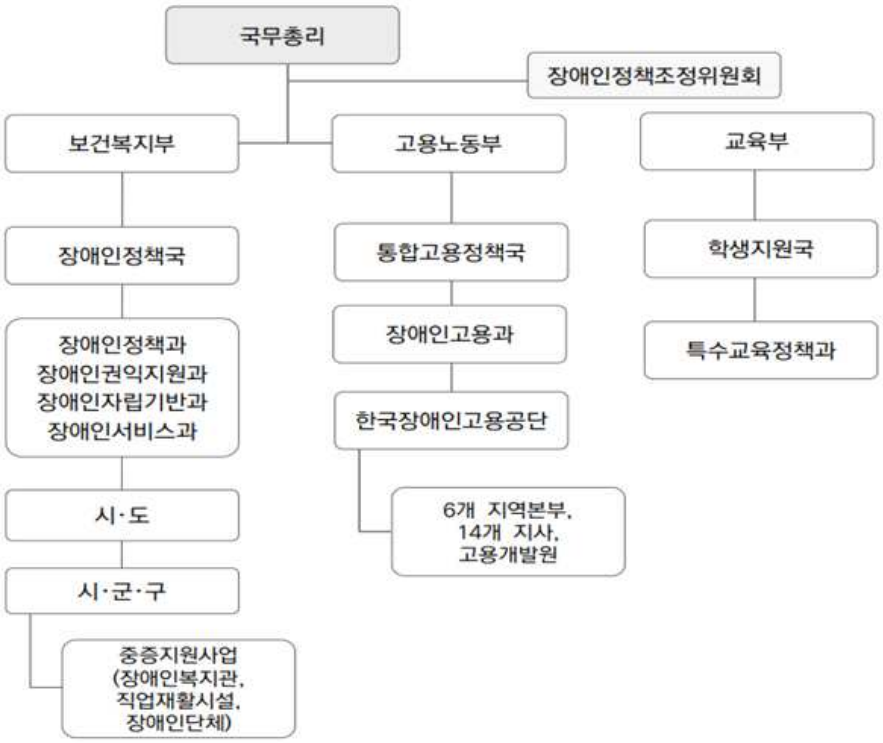
팀 명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일 시	2022. 12. 22. 17:00
발표자	류수진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고용노동부 체계의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Ⅰ.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의 개별 법률에 근거한 다원화된 전달체계로 분절적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 고용 관련 수행 대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Ⅱ.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1. 장애인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 운영

-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투게더 (www.worktogether.or.kr)

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신청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 69세 이하 장애인
- 지원내용 :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훈련수당과 취업 성공수당 지급
  * 1단계 (1개월 이내) :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2단계 (12개월 이내) : 공단 산하기관에서 직업훈련 통해 직업능력 향상
  * 3단계 (3개월~6개월) : 집중 취업알선, 면접,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3.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 신청대상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
- 특수교사가 신청,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4. 장애인 인턴제

-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10개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서비스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사업체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 정규직 전환 도모하는 제도. 인턴기간의 월 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65만원 지원
  * 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근거로 3년마다 변경)

5. 지원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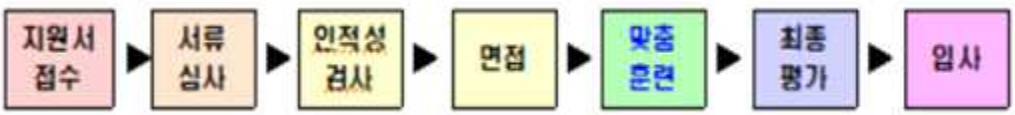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취업진입 유형 : 일반(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 3주~7주(필요시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일과 사업체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 배치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 을 갖춘 사업체, 4대 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
- 지원내용 : 장애인_훈련준비금(4만원), 훈련수당(1일 18천원),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_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직무지도원 배치
- 취업이 급한 상황, 유사직종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원하지 않아도 참여해야 하는 과정으로 비판

6.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부족한 고등학생에게 직업체험 제공, 전공과 과정 학생에게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력과 고용연계 가능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발달장애인 취업교육훈련기관
- 2016년 12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국내 최초 개소, 현재 17개 시도에 19개 센터 운영(서울, 경기 각 2개소)
- 각 센터별로 상이한 IT체험관, 제과, 바리스타, 우편분류, 간병보조, 도시농업, 외식서비스, 도서관 서서보조 등 기업과 연계하여 실제 장소와 비슷하게 구현된 직업체험관 운영 : 바리스타 (파스쿠치), 의류 분류 (스파오) 등

7. 맞춤훈련센터

- 대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춰 맞춤훈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 전문기관
-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과정 설계부터 훈련생 선발, 맞춤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진행
- 교육훈련비용 전액 무료, 훈련수당 및 교통비, 중식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맞춤훈련 업체로 SK주식회사, 스타벅스, 이니스프리, 서울아산병원, 린나이, 대웅제약,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경남은행 등 참여



8.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

- 일반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중증, 여성, 장년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모델 개발·보급
  예) 알기쉬운 감수원, 편의점 스테프,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등

9.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 고용촉진과 안정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

10.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11.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사업

- 직장생활 중 발생한 인권침해, 노사분쟁, 장애차별, 부당해고 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고충상담, 법률 자문 등 지원

* 6개소 위탁운영기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Ⅲ.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소개

- 법령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 1991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의무 2% 부과를 시작으로 시행함.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3.6%
	비공무원	2.9%	3.4%	3.4%	3.4%	3.6%
공공기관*		3.2%	3.4%	3.4%	3.4%	3.6%
민간기업		2.9%	3.1%	3.1%	3.1%	3.1%

- 더블카운트제도(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 2009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통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서 의무고용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계산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면해 주는 제도
-명확한 직업적 중증 개념 도입 필요
  : 장애등급이 높으면 중증이라는 인식과 모든 장애등급이 중증이였던 발달장애인들이 중증장애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음. 이는 복지적 또는 의료적 측면에서 적절한 해석일 수 있으나 장애인 고용에 관련해서는 '직업적 중증'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함

1) 장애인 고용 장려금

-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단위로서 개인, 경영주 / 법인 - 법인단체)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 월별 상시 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 장려금 지원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임금 보전 등 처우개선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의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들의 반대로 무산 (권고조치)

2)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부터 부과함
- 2021년 기준 9,039개 사업체가 7,89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함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등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에 사용함.
-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3)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 지원제도

- 2020년 기준 표준사업장 473개소에서 11,115명 이 근로함. (지적 5,426명, 자폐성 600명) 표준사업장 규모는 30인 이상이 42.7%이고, 정규직 80%로 발달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기본적 근로조건은 제공하지만 분리고용을 전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장애인표준사업장

-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과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연계고용제도 등을 적용하여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
- 운영 기준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②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 평가 중 사회(S) 부문 평가지표 중 하나로 대기업 주도로 자회사형 증가(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효과)
- 간접고용을 통해 부담금 감면, 자회사에서는 장려금 지원, 대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해소하고 근로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자회사형 확대와 지원에 대한 비판

③ 사회적 기업경제형 표준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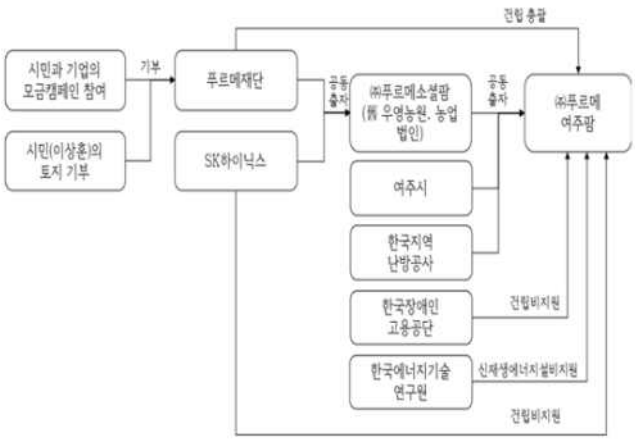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함
- 2019년부터 시행,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최대 5천만원)

④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표준사업장임
- 2019년부터 시행, 2022년 6월 기준 2개소
-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참여기관이 출자한 비율만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함
- 설립절차

-(주)푸르메여주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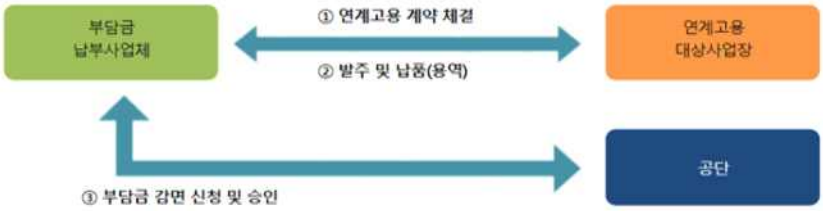
· 출자 : 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푸르메소셜팜
· 업종 : 스마트팜(온실농장/토마토/표고버섯)
· 장애인근로자 : 34명 (중증 34명)
· 지원금 : 10억원
· 채용절차 : 워크투게더 등 채용공고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취업 전 프로그램(지원고용)
· 협력기관 : SK하이닉스 (사회적 가치실현 목적)
· 출자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이천시(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우수행정 인정)



4) 연계고용 감면제도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임
-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제외)
- 감면한도 : 고용부담금의 60% 이내에서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부담금 감면 절차>



- 베어 베터 사례
  · 2012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근로자 수 : 총 350명 (장애인 근로자 240명)
  · 연계고용 실적 : 2021년 470개 업체 50억원

팀스터디 22-17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및 정책의 이해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22년 11월 24일
발표자	김진애
장 소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 및 정책의 이해

1.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대안

(문용훈 태화샘솟는 집 관장)

○1인 가구 2019년 30.2%
(출처: 2019년 인구주택 총 조사 통계청)
○지역별: 대전 33.7% 서울 33.4% 경기 26.3% 인천 26.6%
○연령별: 70대 이상 18.4% 20대 18.2% 30대 16.8%
○20년 장애인 실태조사_ 65세 이상 장애인 49.9%, 1인 가구 장애인 27.2%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세미나 준비 과정에 당사자의 손편지
-서울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정신장애3급, 1인 가구
-고령사회로 인해 정부는 노인공동홈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나 치매와 노인성 질환과 정신질환은 달라 정신 장애인이 배제될 확률이 높아...
-정신 장애인을 위한 공동 실버홈 마련하여 공동주거나 공동식사 등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해주길 바라며..

○자립한 장애인의 이야기
지역에서 나의 관계는 돈과 연결된 계약관계만 존재한다.
자립을 위한 자기결정과 선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관계의 어려움', '고립된 자립생활' 문제 발생
⇨자립을 하면서 상호의존(공동체)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가 숙제이다.

○2021년 논의되었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가. 주거약자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함(안 제2조1호).

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이하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구각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안 제3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친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주거약자의 필요와 선호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 2)

▪ 의안번호 210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이원 등 11인)

가. 지원주택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지원주택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뿐 아니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그 밖에 주거약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으로 폭넓게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등 주거약자가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장애인등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지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고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수급자격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주택관리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 지원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기존 목표는 빈곤, 불평등, 질병문제 등 국지적인 문제에 관심

: SDGs는 보편적인 주제(일자리창출, 성평등, 경제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

: SDGs 목표, ESG나 QR 활동방향

11. 지속가능한 도시

11-1 적정가격 주택의 확보와 빈민가의 환경개선

: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비적정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16억 명, 특히 이중 10억 명은 빈민가와 임시거주지에서 생활 중

11-2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주거지 계획 및 관리역량 강화

: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56.2%

⇨ 다양한 주제의 역량강화와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 계획 및 관리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이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 장애인복지법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

: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과 병행제공하는 방안

: 장애인복지법으로 통합하되 미등록 장애인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

: 장애인등록자와 미등록자를 구분하여 서비스영역을 결정

: 정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

○WHO에서 제시하는 모범사례 조건(2021년)
- 법적 역량의 존중
- 비 강압적 실천
- 참여
- 지역사회 포용
- 회복 접근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거주, 고용, 교육 및 문화, 사회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_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
제20조_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거주서비스와 관련하여 논쟁점들
- 기존 생활시설은 필요 없는 것인가?
: 보장시설의 필요성은..
-지역중심의 거주서비스를 가치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존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성?

○WHO QRs 정신건강서비스 가이던스(안내서) 핵심 메시지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열악한 치료 환경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 시스템과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곳곳에는 사람중심, 회복중심, 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우수한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사례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의 우수사례는 기존의 주류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교육, 고용, 주거,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부문의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통합된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가이던스(안내서)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권장사항과 실천과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2.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모델 개발사업 _지역참여형 지원주택

(김윤화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역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표방하는 정책하에서도 여전히 집단적 거주로 통제된 생활을 살아가는 시설 거주 중인 정신장애인은 상당수임

○정신장애라는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이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며 살아가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 현 실정임.

○최근 정부에서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거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원화(탈시설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자연스럽게 탈원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즉 안정적인 주거지와 일자리 주민과의 소통 방안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답은 거의 전무한 상황.

○질환관리라는 목적으로 치료 중심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질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주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는 주어지기 어려움

○병원 퇴원 이후나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 입소 후에는 시설에 적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취해가며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정신장애인들의 대부분은 3~5년간 재활시설에서 훈련을 했다하더라도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수가 일생동안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들은 독립을 목표로 하는 재활훈련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지와 함께 생활지도, 약물관리, 일자리 지원, 재활시설활용 등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개인의 사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지와 전문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지원주택'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정신장애의 주거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각 전문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파악을 위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각 그룹화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온전히 수용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정신장애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부터 호혜적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또한 정신장애인과 함께 공유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실천적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책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에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자 함.

2) 결론

○ 정신장애인에게 주거공간은 단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이들 삶의 주요한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실현되는데 있어 처음과 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어우르는 것 중 주요한 것 중 하나라 “주거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 주거공간 시설적인 요소 중심으로 운영되어와 일정 기간이 되면 퇴소를 해야 하고, 연령대에 따른 규제 등 안정적인 주거지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름.

지역참여가 기반이 되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新 주거지원모델 개발의 필요성 대두됨.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 당사자,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양적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모델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제안함.

⇨ 신 주거지원 모델의 주요 패러다임

▪ 신 주거지원 모델이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은 주거지의 중요성으로 출발함.

▪ 주거공간은 기존의 시설화를 탈피하여 재활시설로서가 아닌 주거공간의 성격이 주가 되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생활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대상자들을 돕는 과정으로 운영됨.

▪ ‘재활’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정신장애 개입 모델에서 ‘지금 현재’에 중심적 가치를 두는 패러다임이 반영된 주거모델로의 변화 추구

▪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로 ‘지원주택제도’를 제외한 현재까지의 주거지원형태는 모두 재활에 목표를 둠으로써 입주조건, 입주기간 등에 제한이 있었고 지역사회와도 상호교류적인 관계도 적극적이지 못 해 계속적인 시설로서의 낙인효과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음.

▪ 기존 주거시설 이용 시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사각지대적 요소를 보완하는 차별화가 시도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며, 이에 따라 대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주거기간의 제한, 연령제한 등의 제한적인 요소를 완화 및 탈피하여 주거의 안정성 확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교류적 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궁긍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모델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 그루터기에서 논의사항

○ 인천광역시에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연구 및 세미나 등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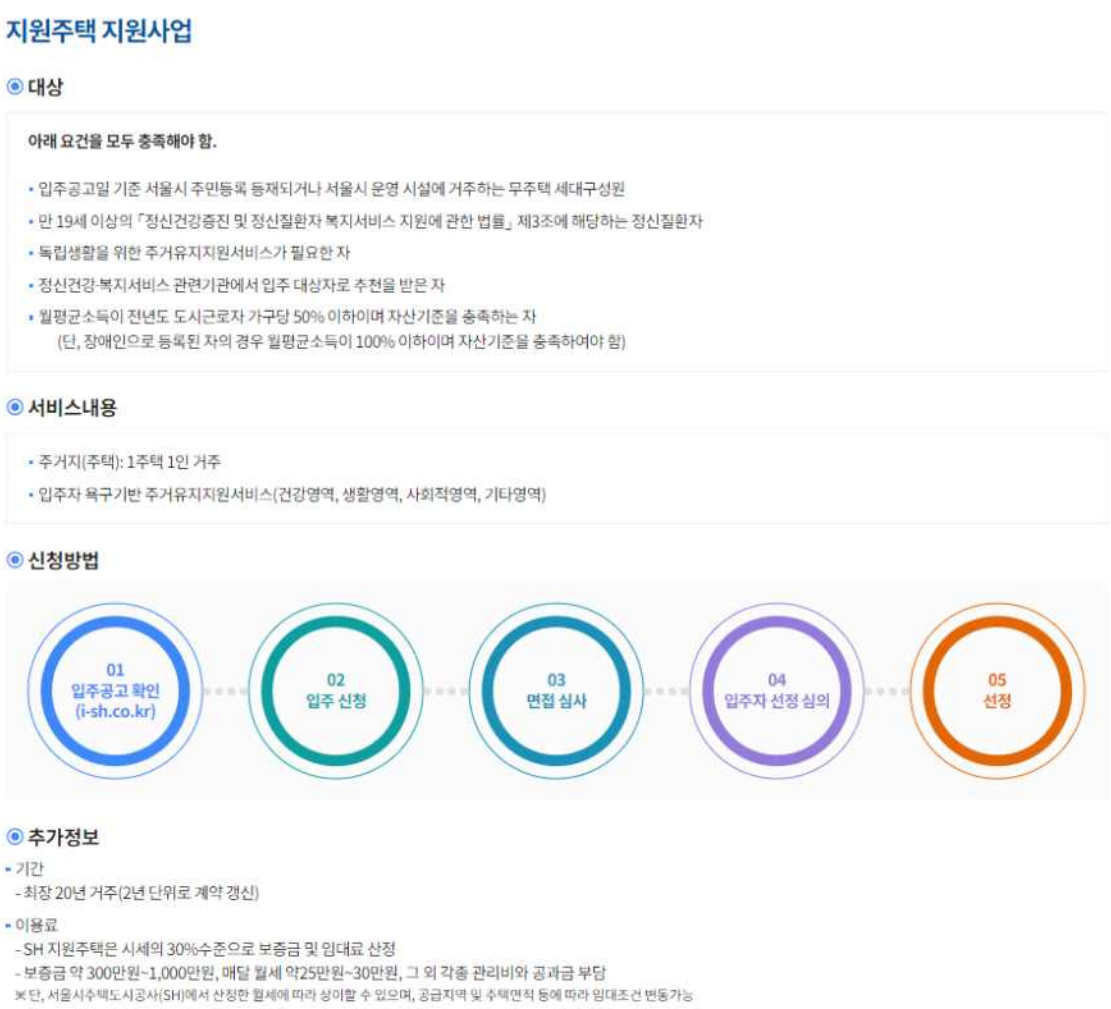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산하 정신장애인주거통합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운영의 실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한편으로 인천광역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인원 미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공동으로 연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립생활주택의 이해

(2021년 9월 기준 28호 운영되고 있음_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 지원주택의 이해
(2021년 9월 기준 56호 운영_양천구, 강동구, 금천구)



지원주택 지원사업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되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서비스내용

- 주거지(주택): 1주택 1인 거주
- 입주자 욕구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건강영역, 생활영역, 사회적영역, 기타영역)

◉ 신청방법

01 입주공고 확인 (i-sh.co.kr) → 02 입주 신청 → 03 면접 심사 → 04 입주자 선정 심의 → 05 선정

◉ 추가정보

- 기간
  - 최장 20년 거주(2년 단위로 계약 갱신)
- 이용료
  - SH 지원주택은 시세의 30%수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보증금 약 300만원~1,000만원, 매달 월세 약25만원~30만원, 그 외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단,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에서 산정한 월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지역 및 주택면적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동가능

※정보 출처: 블루터치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정신장애인주거통합지원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 문의 및 운영의 실제에 대한 정보 확인,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의 인터뷰 등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인천광역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및 공동생활가정과 연합으로 추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팀스터디 22-18

회복근거 사례관리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전략'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22.11.29
발표자	정진옥
장 소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회복근거 사례관리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전략'

Ⅰ.회복지원 사업 개요

1. 사업정의

○ 회복지원사업이란, 지자체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대상자 요구를 반영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2.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모와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지원
○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지역협력서비스 구축
○ 중증·만성 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서비스 모형 확산

3. 근거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3-2-3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4. 필요성

○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관련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립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강화 필요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성시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자립지원체계 마련 필요

5. 주요과제

	1차년도 도입단계	→	2차 년도 발전단계	→	3차년도 완성단계
중요 과제	조직구성, 인력확보운영 인프라 마련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신적용		지역특화 프로그램 우수사례도출, 체계완성
	정신건강협의체 구성·운영		정신건강협의체 다각화		정신건강협의체 역할확대
	필수 프로그램 운영 ①건강관리지원 ②일상 생활지원 ③당사자 활동지원		필수프로그램 운영 ④취업활동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필수프로그램 운영 ⑤주거생활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성과 도출	지역유형에 따른 사업준비 고려사항 도출		단기사업 성과도출 운영자 경험사례 분석		중기사업 성과도출 전국 확산전략 도출

6. 운영현황

○ 주체

-(정신건강협의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

-(회복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성·운영

○ 현황

-총 5개 시·도 운영

시도	운영기관	전화번호
경기(1)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286-0949
강원(1)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242-7574
전북(1)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273-6996
경북(1)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444-0199
제주(1)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4-728-4074

Ⅱ. 회복지원 사업 기반조성

1. 사업대상

○사업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우려가 적고,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 욕구가 있는 자

<대상자 요건>

등록자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자.타해	자립욕구
해당 지역 거주자로 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	정신증진단을 받은 자로지역사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신병적 장애 –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 만 19세 이상	자타해 위험성이 없거나 적은자	관할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적응 및 자립 욕구가 있는 자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 중 회복지원서비스 대상자 모집
- 정신건강협의회에서 회복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의뢰
-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병원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대상자 의뢰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판단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서비스 미 참여시 재입원 우려자
② 정신의료기관 퇴원 예정자
③ 정신건강협의회에서 의뢰된 자로, 회복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회원 중 자립욕구가 있는 자

○대상자 관리
- 회복지원사업 서비스참여동의서를 대상자와 사례관리자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
- 지자체·센터 대상자 관리
- 퇴록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 퇴록 절차에 따라 진행함

2. 회복지원공간
○목적
- 대상자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 지원을 통해 회복지원서비스(프로그램)접근성 확대
- 통합적 회복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치공간조성

○설치 장소
-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민간건물의 임대도 가능함
-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설치

○기본시설(권고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복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시설면적 확보
* 최소 70평 이상의 공간마련 권고
-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요소를 갖춤(화장실은 공동 이용 가능)
- 회복지원사업 방향 및 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
- 대상자의 건강·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공간 확보 등

○운영
- 회복지원공간 프로그램(데이케어), 자치활동 시 점심시간이 포함될 때 프로그램 대상자에 한해 소득기준 제한없이 점심식사 제공 가능
- 대상자들의 공간이용, 원활한 회복프로그램(서비스)제공을 위해 회복지원사업에 국한 하여 활동비를 실비 지원 가능
- 과도한 회복지원 활동비 사용을 금하기 위해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센터사업비, 문화누리카드,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자원 활용을 권함.

3. 회복지원팀(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구성

- 회복지원사업 전담팀을 원칙으로 하며, 팀장 제외 4인 이상 구성 필요
- 센터 상황에 따라 사례관리팀 등 기존팀을 확장,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 가능

○회복지원팀 역할

-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 대상자 수요에 맞춘 기초 요구 조사
- 회복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안내
- 지자체 협력자원 현황 파악, 발굴, 연계

Ⅲ.회복지원 프로그램

1. 일상생활지원

○ 목적

- 일상생활지원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부담을 낮춰 정신질환자와 가족 모두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독립생활유지

○대상

- 병원·시설 퇴원(소), 가족에게부터 독립 등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로 이동한 자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자
- 자립생활의 욕구가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자

○내용

- 개인별 서비스 계획(일상, 사회생활을 위한 서비스 계획)
- 위생관리, 용모관리
- 금전관리: 은행 이용하기, 저축하기 등
- 문화여가: 여가프로그램, 문화생활즐기기, 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등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하기, 교통앱 활용하기, 교통카드 충전 등
- 전자기기: 스마트폰 폴더폰 사용하기, 키오스크 이용하기 등
-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2.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동료지원가)가 지원하여 상호회복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함.

○대상

-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
- 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내용
- 동료지원 활동: 가정방문동행, 대상자 및 가족 정서적 지원, 정보교류, 회복경험 공유, 프로그램 지원
- 동료지원프로그램
-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지원
- 동료지원가 워크숍

3. 건강지원
○목적
-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 질병예방을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 및 강화를 하여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 도모
○대상
-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내용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및 관리
- 건강 욕구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
- 약물관리: 약물복용, 약물교육, 증상관리 등
- 구강교육, 만성질환 교육 등
- 운동프로그램: 웰니스, 산책, 요가, 탁구 등
- 신체건강파악: 건강검진, 대사증후관 관리
- 식단관리: 식사제공, 요리프로그램 등

4. 취업지원
○목적
-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구직을 경험하며 경제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성취감과 더불어 회복과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상
-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
○내용
- 개인별 취업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취업전프로그램: 직업상담, 구직정보 파악, 면접준비, 취업연계지원, 직업 훈련, 직업교육, 자격증공부 등
- 직업교육: 구직자 교육, 취업자 교육, 취업장 교육 등
- 취업자 관리: 취업자 지지서비스, 취업장방문, 직무지도ㅗ 등
- 취업자 자조모임: 정보공유, 정서적지지, 직장 스트레스 환기 프로그램, 대인관계 훈련 등
- 취업장 개발: 임시취업장, 독립취업장, MOU체결 등 개발

5. 주거지원

○목적: 주거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대상

- 병원·시설 퇴원(소), 가족에서부터 독립 등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로 이동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중 독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병식이 있으며, 약물 복용을 통해 증상 관리가 가능한자
- 퇴원(소) 이후 주거지 불분명자

○내용

- 개인별 주거서비스 계획 및 제공
- LH토지주택공사, 지부, 시·도, 지자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자원과 연계를 통한 독립생활지원
- 체험주택, 지원주택 등 제공
- LH 임대주택 정보, LH 청약센터 어플, 마이홈 어플 등 주거관련 정보 제공
- 가사지원 서비스
-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서비스
- 자립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안전 환경 개선 등 일정 비용 또는 물품제공
- 이사지원, 주거관리, 유지지원, 식사지원 등
- 일정 거주비 지원

Ⅳ. 정신재활시설 지원전략

-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수요 및 욕구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질환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로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종사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 회복근거 사례관리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가족, 종사자 모두 회복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 기반의 시설 문화를 조성하며 사업운영 및 개별 지원까지 동반되어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회복근거 사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인에 대한 정원을 두고 대상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하는 정신재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이에 회복을 기반한 우수사례 및 사업 등에 대해 세미나 또는 워크샵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정신재활을 포함하여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마련과 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보다 양질의 사례들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팀스터디 22-19

동료지원가 역량강화 교육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22. 12. 6.
발표자	송준규
장 소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동료지원가 역량강화 교육

Ⅰ. 상담의 이해와 실제(심화)

1. 상담의 이해

1) 상담이란?

(1)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 문제해결 및 행복한 삶을 돕는 과정(상호작용)

2) 상담의 목표

(1) 내담자의 문제 해결
(2) 환경에 대한 적응
(3) 내담자의 발달 및 효율성 향상
(4) 문제 발생의 예방(재방 방지)

3) 상담의 목표설정

(1) 내담자와 합의하여
(2)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3)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4) 상담가의 자질

(1) 상담가: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2) 동료상담가가 필요한 이유: 상담가의 전문적 자질(상담지식과 이론의 활용, 상담기술훈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상담가의 윤리)
(3) 상담가의 윤리: 상담가는 내담자를 보호하고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성실성
② 내담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됨
③ 상담가로서의 책임 준수
④ 비밀 유지
(4) 상담가의 인간적 자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상담에 대한 열의, 다양한 경험, 상담가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기, 상담가의 가치관

5) 상담가가 되려면

(1) 상담가의 욕구, 기대, 동기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상담가는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꾸준한 교육과 분석, 자신의 욕구 인식, 수용, 깨어 있는 자세

6) 상담가가 겪는 어려움

(1)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운가?

① 상담에 대한 불안한 마음

② 유능한 상담가로 보이기 위해

③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담가

→ 내담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2) 내담자의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지는가?

① 내담자의 침묵: 자신의 내면과 무제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순간

→ 내담자의 불안과 침묵을 수용, 침묵의 의미 탐색

(3) 서둘러 도움을 주고, 상담 효과를 보기 원하는가?

① 성급한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됨

→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다.

(4) 내담자의 문제만 보이는가?

① 내담자의 강점을 간과, 전반적인 이해 어려움

→ 내담자의 문제만 보지 않도록 한다.

(5)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① 상담가의 소진은 우울감, 고립감, 능률저하를 가져옴

→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아야 함

7) 상담가의 태도

(1) 진실성: 상담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2)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경험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노력

(3)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음 있는 그대로 수용

8) 상담관계의 특징

(1) 상담가의 따뜻함, 민감성

(2)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

(3) 압력을 가하거나 가용하지 않음

(4) 행동의 한계

2. 상담의 실제

1) 의사소통이란

(1) 의사소통이란 말, 글, 그림, 몸짓, 기계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자신의 생각, 의견, 지식, 정보, 태도, 감정 등을 전달 교환

(2)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

(3) 생각, 감정, 사실이나 정보, 행위를 상대방에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사회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

2) 심리사회적 욕구

(1)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2)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3) 동정과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욕구
(4) 이해 받고자 하는 욕구
(5) 비밀보장의 욕구
(6)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7) 심판 받고 싶지 않은 욕구

3) 내담자의 특성 파악

(1) 편안한 분위기 조성
(2) 내담자의 문제 구체화, 명료화
(3) 내담자의 상황(개인적, 환경적 특성)
(4) 내담자의 강점, 내·외적 자원 파악

4) 동료 상담가에게 필요한 기술

(1) 관심 기울이기

① 관심 기울이기: 시선, 자세, 몸짓, 얼굴 표정 등 내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비언어적 태도
② 무비판적 태도를 취함

(2) 경청

①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것
②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려는 의도, 심정을 주의 깊게 정성 들여 듣는 태도
③ 경청의 2단계(1단계: 상대방의 말들어주기 / 2단계: 감정을 공감하기)

(3) 질문의 종류

① 개방형 질문: 대답이 한정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질문, 감정을 명료화,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 내담자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자기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② 폐쇄형 질문: 사실적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유용,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유용

(4) ‘왜’가 들어간 질문

① 추궁, 불편함, 거부감이 들 수 있음.

(5) ‘어떻게’, ‘무엇이’로 바꾸면

① 당사자의 입장에 대해 상황과 입장을 보다 부드럽게, 또한 공감과 직접적인 이유을 확인할 수 있음.

(5) 재진술

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자가 자기의 표현 양식으로 바꾸어 말해 주는 기법

②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 간결한 방식으로 대화내용을 요약,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③ 인지적 측면 강조: 내담자의 대화내용(반영=‘내담자의 느낌’ 강조)에 집중

(6) 자기개방

① 상담가가 자신의 생각, 가치, 느낌, 태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내담자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② 내담자와 비슷한 감정과 느낌을 가진다는 것을 전달

③ 상담가의 자기 개방은 내담자의 개방을 촉진(신뢰형성, 솔직한 의사소통, 시범)

※ 지나친 상담가의 자기개방은 내담자의 탐색을 방해하고, 초점이 상담자에게 옮겨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7) 정보제공

① 사람, 활동, 행사, 자원, 대안, 결과 나 절차에 관한 자료 또는 사실을 말로 전달해 주는 것

② 내담자의 현재 욕구와 목표에 맞으면서 내담자가 가장 잘 받아들일 시점에 제공

③ 그에 다른 선택은 내담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

5)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 기법들

(1) 일시적인 안심

(2) 불필요한 칭찬과 비난

(3) 조언

(4) 표현된 감정을 무시하는 말투

3. 동료상담가의 자기관리

1) 스트레스 멀리하기

(1) 미리 걱정하지 않기(스트레스 받는 일을 생각하면, 뇌와 몸이 스트레스 받는다.)

(2) 나쁜 결과를 예상하지 않기(일어나기도 전에 생각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걱정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 서서히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2) 나에게 보내는 긍정메시지

(1) 머릿속으로 위로하기(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2) 머릿속으로 칭찬하기(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정도면 만족해)

(3) 머릿속으로 격려하기(계속해서 노력하면 훨씬 더 좋아질거야)

3) 감사하는 삶

(1)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2) 자신과 타인,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 긍정적인 말 적기

4)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목록(포옹, 음악 감사, 차 한잔, 쇼핑, 목욕 등)

(1) 즐거운 경험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치료적인 경험이 된다.

(2) 기분인 나쁠 때 즉각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다.

Ⅱ. 동료지원가와의 만남 준비(실무자)

1. [시작하기에 앞서] 정체성/조직문화 돌아보기(실무자)

1) 동료 지원가에게 실무자는?

(1) 사례관리자?, 동료?, 관리자?, 슈퍼바이저?

2) 우리 기관 조직문화는 어떠한가?

(1) 경직된 조직구조?, 유연한 조직구조?

(2) 대체인력, 수련생, 실습생, 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 인력에 대한 기대정도? 시각?

2. [준비] 기관운영 시스템에 편입(실무자, 기관)

1) 조직 내 가능한 직무분석 및 개발 선행

(1) 동료지원가 '직무' 및 '직무 단계' 명확하게 규정(일 머리로 눈치껏 수행할 것 기대 ×)

(2) 행정 업무 간소화

(3) 동료지원가의 '정당한 편의제공' 명확하게 규정

(4) 동료지원가 직무 관련한 정보의 양 동등하게 공유(회의 등)

2-1. 역할분리(실무자)

1) 동료지원 업무 담당실무자 ≠ 사례관리자 역할 분리

(1) 신뢰관계에 영향(업무지시, 피드백, 보완요구, 평가/판단하는 상급자 역할)

(2) 동료지원활동 업무 중심의 집중 지원 가능

(3) 동료지원 업무 담당 실무자와 해당 사례관리자간 정기/ 비정기적 소통 요구됨

3. [과정] 활동지원(실무자)

1) 과정별 대상

(1) (동료지원가) 동료지원가-동료지원 서비스 받는 분 섬세하게 매칭

(2) (실무자) 동료지원활동 모델링(취업지원 직무지도처럼)

(3) (동료회원) 동료지원 활동 이후 동료 회원 집단의 태도 변화 파악 및 소통 지원

(4) (조직) 동료지원 업무 실무자, 조직 내 관련 직원의 고충 파악 및 조직 내 공식적 소통 지원

3-1. 역량강화(실무자)

1) 정기적 역량강화 지원

(1) 잦은 주기로 슈퍼비전 제공

(2) 매년 동료지원가 보수교육 개설(또는 의뢰)하여 교육 이수 지원

4. [마무리] 보완(실무자)

1) 보완-소통-또 보완

(1) 동료지원가 직무평가 후 직무 재분석, 재개발, 재설계 반영

(2) 동료지원활동 성과 분석, 평가 후 공유

(3) 동료지원가와 함께 일한 경험 바탕으로 조직문화 돌아보기

(4) 동료지원가 정책 보완 목소리

Ⅱ. 동료지원가와의 만남 준비(동료지원가)

1. [시작하기에 앞서]정체성 / 활동 목적 돌아보기(동료지원가)

1) 회원(이용자)?, 동료지원가?, 취업회원, 직원?

2) 돈?, 취업?, 인정받음?, 공인된 사회적 지위 획득?

2. [준비] 역할 전환(당사자)

1) 서비스 받는 사람 → 서비스 '주는' 사람 + 서비스 '받는' 사람

(1) 업무 담당 직원 ≠ 사례관리자

(2) 계약관계에 다른 역할, 태도, 전환 요구됨

(3) 수동적 생활 → 능동적 역할(누구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과정] 좌충우돌 시도(당사자)

1) 동료지원가 활동 목적 상기하기(초심)

(1) 동료지원가 ≠ 권력, 권위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2) 동료지원가(나)의 성장, 회복 + 동료지원서비스 받는 분(상대)의 회복

(3) 활동 과정(잘한 것, 잘못한 것 포함) 솔직하게 공유

(4) 동료회원의 태도 변화 수용과 대화

2) 초보 동료지원가의 시작은 미약한 것이 당연

(1) 꾸준하게 시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 견디며 시도 → 성장이 빠름

(2) 부족한 역량 인정하고, 배우고 익히기(행정업무, 관계 맺기)

(3) 부정적 피드백 수용, 반영하기(회원 × / 동료지원가로 역할 기대)

(4) 기다리며 소통하는 과정 이해하기

(5) 주도적 자기관리

(6) 홀로 감당해야하는 순간들 받아들이기

(7) 내 감정 믿기, 내가 느끼는 것이 팩트, 그게 맞음(쿨 하기 금지)

(8)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지 않기(선 나를 배려, 후 역지사지)

(9) 누치보지 말고 작은 행동부터

(10) '해야 한다' 대신 '하고 싶다' 원하는 것 말하기

3. [마무리] 선택(당사자)

1)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다

(1)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그 속에서 '나의 성취' 발견

(2) 동료지원가로 경력 쌓음

(3) 자립생활센터 당사자 활동가로 취업

(4) 장애인'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에 도전

(5) 일반 고용시장에 취업 도전

Ⅲ. 결론

1. 이론적 전문가와 경험적 전문가의 차이에 있어 경험적 전문가인 동료상담가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동료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정신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함께 회복해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본 시설에서도 동료지원가 양성을 통해 동료 당사자들의 회복과 시설 대기자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시설에서 동료지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회원이 타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먼저 경험한 동료지원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설 내 사회복지사와 공유하면서 본 시설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동료지원가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동료지원가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동료지원가의 양성 교육, 활동 등 경험한 적이 없음. 이에 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활동을 배우기 위해 기관 견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기관 내에서 논의하고 동료지원가 양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

1) 동료지원가의 상담 자질 및 어려움 발생한 상황에 대처 방안 숙지
2) 상담 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태도의 주의사항
3) 상담 시 환경 및 심리적 분위기 조성 방법 안내
4) 관심과 경청 그리고 공감하기
5)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찾기
6) 일과 가정의 중립 지키기
7) 정체성 및 조직문화 돌아보기
8) 동료지원가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해 맞춤형 시스템 개발
9) 회원이 아닌 직장동료로서의 지원
10)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여
11) 동료지원가로서의 정체성 바로잡기
12) 동료지원가 활동 시 일의 몰입, 소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조정 및 휴식 등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

2022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등록번호 2023-7호

■ **발행일** : 2022년 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유 은 별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